

정책 23-11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2023. 10.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김영수(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오화영(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선화(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자문위원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송희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목 차

연구요약	xiii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4
3. 연구추진체계	6
II .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	8
1. 여성과 장애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8
1)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의 목적	8
2) 인적자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9
3) 가구요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10
4) 성별 및 장애요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11
III .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41
1.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41
1) 선행연구 검토	41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71
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71
2)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	102
3) 여성장애인의 교육	23
4) 여성장애인의 혼인 및 출산	34
5) 여성장애인의 정보이용	45
6) 여성장애인의 이동	36

3.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현황	0·7
1) 여성장애인의 대인관계	0·7
2)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9·7
3) 여성장애인의 가족관계	0·9
4) 여성장애인의 정치활동	3·9
4. 산업별 및 직업별 성별 임금수준	31
1) 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3
2) 직업별 성별 임금수준	5
 IV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 분석	831
1. 조사개요	13
2. 연구방법	13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3
2) 분석자료	19
3) 측정도구	19
4) 분석방법	11
3. 연구결과	12
1)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241
2)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	351
3)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451
4)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1
 V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FGI 조사	681
1. 조사개요	16
1) 면접방법	16
2. 분석결과	18
1) 경제활동의 어려움	8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	191
3) 인적자본 개발	1
4) 고용과 일자리 지원	9
5) 고용유지지원	9





VI . 결론 및 제언	22
1. 결론	202
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FGI 조사 결과	402
2. 제언	210
1) 교육과 직업 훈련 강화	2
2) 업무 지원 강화	2
3) 사회적 환경 개선	23
4) 경제활동 관련 법의 일원화	42

▶ 표목차

<표 III-1-1>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요인별 구성	6	1
<표 III-2-1> 연도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15세 이상 인구)7.....	7	1
<표 III-2-2>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15세 이상 인구) ..9.....	9	1
<표 III-2-3>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1	2
<표 III-2-4>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2	2
<표 III-2-5> 2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3	2
<표 III-2-6> 3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4	2
<표 III-2-7> 4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5	2
<표 III-2-8> 5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6	2
<표 III-2-9> 6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7	2
<표 III-2-10>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8	2
<표 III-2-11> 여성장애인의 지속적 진료 비율(2020년 기준)	9	2
<표 III-2-12> 연령대별 지속적 진료 비율(2020년 기준)	0	3
<표 III-2-13> 여성장애인의 의료시설 만족도(2020년 기준)	1	3
<표 III-2-14> 여성장애인의 의료기관 편의시설 만족도(2020년 기준)	2	3
<표 III-2-15>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3	3
<표 III-2-16>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5	3
<표 III-2-17>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이수율(2021년 기준)	7	3
<표 III-2-18>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4	4
<표 III-2-19> 마지막 임신 시 출산여부(2020년 기준)	1	5
<표 III-2-20> 마지막 임신 시 출산 연령대(2020년 기준)	2	5
<표 III-2-21> 임신 시 어려운 점(2020년 기준)	3	5
<표 III-2-22>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임신·출산 관련 비율	4	5
<표 III-2-23> 성별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5	5
<표 III-2-24> 성별 휴대폰/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이유	6	5
<표 III-2-25> 성별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이유	7	5
<표 III-2-26> 성별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이유	8	5



<표 III-2-27> 성별 정보획득 어려움 정도(코로나 19 방역 관련)	9	5
<표 III-2-28> 성별 건강 관련 정보 획득 경로	0	6
<표 III-2-29> 성별 예술행사 정보 획득 경로	2	6
<표 III-2-30> 성별 장애인 복지사업 획득 경로	3	6
<표 III-2-31> 성별 외부 활동 불편 정도	4	6
<표 III-2-32> 성별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이유	5	6
<표 III-2-33> 성별 주요 이동수단	6	6
<표 III-2-34> 성별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7	6
<표 III-2-35> 성별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	8	6
<표 III-2-36> 여성장애인의 이동 지원 및 활용(2021년 기준)	9	6
<표 III-3-1> 성별 대인관계 만족도	1	7
<표 III-3-2> 20세 미만 대인관계 만족도	2	7
<표 III-3-3> 20대 대인관계 만족도	3	7
<표 III-3-4> 30대 대인관계 만족도	4	7
<표 III-3-5> 40대 대인관계 만족도	5	7
<표 III-3-6> 50대 대인관계 만족도	6	7
<표 III-3-7> 60대 대인관계 만족도	7	7
<표 III-3-8> 70세 이상 대인관계 만족도	8	7
<표 III-3-9> 연령대별 대인관계 만족도	9	7
<표 III-3-10> 성별 사회활동 참여도	0	8
<표 III-3-11> 성별 사회활동 경험	1	8
<표 III-3-12> 20대 사회활동 참여도	2	8
<표 III-3-13> 30대 사회활동 참여도	3	8
<표 III-3-14> 40대 사회활동 참여도	4	8
<표 III-3-15> 50대 사회활동 참여도	5	8
<표 III-3-16> 60대 사회활동 참여도	6	8
<표 III-3-17>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도	7	8
<표 III-3-18> 연령대별 동호회활동 경험	8	8
<표 III-3-19> 연령대별 종교활동 경험	9	8
<표 III-3-20> 연령대별 봉사활동 경험	0	9
<표 III-2-21>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1	9
<표 III-3-22> 연령대별 가족관계 만족도	3	9

<표 III-3-23> 여성장애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4..... 9
<표 III-3-24>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5..... 9
<표 III-3-25> 연령대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6..... 9
<표 III-3-26> 여성장애인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 9
<표 III-3-27>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8..... 9
<표 III-3-28> 연령대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9..... 9
<표 III-3-29> 여성장애인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0...0... 1
<표 III-3-30>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1·0 1
<표 III-3-31> 연령대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2...0... 1
<표 III-3-32> 여성장애인의 투표율 추세	3·0 1
<표 III-4-1> 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5·0 1
<표 III-4-2> 광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7·0 1
<표 III-4-3> 제조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9·0 1
<표 III-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1... 1
<표 III-4-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1... 1
<표 III-4-6> 건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2...1 1
<표 III-4-7> 도매 및 소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3...1 1
<표 III-4-8> 운수 및 창고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4...1 1
<표 III-4-9> 숙박 및 음식점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5...1 1
<표 III-4-10> 정보통신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6...1 1
<표 III-4-11> 금융 및 보험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8...1 1
<표 III-4-12> 부동산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8...1 1
<표 III-4-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0...2... 1
<표 III-4-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1
<표 III-4-15> 교육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1...2... 1
<표 III-4-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2...2... 1
<표 III-4-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2... 1
<표 III-4-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4
<표 III-4-19> 직업별 성별 평균임금	6·2 1
<표 III-4-20> 관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7...2... 1





<표 III-4-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8·2·1
<표 III-4-22> 사무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9·2·1
<표 III-4-23> 서비스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1·3·1
<표 III-4-24> 판매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1·3·1
<표 III-4-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3·3·1
<표 III-4-2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3·3·1
<표 III-4-27> 단순노무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6·3·1
<표 IV-3-1> 연령대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4·1
<표 IV-3-2>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3·5·1
<표 IV-3-3>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5·5·1
<표 IV-3-4> 2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8·5·1
<표 IV-3-5> 3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1·6·1
<표 IV-3-6> 4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4·6·1
<표 IV-3-7> 5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7·6·1
<표 IV-3-8> 6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0·7·1
<표 IV-3-9>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3·7·1
<표 IV-3-10>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7·1
<표 IV-3-11> 3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7·1
<표 IV-3-12> 4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7·1
<표 IV-3-13> 5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7·1
<표 IV-3-14> 6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1
<표 IV-3-15>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1
<표 IV-3-16>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8·1
<표 V-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6·8·1
<표 V-1-2> 인터뷰 질문문항	7·8·1
<표 V-1-3> 인터뷰 분석결과 범주화	9·8·1
<표 VI-1-1>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2

▶ 그림목차

[그림 I-1-1] 여성장애인 비율(2021년 기준)	2
[그림 I-1-2] 등록장애인 비율(2021년 기준)	2
[그림 III-2-1] 연도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15세 이상 인구)	1
[그림 III-2-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9
[그림 III-2-3]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0
[그림 III-2-4] 여성장애인의 실업률	0
[그림 III-2-5]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1
[그림 III-2-6]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2
[그림 III-2-7] 2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3
[그림 III-2-8] 3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4
[그림 III-2-9] 4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5
[그림 III-2-10] 5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6
[그림 III-2-11] 6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7
[그림 III-2-12]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8
[그림 III-2-13] 여성장애인의 지속적 진료 비율(2020년 기준)	9
[그림 III-2-14] 연령대별 지속적 진료 비율(2020년 기준)	0
[그림 III-2-15] 여성장애인의 의료시설 만족도(2020년 기준)	1
[그림 III-2-16] 여성장애인의 의료기관 편의시설 만족도(2020년 기준)	2
[그림 III-2-17]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4
[그림 III-2-18] 남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5
[그림 III-2-19]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6
[그림 III-2-20]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이수율(2021년 기준)	7
[그림 III-2-21]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8
[그림 III-2-22] 2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9
[그림 III-2-23] 3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0
[그림 III-2-24] 4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1
[그림 III-2-25] 5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2



[그림 III-2-26] 6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3	4
[그림 III-2-27]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4	4
[그림 III-2-28]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5	4
[그림 III-2-29] 2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6	4
[그림 III-2-30] 3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7	4
[그림 III-2-31] 4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8	4
[그림 III-2-32] 5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9	4
[그림 III-2-33] 6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0	5
[그림 III-2-34]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1	5
[그림 III-2-35] 마지막 임신 시 출산 연령대(2020년 기준)	2	5
[그림 III-2-36] 임신 시 어려운 점	3	5
[그림 III-2-37]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임신·출산 관련 비율 ..	4	5
[그림 III-2-38] 성별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5	5
[그림 III-2-39] 성별 휴대폰/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이유	6	5
[그림 III-2-40] 성별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이유	7	5
[그림 III-2-41] 성별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이유	8	5
[그림 III-2-42] 성별 정보획득 어려움 정도(코로나 19 방역 관련)	9	5
[그림 III-2-43] 성별 건강 관련 정보 획득 경로	1	6
[그림 III-2-44] 성별 예술행사 정보 획득 경로	2	6
[그림 III-2-45] 성별 장애인 복지사업 획득 경로	3	6
[그림 III-2-46] 성별 외부 활동 불편 정도	4	6
[그림 III-2-47] 성별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이유	5	6
[그림 III-2-48] 성별 주요 이동수단	7	6
[그림 III-2-49] 성별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8	6
[그림 III-2-50] 성별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	9	6
[그림 III-2-51] 여성장애인의 이동 지원 및 활용(2021년 기준)	0	7
[그림 III-3-1] 성별 대인관계 만족도	1	7
[그림 III-3-2] 20세 미만 대인관계 만족도	2	7
[그림 III-3-3] 20대 대인관계 만족도	3	7
[그림 III-3-4] 30대 대인관계 만족도	4	7
[그림 III-3-5] 40대 대인관계 만족도	5	7
[그림 III-3-6] 50대 대인관계 만족도	6	7

[그림 III-3-7] 60대 대인관계 만족도	7	7
[그림 III-3-8] 70세 이상 대인관계 만족도	8	7
[그림 III-3-9] 연령대별 대인관계 만족도	9	7
[그림 III-3-10] 성별 사회활동 참여도	0	8
[그림 III-3-11] 성별 사회활동 경험	1	8
[그림 III-3-12] 20대 사회활동 참여도	2	8
[그림 III-3-13] 30대 사회활동 참여도	3	8
[그림 III-3-14] 40대 사회활동 참여도	4	8
[그림 III-3-15] 50대 사회활동 참여도	5	8
[그림 III-3-16] 60대 사회활동 참여도	6	8
[그림 III-3-17]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도	7	8
[그림 III-3-18] 연령대별 동호회활동 참여도	8	8
[그림 III-3-19] 연령대별 종교활동 참여도	9	8
[그림 III-3-20] 연령대별 봉사활동 참여도	0	9
[그림 III-3-21]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1	1	9
[그림 III-3-22]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2	2	9
[그림 III-3-23] 연령대별 가족관계 만족도	3	9
[그림 III-3-24] 여성장애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4	9
[그림 III-3-25]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5	9
[그림 III-3-26] 연령대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6	9
[그림 III-3-27] 여성장애인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	9
[그림 III-3-28]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8	9
[그림 III-3-29] 연령대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9	9
[그림 III-2-30] 여성장애인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0	0 1
[그림 III-3-31]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1	0 1
[그림 III-3-32] 연령대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2	0 1
[그림 III-2-33] 여성장애인의 투표율 추세	3	0 1
[그림 IV-2-1] 연구모형	831	
[그림 IV-3-1]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비율(%)	4	5 1





연구요약

I.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UN(United Nations)의 ‘대한민국 제2·3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차별에 겪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함
- 여성장애인 이중차별 우려사항은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성별 관점이 부재하고 성별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장애 관점이 부재하여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심화되는 문제 등임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남성장애인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이중차별 우려가 감지됨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들이 있어왔으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관련 요인별 실태를 분석하고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 분석 및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II.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

○ 여성과 장애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등이 제정되어 있음
- UN의 ‘대한민국 제2·3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 제6조(장애여성)에서 제시하는 우려사항으로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성별 관점이 부재하고 성별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장애 관점이 부재하다는 점을 제시함

-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의 목적
 -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장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인적자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 장애인고용법은 직업재활을 장려하는 것을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에 이르는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적자본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남녀고용평등실현 목적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의 인적자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용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은 직업재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직업능력개발의 접근성이 약화되며, 이는 다른 인적자본과 관련된 법안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가구요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애인고용법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기본계획 사항에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18~22년)'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음
- 성별 및 장애요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나 성별 관점이 미흡함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적이기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18~22년)'에서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언급





이 없음

III.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김윤승 외(2012), 박자경(2008), 한애경 외(2012), 곽현주 외(2015), 이석원 외(2016), 손정현 외(2011), 오은진 외(2009) 등의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고용지원, 사회적 참여로 분류하였고 각 요인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연구요약-1>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요인별 구성

연구자	김윤승 외 (2012)	박자경 (2008)	한애경 외 (2012)	곽현주 외 (2015)	이석원 외 (2016)	손정현 외 (2011)	오은진 외 (2009)
연구대상	장애인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기혼여성	미취업 장애인	중고령 여성	여성
종속 변수	취업여부 경제활동여부	경제활동참 여	경제활동참 여	경제활동 참여기간	취업	취업	경제활동참 여
인구 학적 요인		연령	연령	연령	연령 건강상태	연령 건강상태	연령
인적 자본 요인		직업훈련참 여여부	자격증 유무	학력	컴퓨터활용 능력 학력 자격증 유무	학력수준	교육수준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6세미만자녀 유무 가구소득	7세미만자녀 유무	미취학자 녀여부 출산경험 여부 가구소득 배우자취 업선호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양육담당 여부	자녀의 경제적 지원	미취학자녀 여부 첫결혼전후 노동시장이 탈여부 첫출산전후 노동시장이 탈여부
장애 요인		장애유형 장애정도	차별경험		장애등급 일상생활도 움필요정도 일상생활도 움제공지존		

연구자	김윤승 외 (2012)	박자경 (2008)	한애경 외 (2012)	곽현주 외 (2015)	이석원 외 (2016)	손정현 외 (2011)	오은진 외 (2009)
					재		
고용지원	취업(공식)네트워크		고용서비스 경험		고용서비스		
사회적 참여	여가활동과 일상 네트워크 형성능력 사회참여능력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여가생활만족도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장애인의 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39.6%에서 2021년 37.3%로 2014년 대비 2021년 -2.3%p 감소하였으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4년 37.0%에서 2021년 34.6%로 -2.4% 감소하였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2017년 5.7%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7.1%로 증가추세에 있음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황을 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21.9%에서 2021년 24.1%로 2.2%p 증가하였으나 2021년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47.0%와 전체 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3.3%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임.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014년 19.8%에서 2021년 22.2%로 2.4%p 상승하였으나 2021년 남성장애인 고용률 43.8%와 비교하면 0.51배 수준으로 전체 인구 중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의 0.73배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개선의 필요가 있음.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2015년을 제외하고 남성장애인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남성장애인의 실업률 변화와 비슷한 추세이나 실업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비율을 볼 때 남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보다 좋지 않으며,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20세 미만/20대/30대/40대/50대/60대/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음

-여성장애인의 지속적 진료 여부는 여성장애인 82.0%, 남성장애인 72.8%





로 여성장애인이 다소 높으나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지속적 진료 비율은 남성장애인이 더 높음

-의료시설 만족도를 보면 여성장애인은 매우 만족(4.0%)과 만족(53.3%)의 합이 57.3%이며 남성장애인은 매우 만족(4.3%)과 만족(51.6%)의 합이 55.9%로 여성장애인의 만족 비율이 1.4% 높음

-의료기관 편의시설 만족도를 보면 “만족”이상 응답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51.3%임

○ 여성장애인의 교육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대졸 이상 비율이 3.3%로 남성장애인 11.1%인 것과 비교하여 1/3 이하 수준에 불과하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별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남성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혼인 및 출산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 있음”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39.1%로 남성장애인의 비율 60.4%보다 -21.3%p가 낮고 전체인구 중 여성이 “배우자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55.2%보다 -16.1%p가 낮으나 여성장애인이 “사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남성장애인의 “사별” 비율 6.6%와 전체인구의 “사별” 비율 7.2%보다 30%p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음

-여성장애인의 임신 시 출산 비율은 마지막으로 임신하였을 때 출산한 비율은 91.3%이며, 출산 연령대는 “만20~24세”가 17.1%, “만25~29세”가 34.2%, “만30~34세”가 35.8%, “만35~39세”가 8.0%, “만40~44세”가 5.0%로 나타남

-여성장애인의 임신 시 어려운 점은 “본인의 건강악화” 응답 비율이 12.6%, “자녀양육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응답 비율이 12.3%,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응답 비율이 11.8%로 상위 비율을 차지함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출산비용 지원” 응답 비율이 10.2%,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응답 비율이 8.8%,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응답 비율이 7.1%로 상위를 차지함

○ 여성장애인의 정보이용

-여성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을 보면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84.8%이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성장애인 비율은 18.2%,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성장애인 비율은 24.4%로 남성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남

-여성장애인이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없어서’ 58.2%, ‘복잡하고 어려워서’ 11.7%,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 8.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없어서’ 58.7%, ‘복잡하고 어려워서’ 20.3%,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 10.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없어서’가 59.2%,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20.2%,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가 10.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여성장애인의 정보 획득 및 경로에서 정보 획득 어려움 정도를 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상당히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1%, “다소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 “어려움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로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약 94.0%에 해당하였고, 건강 관련 정보 획득 경로는 “의료기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7.4%, “TV 등 대중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4%, “주변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6%,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 6.4%로 나타났고, 예술행사 정보 획득 경로는 “TV/라디오”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61.3%, “인터넷(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4.9%, “주변 사람”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6.0%로 나타났고, 장애복지사업 정보 획득 경로는 “정보매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1.2%, “친척/친구/이웃”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3.8%, “행정기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7.0%,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1.4%로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이동

-여성장애인의 외부활동에서 외부 활동 불편 정도는 “매우 불편함”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8.5%, 남성장애인 비율은 10.3%이며, “약간 불편함”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9.1%, 남성장애인 비율은





32.7%로 나타났으며,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40.6%, 남성장애인 비율은 40.9%이며,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2.9%, 남성장애인 비율은 26.4%로 나타남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은 “자가용”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0.6%, 남성장애인 비율은 37.9%이며, “일반버스”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9.0%, 남성장애인 비율은 19.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6.0%, 남성장애인 비율은 19.1%이며, “지하철전철”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7.3%, 남성장애인 비율은 8.1%로 나타남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움은 매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5.1%, 남성장애인 비율은 7.3%이며, “약간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3.9%, 남성장애인 비율은 26.1%로 나타남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59.0%, 남성장애인 비율은 46.1%이며, “전용 교통수단 부족”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5.2%, 남성장애인 비율은 19.6%로 나타남

-이동 지원 및 활용에 대하여 이동 지원 필요”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8.7%, 남성장애인 비율은 22.7%이며, “이동 지원 활용”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2.6%, 남성장애인 비율은 14.7%로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현황

-여성장애인의 대인관계만족도는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8.5%, ‘약간 만족’ 응답비율은 51.7%, ‘약간 불만족’ 응답비율은 30.7%,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9.2%로 나타남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는 73.7%의 여성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편으로 나타남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경험은 동호회 활동이 2.2%, 종교 활동이 21.1%, 봉사활동이 4.3%로 종교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여성장애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2.4%, ‘약간 만족’하는 비율은 64.7%, ‘약간 불만족’하는 비율은 10.9%, ‘매우 불만족’하

는 비율은 2.0%로 나타남

-여성장애인의 정치활동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74.6%, 제19대 대통령 선거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81.2%,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73.7%로 나타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55.8%, 남성장애인 비율은 43.1%이며,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7.6%, 남성장애인 비율은 34.4%로 나타났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62.1%, 남성장애인 비율은 48.1%이며,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4.3%, 남성장애인 비율은 35.1%로 나타났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51.4%, 남성장애인 비율은 36.6%이며,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9.1%, 남성장애인 비율은 39.0%로 나타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39.2%, 20대 50.6%, 30대 57.8%, 40대 71.0%, 50대 75.6%, 60대 80.1%, 70세 이상 75.2%로 전 연령대에서 남성장애인의 투표율보다 낮게 형성되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33.3%, 20대 73.3%, 30대 67.7%, 40대 72.1%, 50대 86.8%, 60대 89.0%, 70세 이상 79.2%로 전 연령대에서 남성장애인의 투표율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며,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88.0%, 20대 35.9%, 30대 59.2%, 40대 64.6%, 50대 74.4%, 60대 82.1%, 70세 이상 75.0%로 20세 미만 여성장애인만 남성장애인보다 크게 투표율이 높았으며, 20세 미만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이 남성장애인의 투표율보다 낮게 형성됨

○ 산업별 및 직업별 성별 임금수준

-산업별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들 중 5순위 중 광업에는 여성장애인의 진출이 확인되지 않았고, 1순위인 금융 및 보험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 연봉은 34,051천원(4,782명),





2순위인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 연봉은 26,750천원(1,219명), 3순위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 연봉은 32,954천원(1,269명), 4순위인 정보통신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 연봉은 22,453천원(2,784명)으로 나타남

-직업별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여성의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 중 상위 3순위 직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관리자는 여성장애인 종사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무 종사자에서는 25,303천원(31,42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는 23,792천원(14,314명)으로 나타남

IV.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 분석

○ 조사개요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독립변수를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고용지원, 사회적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분석방법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한 분석방법은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SD)를 실시하였고, 둘째, 카이자승 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각 독립변수별 경제활동 참여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셋째, 경제활동 참여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분석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함

○ 연구결과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첫째, 인구학적 요인 중 ‘만나이’에서는 20대와 30대는 만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만나이가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감소함.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둘째,

인적자본 요인 중 '학력'에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50대에서는 학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60대, 70세 이상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함.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는 4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셋째, 가구요인 중 '가구주 여부'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배우자 유무'에서는 20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30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40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50대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넷째,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는 20대와 30대는 중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30대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나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다섯째,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 우선필요'에서는 20대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30대는 취업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고, 40대는 그 외의 정보를 우선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고, 5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취업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임금보조 우선필요'에서는 20대, 30대, 60대는 임금보조를 우선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고, 40대, 50대, 70세 이상은 임금보조를 우선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여섯째,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 이용난이도'에서는 40대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교통수단의 이용이 용이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30대를 제외하고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V.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FGI 조사

○ 조사개요

-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가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경제활동에 가지는 어려움, 필요한 서비스 등과 경제활동참여 관련 여성 및 장애 관련 법안들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 및 개선의견을 수집하고자 함
- 면접대상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으로 시설이나 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면접방법은 개별 또는 집단 인터뷰로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4회 진행함

○ 분석결과

- 업무난이도에 있어서 수행가능한 업무난이도가 낮은 경우와 특정상황에서 업무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었음
- 기능보장에 있어서 특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음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출산·양육, 경제적 문제, 보조기기 기능 보강 등이었음
- 여성장애인이 지원정책을 체감하는 정도는 출산·양육 지원에서 휴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양육난이도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하여 높으나 지원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체감하였으며, 법이 여성 관련법과 장애인 관련법으로 나뉘어 여성관련 부서와 장애인 관련 부서에 각각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인적자본 개발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여성 대상 직업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진로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훈련과 일자리가 부족함
- 고용과 일자리 지원에서 여성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지원은 정보제공, 취업 지원 등이었음
- 여성 일자리 지원인 여성고용활당제는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력단절문제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장애인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만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양육지원에 대하여 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배우자에게 대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여성장애인이 양육 관련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 고용유지지원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하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 사측에서 근로지원인 없이 가능한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급에 따라 필요할 수 있고, 사측에서 설치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만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VI. 결론 및 제언

○ 제언

-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결과를 보면 20대·30대·40대 여성장애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에서 지원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취업준비활동과 관련 정보로 전공 관련 직업의 취업률과 임금수준 등은 비장애인 대상으로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비장애인 대학생들이 하는 취업준비활동은 연합동아리 가입, 학회 활동, 인턴 활동 등이지만 장애인이 해당 활동의 필요성 및 접근방법이 제공되지 않고 취업정보와 취업준비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지 않음
- 직업훈련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연구결과를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함
- 30대부터 50대까지는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보다 일자리 유지 욕구가 크고, 연구결과에서는 50대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약 13배 높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70세 이상은 약 10배 높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어 직업훈련에 대한 연령대별 취업관련정보 제공이 필요함
- 업무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에서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 보조기기의 기능보장 수준이 향상될수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능성이 올라가고,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타인의존도를 낮추고, 사내에 충분한 편의시설이 설치한다면 보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동권 개선이 필요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40대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대에서 교통수단의 이용이 용이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가생활만족도에서도 3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음
-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며, 둘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함
- 공동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장애인은 출산과 양육문제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창구가 없고, 비장애인 여성보다 양육에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큰 차이는 없으며, 배우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기에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양육을 담당하는 선택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 공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부부 중 누가 양육을 하든지 양육이 가능하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양육정보가 축적되어야 하고, 양육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어야 하며, 둘째, 육아휴직의 사용에서도 여성장애인과 배우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추가하여야 함
- 경제활동 관련 법이 일원화되어야 함
-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정보는 성별로 제공해야 여성장애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에 어려움이 없으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수유시설과 같은 여성시설에 여성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출산과 양육문제도 여성에 관한 지원에 장애인 지원이라는 관점을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하지만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관련 법안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 관련 법안은 분리되어 있기에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지원을 받

고, 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지만 여성장애인으로서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일원화의 방안으로 첫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관련 법제정이 고려할 수 있고, 둘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제정이 고려할 수 있고, 셋째, 여성 경제활동 관련 법에 장애인 관점을 추가하여 법개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넷째,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법에 여성 관점을 추가하여 법개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중 실효성이 있는 것은 셋째, 여성 경제활동 관련 법에 장애인 관점을 추가하여 법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이미 되어있기에 여성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면 되며,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에 접근하는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대통령시행령 제정으로도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음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UN(United Nations)의 ‘대한민국 제2·3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 차별에 겪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제27조(근로 및 고용)에서는 장애인의 개방적·포용적 접근 가능한 고용 전환 보장 조치 이행과 함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와 적극적 고용 촉진 우대조치의 효과적 이행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20).

제2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사항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혜택의 부재, 개방된 노동시장 이동 계획 부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개방된 노동시장 참여 배제 또는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 폐지, 업무 및 고용과 관련된 장애인 차별 근절을 위한 조치 채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장애여성)에서 제시하는 여성장애인 이중차별 우려사항은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성별 관점이 부재하고 성별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장애 관점이 부재하여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고용 등의 영역에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고 보고 있다(United Nation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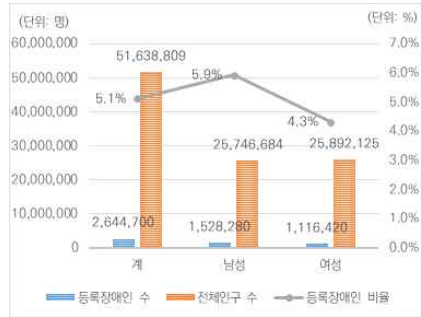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상기 최종견해 보고서에서 언급된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을 보면 2014년 19.8%에서 2022년 22.2%로 2.4%p 증가하였으나 2021년 기준 남성장애인 고용률 49.4%와 비교하여 고용률은 -29.6%p 낮은 수준이며, 전체인구 중 여성의 고용률 49.7%보다 -29.9%p 낮다.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37.0%에서 2021년 34.6%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남성장애인의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을 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인구 중 여성의 실업률은 전체 인구의 남성과 비교하여 0.1%p~0.3%p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2015년을 제외하고 높은 수준에 있으며, 그 차이가 2018년



1.1%p, 2021년 0.7%p 등으로 높게 형성되는 등 전체 인구 남성과 여성 실업률 차이보다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14년 21.9%에서 2021년 24.1%로 향상되었지만 2021년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47.0%와 비교하여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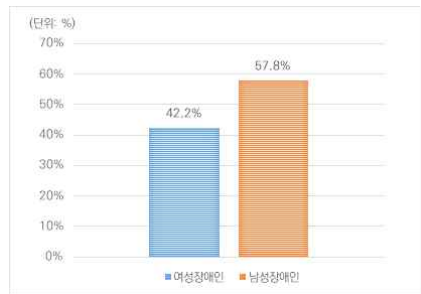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에 대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있어왔다. 최혜영 의원 외 38인은 2021년 12월 2일 「장애여성지원법안」(의안번호: 2113683)을 제안하였으며, 발의안 제12조(고용지원)에서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적합한 노동환경 조성, 교육 훈련, 직종 개발,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고용 전반 차별 방지 조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다른 활동으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노동권 등에서 여성장애인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며¹⁾,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은 2021년 기준 1,116,420명으로 전체 인구 중 여성 인구 25,892,125명의 4.3%에 해당하며, 등록장애인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은 4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 장애인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그림 I-1-2] 등록장애인 비율(2021년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I-1-1] 여성장애인 비율(2021년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1)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홈페이지(<http://www.kdauw.org/>)에서 여성장애인은 노동권 등에 대하여 상황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함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혜영 의원 외 38인은 「장애여성지원법안」 발의안에서 여성장애인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법률로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법안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제활동 관련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UN의 최종 견해에 대한 상기 보고서에는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성별 관점이 부재하고 성별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장애 관점이 부재하여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최혜영의원 외 38인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에서도 기존 법률로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유사하다.

각 법안의 제1조(목적)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각 법안의 목적에서는 UN의 상기 보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장애인고용법에는 성별 관점이 부재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장애에 대한 관점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두 가지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의 목적에 해당하지만 상기 발의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관점의 부재로 인하여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관련 요인별 실태를 분석하고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 분석 및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및 법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첫째,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에 대하여 분석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련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에 관련하여 장애인고용법이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의 목적을 확인하고, 인적자본 관점, 가구요인 관점, 성별 관점, 장애요인 관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을 분석한다.

둘째,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검토하여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산업별 및 직업별 성별 임금수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은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교육, 혼인 및 출산, 정보이용, 이동 등을 확인하고, 사회참여는 대인관계, 사회활동, 가족관계, 정치활동 등을 확인하고, 산업별 성별 임금수준과 직업별 성별 임금수준을 확인한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고용지원, 사회적 참여 등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에 대한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한다.

넷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여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고찰한다. 인터뷰는 그룹 인터뷰 또는 개별인터뷰를 실시한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경제활동의 현황,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첫째,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을 분석한다.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의 목적, 인적자본 관점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 가구요인 관점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 성별 관점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 장애요인 관점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을 분석한다.

둘째, 경제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및 경제활동 관련 통계를 분석한다. 경제활동에 대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를 수집 및 분석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경제활동에 대하여 경제활동 참여 현황, 사회참여 현황, 산업별 및 직업 성별 임금수준으로 분류하여 관련 통계를 분석한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경제활동 참여 수준,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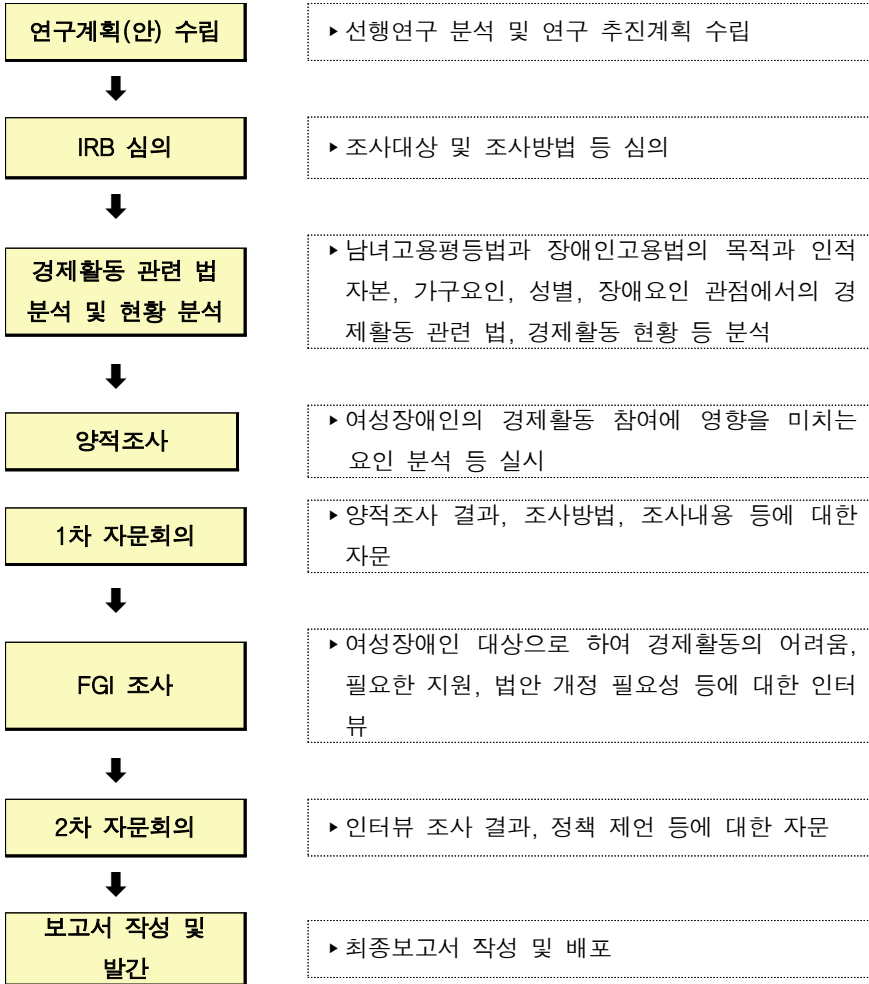
넷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FGI 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어려움,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 인적자본 개발, 고용과 일자리 지원, 고용유지지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한다.

다섯째,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현장, 학계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2회의 자문회의를 진행한다. 연구의 방향성,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 등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3. 연구추진체계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II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

1. 여성과 장애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UN의 ‘대한민국 제2·3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 제6조(장애여성)에서 제시하는 우려사항에서는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성별 관점이 부재하고 성별 관련 법 및 정책에서 장애 관점이 부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여성장애인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24.1%로 2021년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47.0%와 전체 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3.3%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성별과 장애인으로의 이중적 부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우려스럽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 관련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이 있지만 각각의 법의 대상은 여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정되었기에 여성장애인이라는 여성과 장애인의 복합적 대상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을 여성과 장애인의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의 목적

장애인고용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 기술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 기술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을 장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인적자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고용법이 직업재활을 장려하는 것은 직업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에 이르는 요소로 보기 때문에 직업을 갖기 위하여 장애인의 인적자본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남녀 고용 평등 실현 목적의 수단이기에 여성의 인적자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3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라 기술하여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 제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 기술하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고려는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서 여성장애인은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장애인고용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은 직업재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직업능력개발의 접근성이 약하다. 이는 다른 인적자본과 관련된 법안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10조(직업지도) 제1항, 제11조(직업적응훈련) 제1항,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1항에서 성별에 대한 관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직업 지도), 제16조(직업능력 개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장애인고용법 제1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법 제11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법 제12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직업 지도)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직업능력 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가구요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애인고용법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이 없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여성장애인과 같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과 같은 가구요인에 대한 관점이 없는 장애인고용법은 제7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제6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항의 각 목에서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지원,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부재하기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제6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항목들은 ①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②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③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정책에 관한 사항, ④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⑤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⑥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⑦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없다.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18~22년)’을 보면, ‘찾아가는 모성보호 안내서비스 등 일·생활 균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모성보호 안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대체인력 채용지원, 시간선택제 컨설팅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보육시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대다수’라 기술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이 보육에 임할 때 관련한 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성별 고정관념 없는 성평등 교육’을 계획함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제6차 기본계획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 관련 시설 접근 어려움 등 차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일한 관점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려면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공공복지시설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포괄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성장애인은 성별은 여성이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4) 성별 및 장애요인 관점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성별 관점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부족한 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7조 제2항을 통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②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③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④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2018)에서 제시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를 통하여 성별 고려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하여 상당히 제한적이기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수준은 남성장애인(평균 임금 203만원)에 비하여 여성장애인은 평균 임금 112만원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평균 근속기간도 남성장애인이 6.8년이지만 여성장애인은 4년으로 2.8년의 격차가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대책은 미비한 편이다. 기본계획에서 여성장애인이 언급되는 것은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설립지원 강화계획, 장애인 고용장려금 상향 조정, 시간제 근로 희망 여성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 의무



고용 인정, 여성 장애인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직업영역 개발 등이 있다. 여성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지만 기본계획에서 언급하듯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46.8%(고용노동부, 2018)로 장애인 의무고용조차도 충족되지 않는 배경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0. 9., 2010. 6. 4., 2016. 1. 2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측면에서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18~22년)’을 살펴보면,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성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등 임금분포)를 도입하여 성별 임금격차 정보공개 및 개선의무를 부과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 하지만 이에 대하여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2018년 상반기에 배포할 계획과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 있으나 기본계획에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에 따라 책정하는 임금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여성장애인은 기본계획에서 고려대상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에 여성은 주요 고려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장애인은 여성임에도 고려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기본계획에서 ‘2006년 AA(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후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관계부처 합동, 2017) 여성장애인은 여성이지만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나타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에는 여성장애인도 포함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여성장애인도 여성으로써 그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안과 기본계획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제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언

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은 고용에 대한 여성에 대한 고려는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고려는 없으므로 인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이 우려된다.

-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8.>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8.>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II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김윤승 외(2012)는 네트워크, 사회참여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 등의 요인 모두가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축적과 사회적 자본 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대하여 취업네트워크 이용 시에는 감소로 나타나나 이는 장애인의 선택적 편의에 의한 결과가 높은 것으로 해당 연구에서 추론하였다(김윤승 외, 2012).

박자경(2008)은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차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20대에 비하여 다른 연령층들이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본 요인에서는 직업훈련 참여한 경우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았다(박자경, 2008).

한애경 외(2012)는 인구학적 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 요인, 가구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경·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우 차별 경험이 많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감소하였으며, 고용서비스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경증 여성장애인의 경우 차별 경험이 많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감소하였으며, 자격증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증가하였다(한애경 외, 2012).

곽현주 외(2015)는 연령, 학력, 가구소득, 미취학자녀 유무, 일년 내 출산경험,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 선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남편 선호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기간이 증가하였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일년 내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참여기간이 줄어들었다(곽현주 외, 2015).

이석원 외(2016)은 인구학적 요인, 장애요인, 인적자본 요인, 사회적지지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취업에 긍정적이며, 가구주인 경우에 취업에 긍정적이며,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에 취업에 부정적이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취업에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경증장애인인 경우에 취업확률이 높았으며,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았으며,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가 낮을수록,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 취업확률이 높았으며, 학력에서는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보다 중학교 졸업이 취업확률이 높았다. 또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와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 취업확률이 높았다(이석원 외, 2016).

손정현 외(2011)는 인구학적 요인, 가구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고령 여성의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경제적 지원 수준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았다(손정현 외, 2011).

오은진 외(2009)는 인적자원 변인, 첫 취업 경험유형, 인구학적 변인, 가족변인 등 독립변수로 하여 경제활동 참여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년제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와 노동시장 참여 확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4년제 대학졸업 이상 여성보다는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낮았으며, 첫 결혼 전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낮았으며, 첫 출산 전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낮았다(오은진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고용지원, 사회적 참여로 분류하였다. 각 요인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1>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요인별 구성

연구자	김윤승 외 (2012)	박자경 (2008)	한애경 외 (2012)	곽현주 외 (2015)	이석원 외 (2016)	손정현 외 (2011)	오은진 외 (2009)
연구대상	장애인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기혼여성	미취업 장애인	중고령 여성	여성
종속 변수	취업여부 경제활동여부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기간	취업	취업	경제활동 참여
인구 학적 요인		연령	연령	연령	연령 건강상태	연령 건강상태	연령
인적 자본 요인		직업훈련 참여여부	자격증 유무	학력	컴퓨터 활용 능력 학력 자격증 유무	학력수준	교육수준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6세미만 자녀 유무 가구소득	7세미만 자녀 유무	미취학 자녀 여부 출산경 험 여부 가구소 득 배우자 취 업 선 호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 양육 담 당 여부	자녀의 경제적 지원	미취학 자녀 여부 첫결혼 전후 노동시 장이 탈 여부 첫출산 전후 노동시 장이 탈 여부
장애 요인		장애유 형 장애정 도	차별경 험		장애등 급 일상생 활도 움필요 정도 일상생 활도 움제공 지 준 재		
고용 지원	취업(공 식)네 트 위 크		고용서 비 스 경 험		고용서 비 스		
사회 적 참 여	여가활 동과 일상 네트 위 크 형 성 능 력 사 회 참 여 능 력				대인 관 계/ 조 직 적 응 능 력	여가 생 활 만 족 도 사 회 적 친 분 관 계 만 족 도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본 절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교육, 혼인 및 출산, 정보이용, 이동 등의 영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1) 여성장애인의 고용

① 장애인의 고용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은 2014년 이후 하향추세에 있으며 실업률은 2017년 이후 상향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39.6%에서 2021년 37.3%로 2014년 대비 2021년 -2.3%p 감소하였으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4년 37.0%에서 2021년 34.6%로 -2.4% 감소하였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2017년 5.7%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7.1%로 증가추세에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은 다음 표와 그림과 같다.

<표 III-2-1> 연도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15세 이상 인구)
(단위: %)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14	39.6	6.6	37.0
2015	37.7	7.9	34.8
2016	38.5	6.5	36.1
2017	38.7	5.7	36.5
2018	37.0	6.6	34.5
2019	37.3	6.3	34.9
2020	37.0	5.9	34.9
2021	37.3	7.1	34.6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그림 III-2-1] 연도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②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장애인의 수치에 대략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도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남성장애인의 실업률보다 높은 편이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21.9%에서 2021년 24.1%로 2.2%p 증가하였으나 2021년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47.0%와 전체 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3.3%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있다.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014년 19.8%에서 2021년 22.2%로 2.4%p 상승하였으나 2021년 남성장애인 고용률 43.8%와 비교하면 0.51배 수준으로 전체 인구 중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의 0.73배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개선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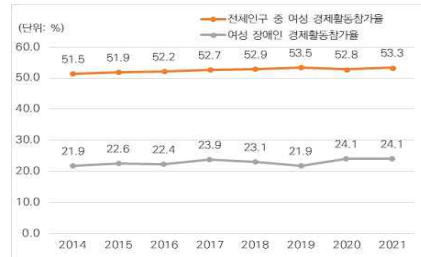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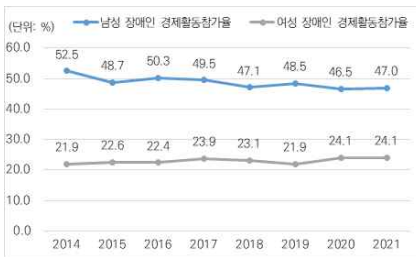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2015년을 제외하고 남성장애인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남성장애인의 실업률 변화와 비슷한 추세이나 실업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여성의 실업률은 3.5~4.0%사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2015년 이후 6.1~7.6%사이에서 크게는 1.5%p 수준까지 변화하는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I-2-2>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15세 이상 인구)

(단위 : %)

연도	장애인구						전체인구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남성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실 업 률	고 용 률	경제 활동 참가율	실 업 률	고 용 률	경제 활동 참가율	실 업 률	고 용 률	경제 활동 참가율	실 업 률	고 용 률
2014	52.5	5.8	49.4	21.9	9.3	19.8	74.4	3.5	71.7	51.5	3.5	49.7
2015	48.7	8.1	44.7	22.6	7.1	21.0	74.1	3.6	71.4	51.9	3.5	50.1
2016	50.3	6.4	47.1	22.4	6.8	20.8	74.0	3.8	71.2	52.2	3.6	50.3
2017	49.5	5.5	46.8	23.9	6.3	22.4	74.1	3.8	71.2	52.7	3.5	50.8
2018	47.1	6.3	44.1	23.1	7.4	21.4	73.7	3.9	70.8	52.9	3.7	50.9
2019	48.5	6.0	45.6	21.9	7.2	20.3	73.5	3.9	70.7	53.5	3.6	51.6
2020	46.5	5.8	43.8	24.1	6.1	22.7	72.6	3.9	69.8	52.8	4.0	50.7
2021	47.0	6.9	43.8	24.1	7.6	22.2	72.6	3.6	70.0	53.3	3.8	51.2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그림 III-2-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그림 III-2-3]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그림 III-2-4] 여성장애인의 실업률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2)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

(1)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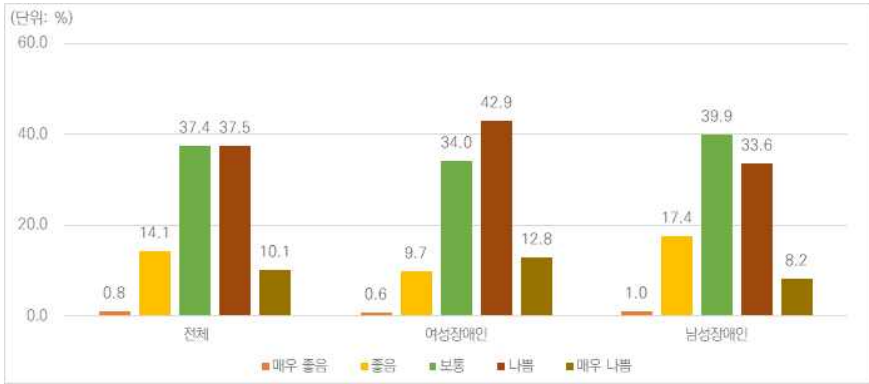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중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6%,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7%로 남성장애인이 응답한 비율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0%로 남성장애인의 응답비율 39.9%보다 낮다.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9%,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8%로 남성장애인의 응답비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즉,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보다 좋지 않다.

<표 III-2-3>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좋음	0.8	0.6	1.0
좋음	14.1	9.7	17.4
보통	37.4	34.0	39.9
나쁨	37.5	42.9	33.6
매우 나쁨	10.1	12.8	8.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5]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여성장애인의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상태

① 20세 미만 주관적 건강상태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 장애인 중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7%이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5%이다. 이는 남성장애인이 “매우 좋음”(7.2%)과 “좋음”(37.6%)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2%로 남성장애인의 비율 41.4%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6%,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나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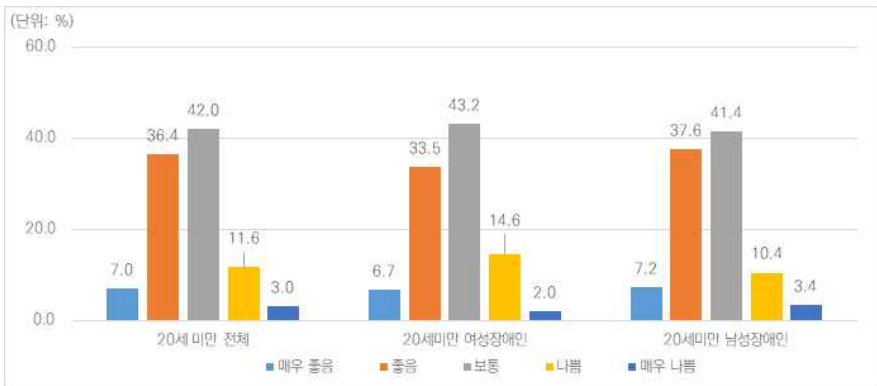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은 16.6%로 남성장애인이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 13.8%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4>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20세 미만 전체	20세 미만 여성장애인	20세 미만 남성장애인
매우 좋음	7.0	6.7	7.2
좋음	36.4	33.5	37.6
보통	42.0	43.2	41.4
나쁨	11.6	14.6	10.4
매우 나쁨	3.0	2.0	3.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6]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20대 주관적 건강상태

2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장애인 중 “매우 좋음”(2.8%)과 “좋음”(42.3%)으로 응답한 비율 45.1%이며, 이는 남성장애인이 “매우 좋음”(6.7%)과 “좋음”(39.3%)이라고 응답한 비율 46.0%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2%로 남성장애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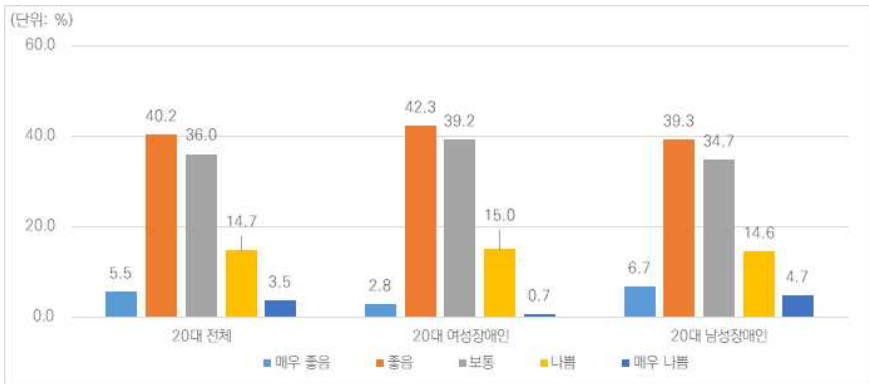
비율 34.7%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나쁨”(15.0%)과 “매우 나쁨”(0.7%)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7%로 남성장애인이 “나쁨”(14.6%)과 “매우 나쁨”(4.7%)으로 응답한 비율은 19.3%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2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5> 2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20대 전체	20대 여성장애인	20대 남성장애인
매우 좋음	5.5	2.8	6.7
좋음	40.2	42.3	39.3
보통	36.0	39.2	34.7
나쁨	14.7	15.0	14.6
매우 나쁨	3.5	0.7	4.7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7] 2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30대 주관적 건강상태

3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장애인 중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9%,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 29.2%로 남성장애인이 “매우 좋음”(2.2%)과 “좋음”(30.1%)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게 형성되



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3%로 남성장애인의 비율 45.3%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 22.6%,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 6.0%로 남성장애인이 “나쁨”(19.3%)과 “매우 나쁨”(3.1%)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즉, 3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좋지 못하다.

<표 III-2-6> 3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30대 전체	30대 여성장애인	30대 남성장애인
매우 좋음	2.1	1.9	2.2
좋음	29.8	29.2	30.1
보통	43.7	40.3	45.3
나쁨	20.4	22.6	19.3
매우 나쁨	4.0	6.0	3.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8] 3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④ 40대 주관적 건강상태

4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장애인 중 “매우 좋음”(1.3%)과 “좋음”(18.2%)으로 응답한 비율은 19.5%로 남성장애인이 “매우 좋음”(1.0%)과 “좋음”(22.7%)이라고 응답한 비율 23.7%보다 낮게 형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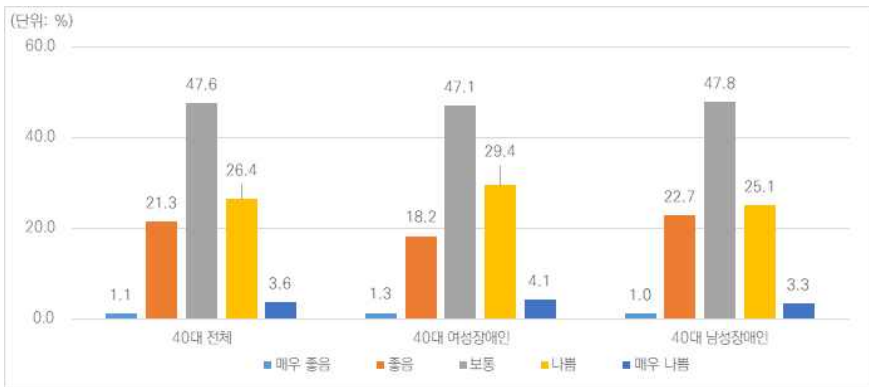
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1%로 남성장애인의 비율 47.8%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 29.4%,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 3.3%로 남성장애인이 “나쁨”(25.1%)과 “매우 나쁨”(3.3%)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4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7> 4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40대 전체	40대 여성장애인	40대 남성장애인
매우 좋음	1.1	1.3	1.0
좋음	21.3	18.2	22.7
보통	47.6	47.1	47.8
나쁨	26.4	29.4	25.1
매우 나쁨	3.6	4.1	3.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9] 4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⑤ 50대 주관적 건강상태

5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장애인 중 “매우 좋음”(1.1%)과 “좋음”(14.5%)으로 응답한 비율은 15.6%로 남성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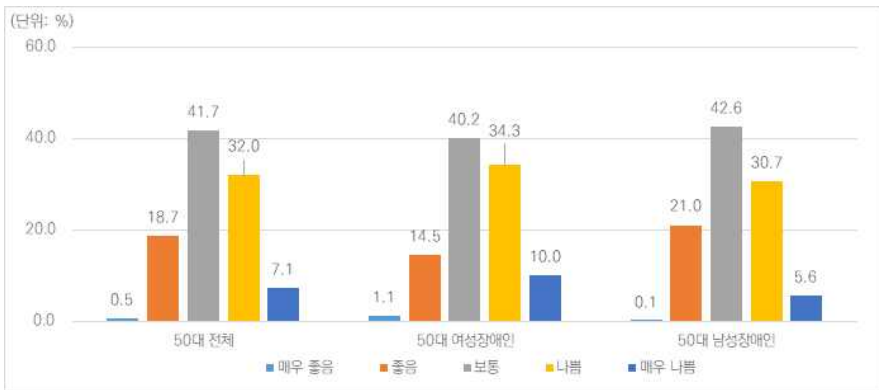
이 “매우 좋음”(0.1%)과 “좋음”(21.0%)이라고 응답한 비율 21.1%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2%로 남성장애인의 비율 42.6%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 34.3%,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 10.0%로 남성장애인이 “나쁨”(30.7%)과 “매우 나쁨”(5.6%)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5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8> 5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50대 전체	50대 여성장애인	50대 남성장애인
매우 좋음	0.5	1.1	0.1
좋음	18.7	14.5	21.0
보통	41.7	40.2	42.6
나쁨	32.0	34.3	30.7
매우 나쁨	7.1	10.0	5.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10] 5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⑥ 60대 주관적 건강상태

6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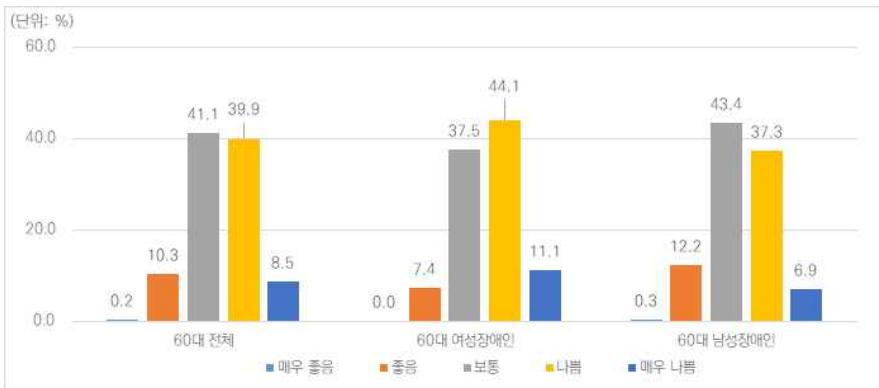
인 중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0%,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남성장애인이 “매우 좋음”(0.3%)과 “좋음”(12.2%)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5%로 남성장애인의 비율 43.4%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1%,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1%로 남성장애인이 “나쁨”(37.3%)과 “매우 나쁨”(6.9%)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즉, 6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좋지 못하다.

<표 III-2-9> 6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60대 전체	60대 여성장애인	60대 남성장애인
매우 좋음	0.2	0.0	0.3
좋음	10.3	7.4	12.2
보통	41.1	37.5	43.4
나쁨	39.9	44.1	37.3
매우 나쁨	8.5	11.1	6.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11] 60대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⑦ 70세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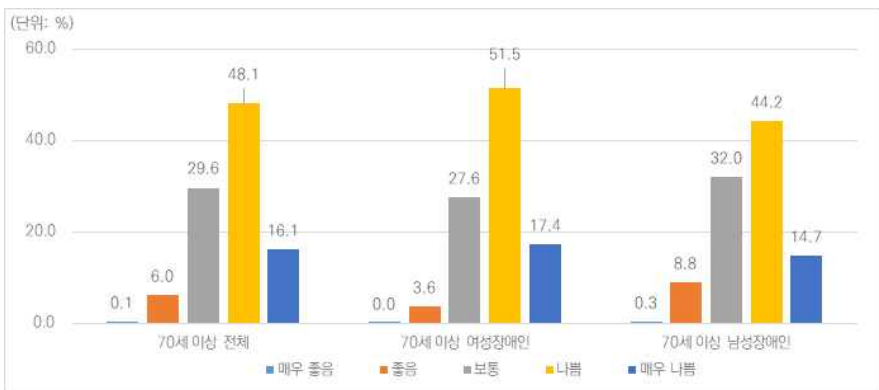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 장애인 중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0%,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남성장애인이 “매우 좋음”(0.3%)과 “좋음”(8.8%)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6%로 남성장애인의 비율 32.0%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5%,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4%로 남성장애인이 “나쁨”(44.2%)과 “매우 나쁨”(14.7%)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즉,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좋지 못하다.

<표 III-2-10>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70세 이상 전체	70세 이상 여성장애인	70세 이상 남성장애인
매우 좋음	0.1	0.0	0.3
좋음	6.0	3.6	8.8
보통	29.6	27.6	32.0
나쁨	48.1	51.5	44.2
매우 나쁨	16.1	17.4	14.7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12]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3) 여성장애인의 지속적 진료 여부

① 지속적 진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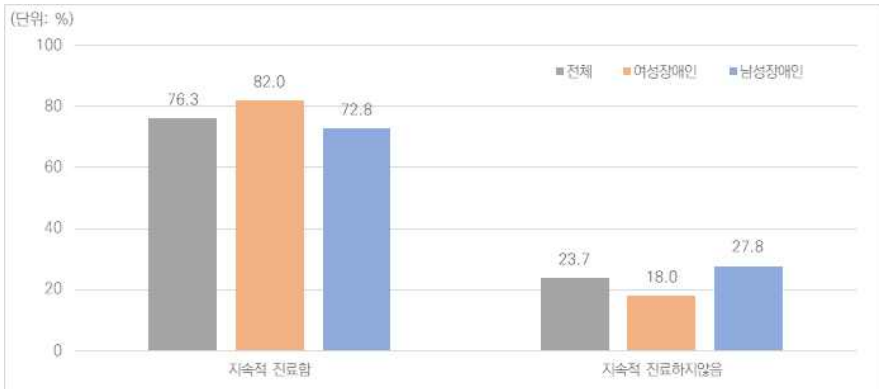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지속적 진료 비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장애인 중 “지속적 진료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2.0%로 남성장애인의 응답 비율 72.8%보다 9.2%p 높게 형성되어 있다.

<표 III-2-11> 여성장애인의 지속적 진료 비율(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지속적 진료함	76.3	82.0	72.8
지속적 진료하지않음	23.7	18.0	27.8
전체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13] 여성장애인의 지속적 진료 비율(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연령대별 지속적 진료 여부

여성장애인의 연령대별 지속적 진료 비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장애인 중 20세 미만이 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2.5%, 20대는 1.7%, 30대는 2.5%, 40대는 6.0%, 50대는 13.6%, 60대는 21.3%, 70세 이상은 52.4%로 형성되어 있다.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남성장애인의 지속적 진료 비율과 비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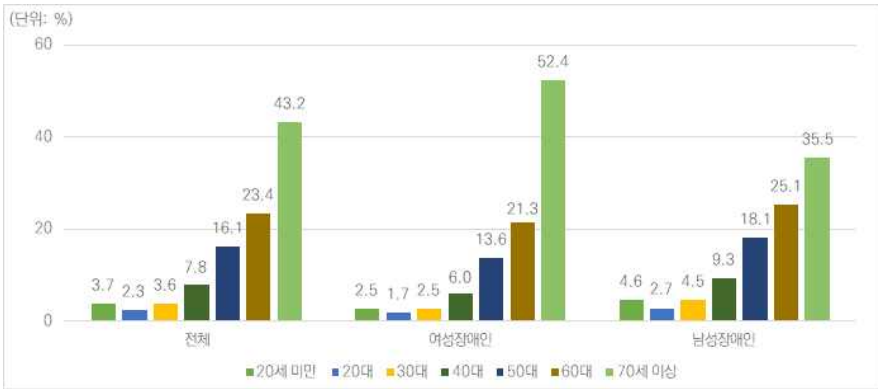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즉,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지속적 진료 비율은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더 높다.

<표 III-2-12> 연령대별 지속적 진료 비율(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세 미만	3.7	2.5	4.6
20대(20~29세)	2.3	1.7	2.7
30대(30~39세)	3.6	2.5	4.5
40대(40~49세)	7.8	6.0	9.3
50대(50~59세)	16.1	13.6	18.1
60대(60~69세)	23.4	21.3	25.1
70세 이상	43.2	52.4	35.5
전체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14] 연령대별 지속적 진료 비율(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의료시설 만족도

여성장애인의 의료시설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장애인 중 “매우 만족”(4.0%)과 “만족”(5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3%로 남성장애인이 “매우 만족”(4.3%)과 “만족”(51.6%)이라고 응답한 비율 55.9%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5%로 남성장애인의 비율 40.1%와 -0.6%p의 차이가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별로 만족 안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이며, “전혀 만족 안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3%이다.

<표 III-2-13> 여성장애인의 의료시설 만족도(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4.1	4.0	4.3
만족	52.3	53.3	51.6
보통	39.8	39.5	40.1
별로 만족 안함	3.4	3.0	3.7
전혀 만족 안함	0.3	0.3	0.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15] 여성장애인의 의료시설 만족도(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④ 의료기관 편의시설 만족도

여성장애인의 의료기관 편의시설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여성장애인 중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0%이다. 여성장애인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4%로 형성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중 “별로 만족 안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 “전혀 만족 안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4%에 해당한다. “보통” 이상 응답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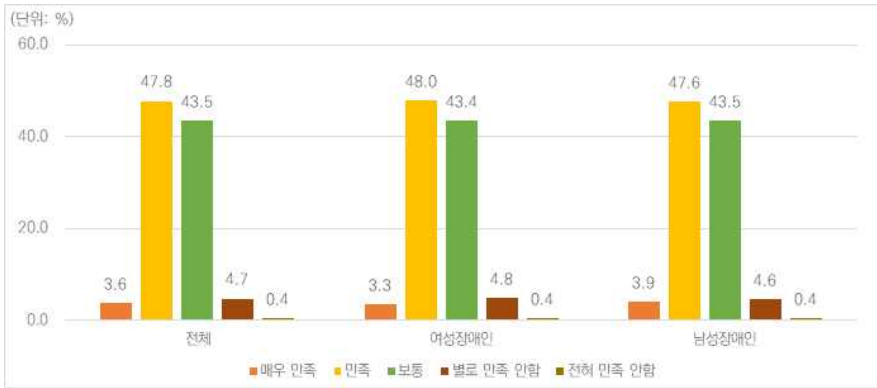
94.7%에 해당하며, “만족”이상 응답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51.3%에 해당한다.

<표 III-2-14> 여성장애인의 의료기관 편의시설 만족도(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3.6	3.3	3.9
만족	47.8	48.0	47.6
보통	43.5	43.4	43.5
별로 만족 안함	4.7	4.8	4.6
전혀 만족 안함	0.4	0.4	0.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16] 여성장애인의 의료기관 편의시설 만족도(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3) 여성장애인의 교육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대졸 이상 비율이 3.3%로 남성장애인 11.1%인 것과 비교하여 1/3 이하 수준에 불과하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남성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 학력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비율이 특히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해당 구간에서의 비율이 전체적인 여성장애인 최종학력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

(1)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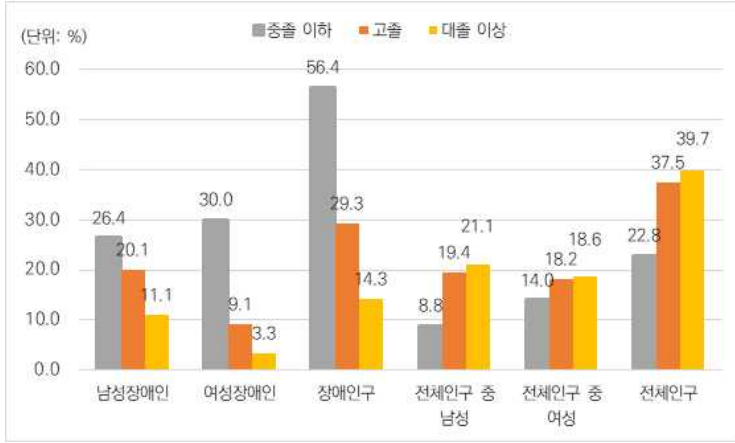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3%로 남성장애인 ‘대졸 이상’ 비율 11.1%와 비교하여 1/3 수준이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중졸 이하’ 비율은 30.0%로 남성장애인 26.4%보다 높은 수준이며, ‘고졸’ 비율은 9.1%로 남성장애인의 20.1%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전체 인구 중 남성과 여성의 ‘대졸 이상’ 비율이 각각 21.1%와 18.6%로 전체 인구 중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의 0.88배인데 반하여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의 0.30배로 상대적으로 성별 교육수준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다음 표와 그림과 같다.

<표 III-2-15>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단위: %)

구분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인구	전체인구 중 남성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졸 이하	26.4	30.0	56.4	8.8	14.0	22.8
고졸	20.1	9.1	29.3	19.4	18.2	37.5
대졸 이상	11.1	3.3	14.3	21.1	18.6	39.7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참조
2. 15세 이상 인구 기준



[그림 III-2-17]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1.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참조
- 2. 15세 이상 인구 기준

(2)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은 교육수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은 28.8%로 남성장애인 40.8%와 비교하여 -12.0%p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최종학력이 대학교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11.4%로 남성장애인의 21.2%와 비교하여 -9.8%p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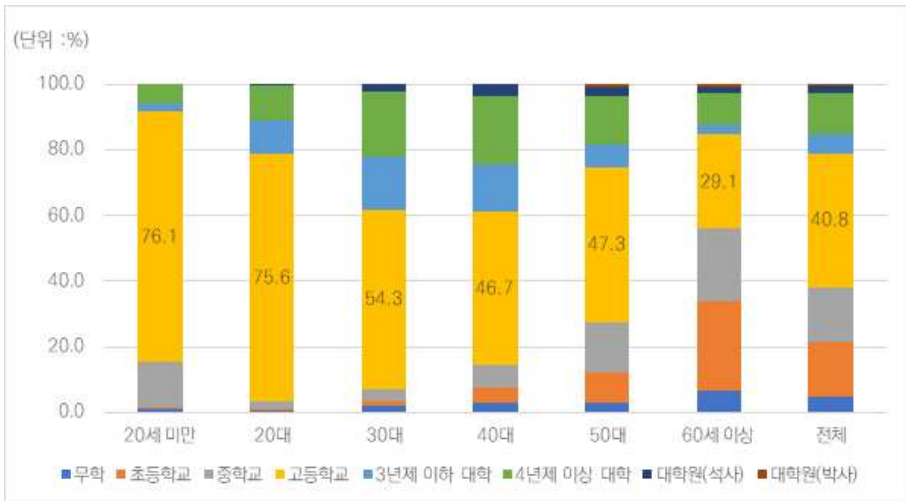
전체적인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놓고 보았을 때 남성장애인과 차이가 상당하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학력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비율이 특히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으나 50대와 20세 미만 구간을 제외한 그 외 구간에서는 대학교 이상의 비율이 중학교 이하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6>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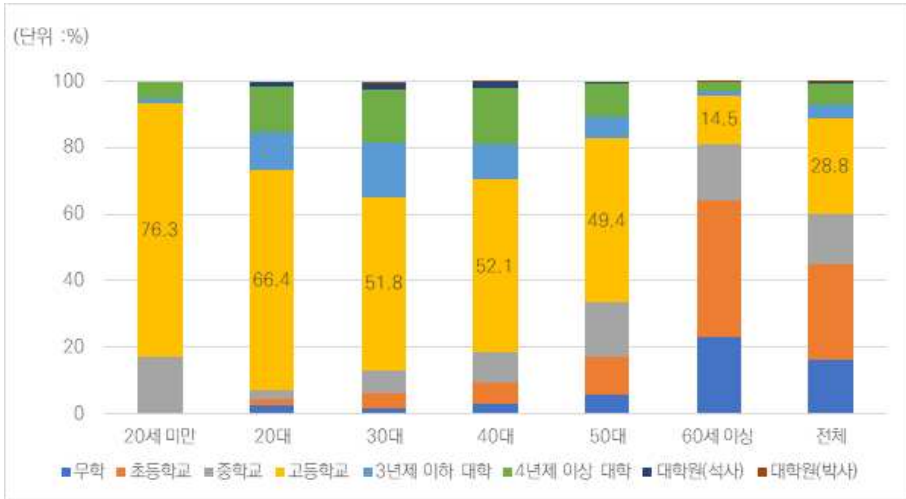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제 이하 대학	4년제 이상 대학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남성	20세 미만	1.1	0.5	13.8	76.1	2.7	5.9	-	-
	20대	0.6	0.4	2.2	75.6	10.3	10.3	0.4	0.2
	30대	1.9	1.3	4.0	54.3	16.2	20.0	2.3	-
	40대	2.9	4.8	7.0	46.7	14.3	20.9	3.3	0.2
	50대	2.8	9.4	15.2	47.3	6.6	15.2	2.7	0.8
	60세 이상	6.5	27.1	22.2	29.1	2.5	10.0	1.8	0.7
	전체	4.6	17.1	16.4	40.8	6.0	12.6	2.0	0.6
여성	20세 미만	-	-	17.1	76.3	1.3	5.3	-	-
	20대	2.4	1.9	2.8	66.4	11.4	13.7	1.4	-
	30대	1.8	4.4	7.0	51.8	16.7	15.8	1.8	0.9
	40대	3.0	6.5	8.8	52.1	10.5	17.0	1.8	0.3
	50대	5.6	11.5	16.3	49.4	6.6	9.7	0.9	-
	60세 이상	23.1	40.8	17.2	14.5	1.5	2.6	0.3	0.0
	전체	16.1	28.7	15.1	28.8	4.4	6.3	0.6	0.1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주: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



[그림 III-2-18] 남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주: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



[그림 III-2-19]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주: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이수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OECD에서 제시한 25~64세 사이의 한국의 고등교육이수율 51.7%에 전연령대가 미달하였으며, 통계상 동일구간에 해당하는 30대부터 50대사이의 고등교육이수율도 여성장애인 30대는 -16.5%p, 40대는 -22.1%p, 50대는 -34.5%p 미달한다. 그리고 남성장애인 30대는 -13.2%p, 40대는 -13.0%p, 50대는 -26.4%p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간의 고등교육이수율 수준에서 여성장애인 20대는 남성장애인보다 5.3%p가 높지만 30대 -3.3%p, 40대 -9.1%p, 50대 -.81%p, 60세 이상 -10.6%p 여성장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7>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이수율(2021년 기준)

(단위: %)

구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여성	6.6	26.5	35.2	29.6	17.2	4.4
남성	8.6	21.2	38.5	38.7	25.3	15.0
전체인구(25~64세)	51.7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국가지표체계(2022). 고등교육이수율(OECD(2022)에서 재인용)

주 1. 남성과 여성 고등교육이수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3년제 이하 대학' 이상 비율들을 합산함

2. 전체인구 고등교육이수율은 국가지표체계에서 제시한 2021년 고등교육이수율 참조(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의 비율)



[그림 III-2-20]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이수율(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국가지표체계(2022). 고등교육이수율(OECD(2022)에서 재인용)

주 1. 남성과 여성 고등교육이수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3년제 이하 대학' 이상 비율들을 합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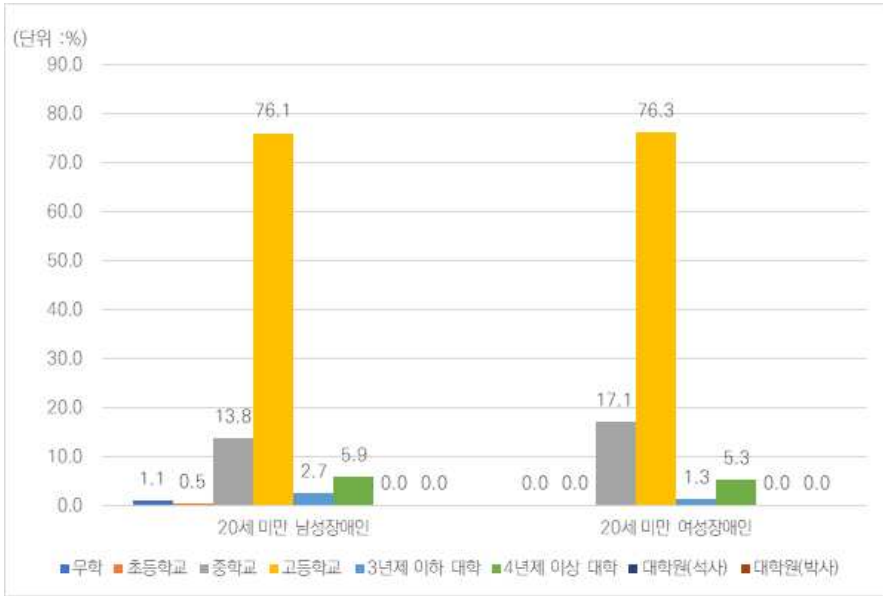
2. 전체인구 고등교육이수율은 국가지표체계에서 제시한 2021년 고등교육이수율 참조(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의 비율)

①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20세 미만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여성장애인은 76.3%로 남성장애인 76.1%와 비교하여 0.2%p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교 이상 비율도 여성장애인 6.6%, 남성장애인 8.5%로 -1.9%p의 차이가 나타나



전체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나타난 -9.8%p의 수치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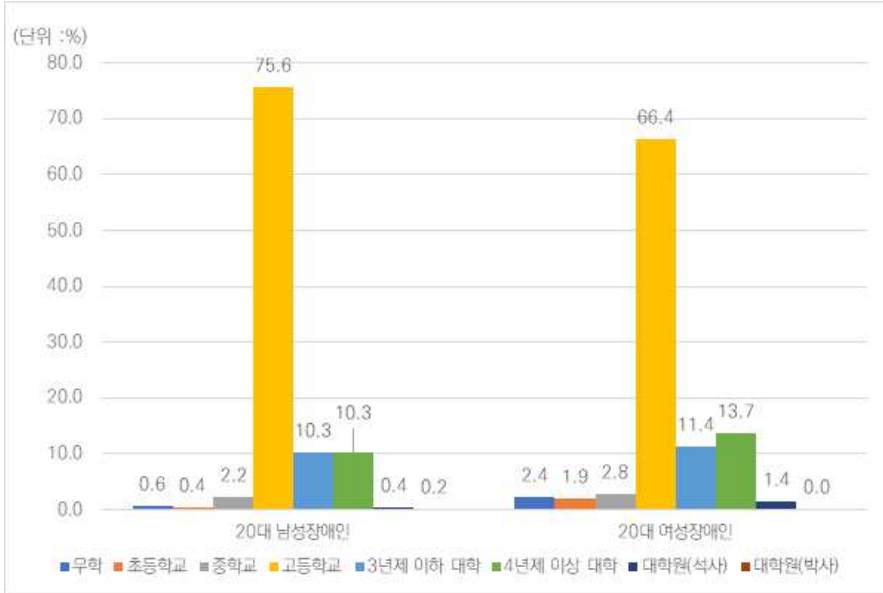


[그림 III-2-21]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주: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

② 2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20대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여성장애인은 66.4%로 남성장애인 75.6%와 비교하여 -9.3%p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학교 이상 비율에서는 여성장애인 26.5%, 남성장애인 21.2%로 여성장애인 비율이 5.4%p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장애인 96.8%, 여성장애인 92.9%로 -3.9%p 여성장애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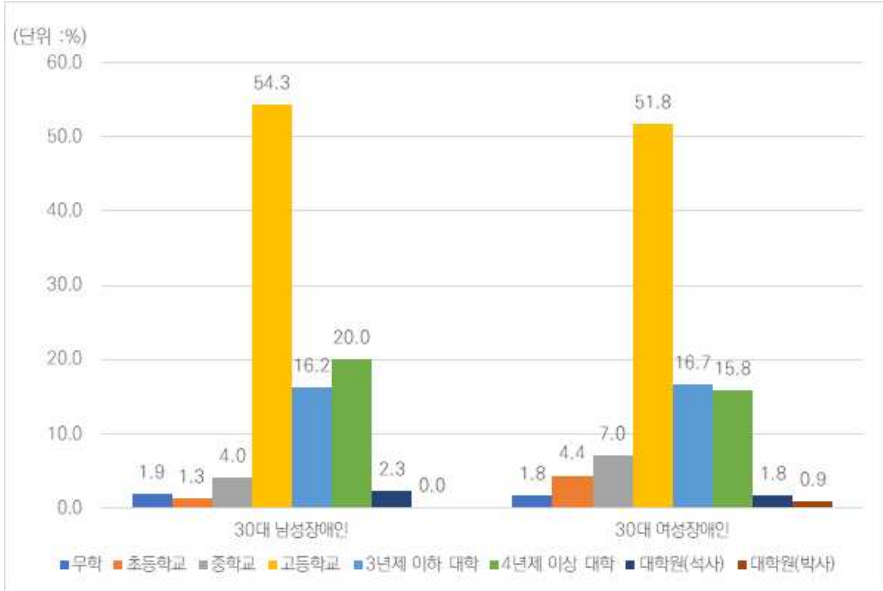


[그림 III-2-22] 2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3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30대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여성장애인 비율은 51.8%, 남성장애인 비율은 54.3%이며, 3년제 이하 대학 비율은 여성장애인이 16.7%, 남성장애인이 16.2%이다. 4년제 이상 대학 비율은 남성장애인 비율이 20.0%, 여성장애인 비율이 15.8%로 남성장애인 비율이 4.2%p 높다. 대학원 이상 비율을 보면 여성장애인 비율이 2.6%, 남성장애인 비율이 2.3%로 여성장애인 비율이 0.3%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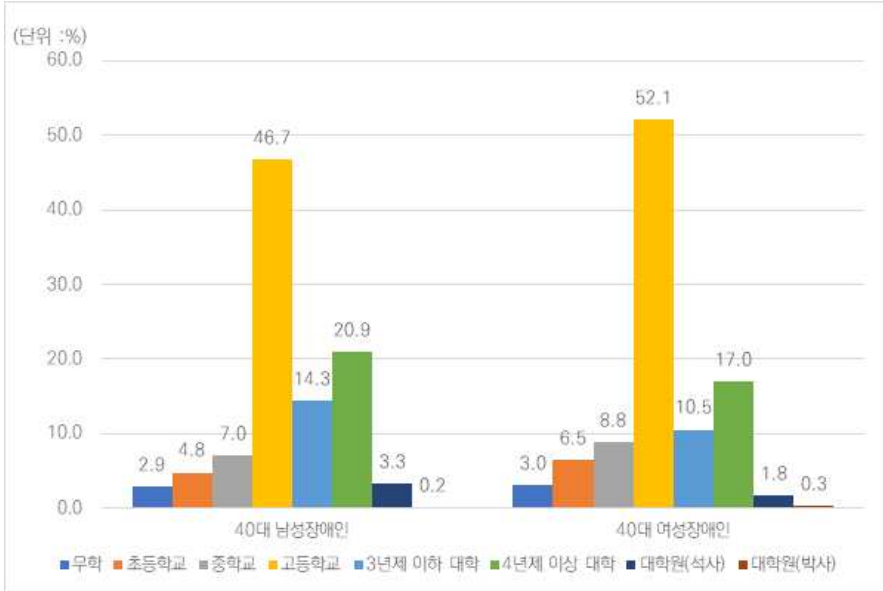


[그림 III-2-23] 3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④ 4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40대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여성장애인 비율은 52.1%, 남성장애인 비율은 46.7%로 여성장애인 비율이 5.4%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3년제 이하 대학 비율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은 10.5%, 남성장애인 비율은 14.3%로 여성장애인 비율이 -3.8%p 낮게 나타나며, 4년제 이상 대학 비율에서도 여성장애인 비율은 17.0%, 남성장애인 비율은 17.0%로 여성장애인 비율이 -3.9%p 낮게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비율에서도 여성장애인 비율이 2.1%, 남성장애인 비율이 3.5%로 여성장애인 비율이 -1.4% 낮게 나타났다. 다시말해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높았으나 대학교 이상으로 볼 때 남성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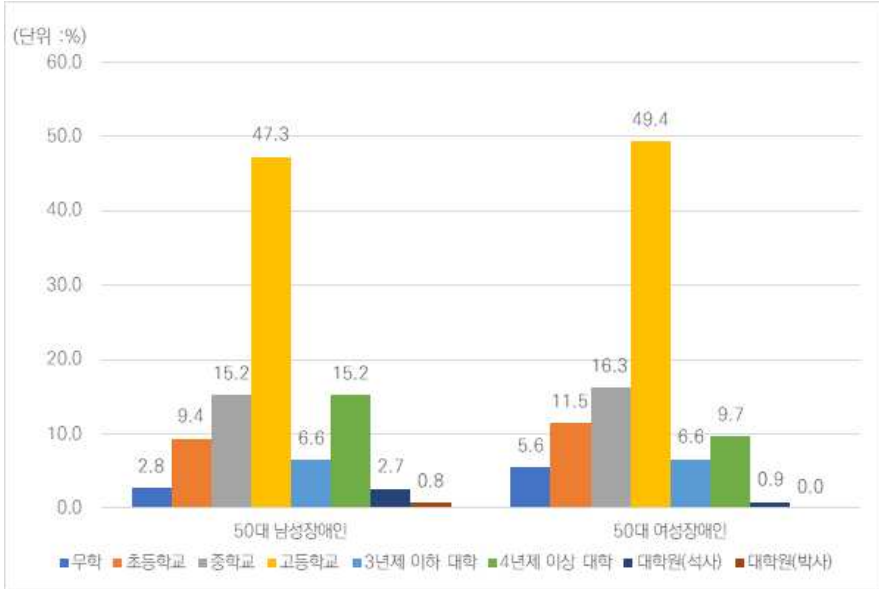


[그림 III-2-24] 4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⑤ 5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50대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여성장애인 비율은 49.4%, 남성장애인 비율은 47.3%이며, 3년제 이하 대학교 비율은 여성장애인이 6.6%, 남성장애인이 6.6%로 나타났다. 4년제 이상 대학교 비율에서 여성장애인은 9.7%, 남성장애인은 15.2%로 여성장애인 비율이 남성장애인 비율보다 -5.5%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 비율에서 여성장애인은 0.9%, 남성장애인은 3.5%로 여성장애인 비율이 남성장애인 비율보다 -2.6% 낮게 나타났다. 50대 장애인구는 4년제 이상 대학교 비율에서 여성장애인 비율보다 남성장애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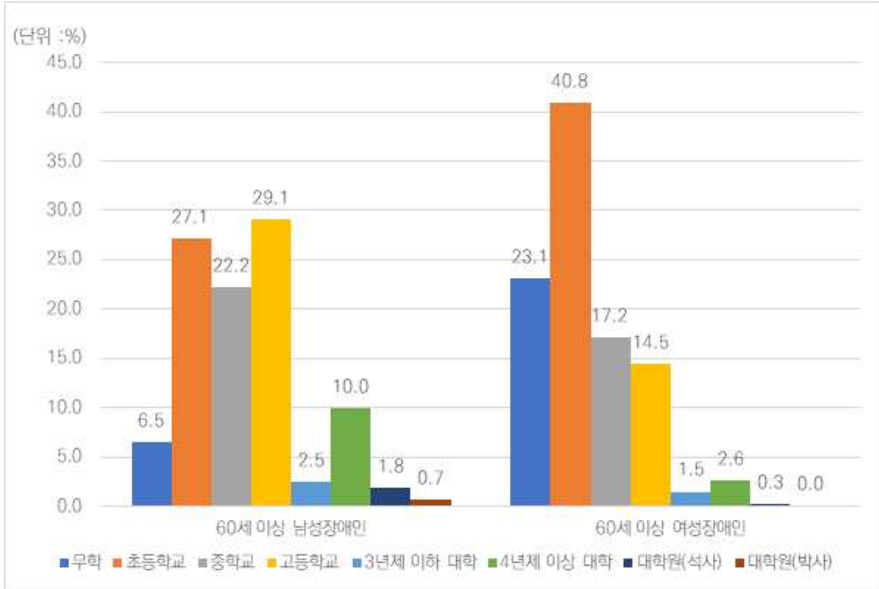


[그림 III-2-25] 50대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⑥ 6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60세 이상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최종학력이 무학인 비율이 23.4%, 중학교인 비율이 40.8%, 고등학교인 비율이 17.2%, 고등학교인 비율이 14.5%이며, 대학교 이상인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남성장애인의 경우 최종학력이 무학인 비율이 6.5%, 초등학교인 비율이 27.1%, 중학교인 비율이 22.2%, 고등학교인 비율이 29.1%이며, 대학교 이상 비율이 15.0%로 타 연령대에 비교하여 무학·초등학교·중학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무학·초등학교·중학교 비율의 합은 81.1%로 남성장애인 무학·초등학교·중학교 비율의 합 55.8%보다 25.3%p가 높다.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무학·초등학교·중학교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중학교의 비율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26] 6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4) 여성장애인의 혼인 및 출산

(1)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배우자 있음”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39.1%로 남성장애인의 비율 60.4%보다 -21.3%p가 낮고 전체인구 중 여성이 “배우자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55.2%보다 -16.1%p가 낮다. 하지만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중 여성장애인이 “사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남성장애인의 “사별” 비율 6.6%와 전체인구의 “사별” 비율 7.2%보다 30%p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2-18>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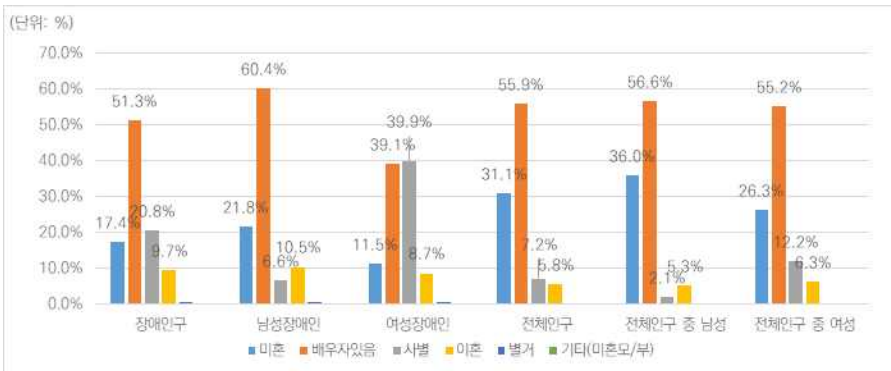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장애인구	남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	전체인구	전체인구 중 남성	전체인구 중 여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17.4%	21.8%	11.5%	31.1%	36.0%	26.3%
배우자있음	51.3%	60.4%	39.1%	55.9%	56.6%	55.2%
사별	20.8%	6.6%	39.9%	7.2%	2.1%	12.2%
이혼	9.7%	10.5%	8.7%	5.8%	5.3%	6.3%
별거	0.7%	0.7%	0.7%	-	-	-
기타(미혼모/부)	0.1%	0.0%	0.2%	-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장애인구는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18세 이상 기준임

2. 전체인구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5세 이상 기준임



[그림 III-2-27]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전체인구는 인구총조사 2020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15세 이상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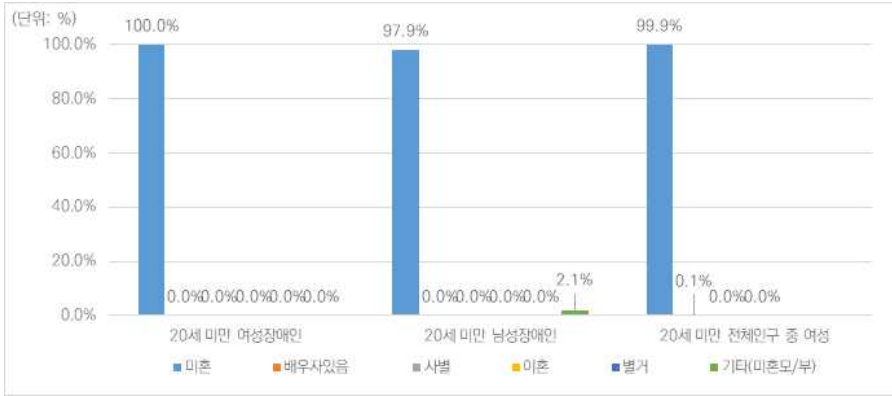
2. 장애인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만 18세 이상임

(2) 연령별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

①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다음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은 “미혼”이라 응답한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도 “미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7.9%이며, 전체인구 중 여성이 ”미혼“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99.9%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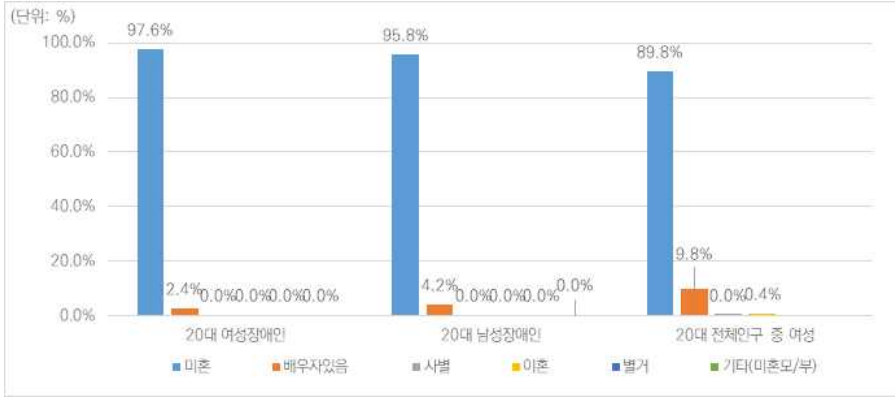


[그림 III-2-28]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전체인구는 인구총조사 2020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15세 이상 기준임
 2. 장애인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만 18세 이상임
 3.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2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

2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다음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20대 여성장애인은 “미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7.6%이며, “배우자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도 “미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5.8%이며, “배우자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여성이 “미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9.8%이며, “배우자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8%, “이혼” 응답 비율도 0.4%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2.1%)는 남성장애인 4.2%, 전체인구 중 여성 9.8%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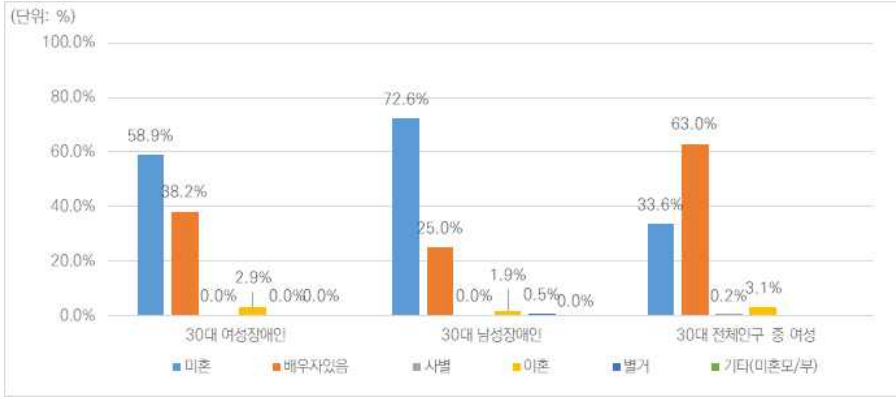


[그림 III-2-29] 2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전체인구는 인구총조사 2020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15세 이상 기준임
 2. 장애인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만 18세 이상임
 3.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3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

3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다음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30대 여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58.9%,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38.2%, “이혼” 응답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72.6%,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25.0%, “이혼” 응답 비율은 1.9%, “별거” 응답 비율은 0.5%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여성이 “미혼” 응답 비율은 33.6%,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63.0%, “사별” 응답 비율은 0.2%, “이혼” 응답 비율도 3.1%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38.2%)는 남성장애인 비율(25.0%)보다 높으나, 전체인구 중 여성이 응답한 비율(63.0%)과 비교하여 -24.8%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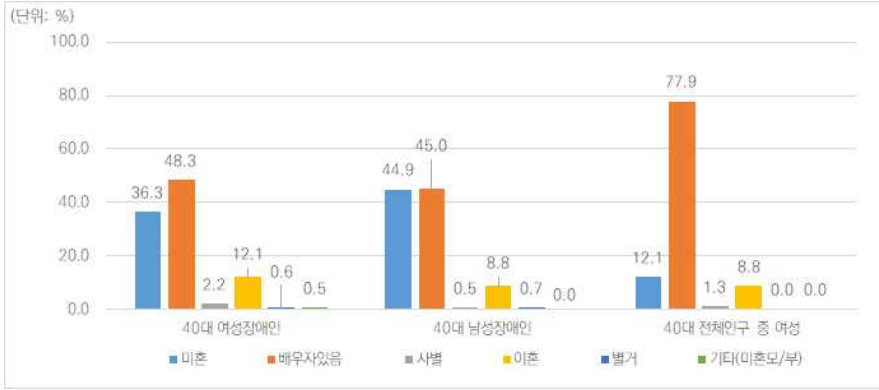


[그림 III-2-30] 3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전체인구는 인구총조사 2020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15세 이상 기준임
 2. 장애인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만 18세 이상임
 3.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④ 4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

4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다음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40대 여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36.3%,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48.3%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44.9%,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45.0%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여성이 “미혼” 응답 비율은 12.1%,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77.9%로 나타났다. 40대 여성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48.3%)는 남성장애인 비율(45.0%)보다 높으나, 전체인구 중 여성이 응답한 비율(77.9%)과 비교하여 -29.6%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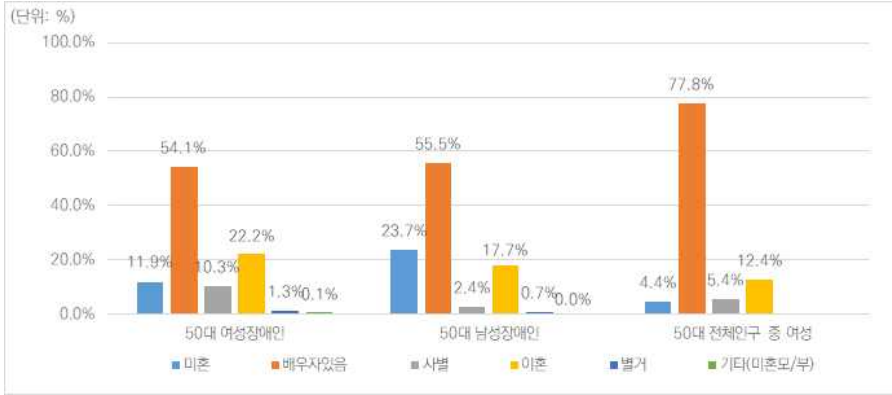


[그림 III-2-31] 4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1. 전체인구는 인구총조사 2020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15세 이상 기준임
 2. 장애인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만 18세 이상임
 3.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⑤ 5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

5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다음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50대 여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11.9%,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54.1%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23.7%,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55.5%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여성이 “미혼” 응답 비율은 4.4%,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77.8%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54.1%)는 남성장애인 응답 비율(55.5%)과 전체인구 중 여성이 응답한 비율(77.8%)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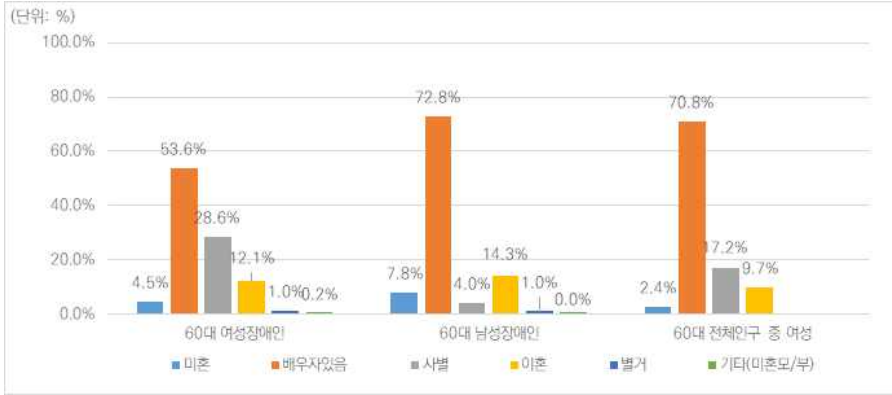


[그림 III-2-32] 5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전체인구는 인구총조사 2020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15세 이상 기준임
 2. 장애인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만 18세 이상임
 3.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⑥ 6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

6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다음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60대 여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4.5%,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53.6%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별” 응답 비율이 28.6%, “이혼” 응답 비율이 12.1%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7.8%,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72.8%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별” 응답 비율이 4.0%, “이혼” 응답 비율이 14.3%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여성이 “미혼” 응답 비율은 2.4%,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70.8%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별” 응답 비율은 17.2%, “이혼” 응답 비율은 9.7%로 나타났다. 60대 여성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53.6%)는 남성장애인 응답 비율(72.8%)과 전체인구 중 여성이 응답한 비율(70.8%)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60대 여성장애인 중 “사별”이라고 응답한 비율(28.6%)이 남성장애인 응답 비율(4.0%)과 전체인구 중 여성 응답 비율(17.2%)과 비교하여 남성장애인보다 24.6%p, 전체인구 중 여성 응답 비율보다 11.4%p 높은 수준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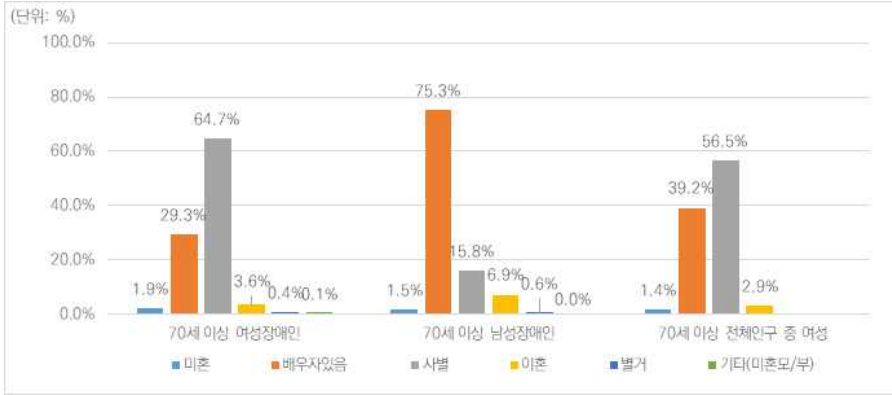
[그림 III-2-33] 60대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1. 전체인구는 인구총조사 2020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15세 이상 기준임
2. 장애인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만 18세 이상임
3.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⑦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를 다음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1.9%,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29.3%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별” 응답 비율이 64.7%, “이혼” 응답 비율이 3.6%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미혼” 응답 비율은 1.5%,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75.3%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별” 응답 비율이 15.8%, “이혼” 응답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여성이 “미혼” 응답 비율은 1.4%, “배우자 있음” 응답 비율은 3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별” 응답 비율은 56.5%, “이혼” 응답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여성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29.3%)는 남성장애인 응답 비율(75.3%)과 전체인구 중 여성이 응답한 비율(39.2%)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70세 이상 여성장애인 중 “사별”이라고 응답한 비율(64.7%)이 남성장애인 응답 비율(15.8%)보다 48.9%p 더 높은 수준이며, 전체인구 중 여성 응답 비율(56.5%)보다 8.2%p 더 높은 수준이다.



[그림 III-2-34]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혼인상태(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전체인구는 인구총조사 2020년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15세 이상 기준임
 2. 장애인구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만 18세 이상임
 3.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3) 여성장애인의 출산

① 임신 시 출산 여부

여성장애인의 임신 시 출산 비율을 다음 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이 마지막으로 임신하였을 때 출산한 비율은 91.3%, 출산을 하지 않은 비율은 8.7%로 나타났다.

<표 III-2-19> 마지막 임신 시 출산여부(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출산함	91.3
출산하지 않음	8.7
전체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출산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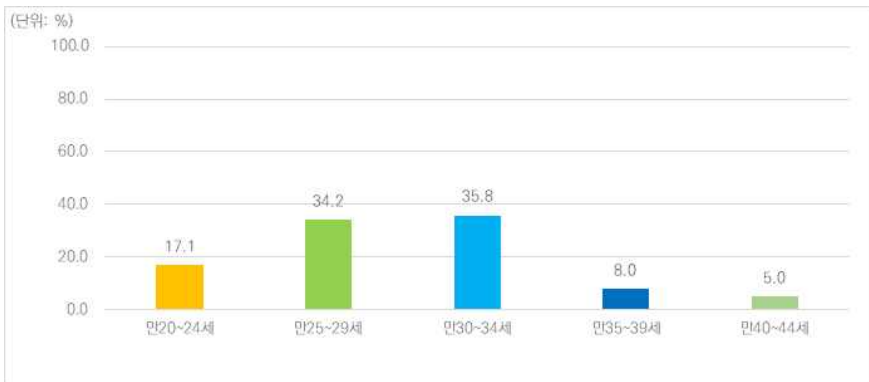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출산 연령대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보면, “만20~24세”가 17.1%, “만25~29세”가 34.2%, “만30~34세”가 35.8%, “만35~39세”가 8.0%, “만40~44세”가 5.0%로 나타났다. ‘2021년 출생 통계’²⁾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인구 중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이며, 첫째아이 출산 연령은 평균 32.6세, 둘째아이 출산 연령은 평균 34.1세, 셋째아이 출산 연령은 평균 35.4세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과의 비교 분석은 자료가 상이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표 III-2-20> 마지막 임신 시 출산 연령대(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만20~24세	17.1
만25~29세	34.2
만30~34세	35.8
만35~39세	8.0
만40~44세	5.0
전체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35] 마지막 임신 시 출산 연령대(2020년 기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임신 시 어려웠던 점

2) 통계청이 2022년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2021년 출생 통계’를 참고하였음

여성장애인의 임신 시 어려운 점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악화” 응답 비율이 12.6%, “자녀양육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응답 비율이 12.3%,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응답 비율이 11.8%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상위 이유 3가지는 건강, 양육, 출산과정의 문제로 건강 및 출산과정의 문제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21> 임신 시 어려운 점(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5.9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3.9
의료진의 장애이해 및 인식부족	2.3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11.8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	6.8
자녀양육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12.3
본인의 건강악화	12.6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1.4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4.6
주위의 시선때문에	4
임신/출산 관련 정보부족	2.6
어려움 없음	31.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36] 임신 시 어려운 점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④ 임신 및 출산 관련 서비스 요구

여성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출산비용 지원” 응답 비율이 10.2%,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응답 비율이 8.8%,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응답 비율이 7.1%로 나타났다.

<표 III-2-22>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임신·출산 관련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8.8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서비스	2.2
출산비용 지원	10.2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7.1
산후조리 서비스	5.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소계	33.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37]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임신·출산 관련 비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5) 여성장애인의 정보이용

(1) 정보통신기기 사용

①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84.8%이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성장애인 비율은 18.2%,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성장애인 비율은 24.4%로 남성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남성장애인 휴대폰/스마트폰 사용 비율인 89.7%와 비교하여 여성장애인은 -4.9%p 사용비율이 낮으며, 남성장애인 컴퓨터 사용 비율인 38.1%와 비교하여 여성장애인 사용비율은 -19.9%p 낮으며, 남성장애인 인터넷 사용 비율 45.3%와 비교하여 여성장애인 사용비율은 -20.9%p 낮다.

<표 III-2-23> 성별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휴대폰/스마트폰 사용	87.6	84.8	89.7
컴퓨터 사용	29.7	18.2	38.1
인터넷 사용	36.5	24.4	45.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38] 성별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정보통신기기 사용하지 않는 이유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이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필요없어서’ 58.2%, ‘복잡하고 어려워서’ 11.7%,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 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경우도 ‘필요없어서’ 47.8%, ‘복잡하고 어려워서’ 14.2%,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 12.2%로 상위 3가지 이유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I-2-24> 성별 휴대폰/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비용부담(구입비, 이용요금)	5.9	6.8	4.9
기기가 없어서	6.6	6.4	6.8
필요없어서	53.2	58.2	47.8
복잡하고 어려워서	12.9	11.7	14.2
교육 받을 곳이 없어서	0.3	0.1	0.4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6.2	4.3	8.3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	10.4	8.8	12.2
기타	4.6	3.8	5.4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39] 성별 휴대폰/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이유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필요없어서’ 58.7%, ‘복잡하고 어려워서’ 20.3%,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 10.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상위 3가지 이유에 해당한다. 남성장애인의 경우도 ‘필요없어서’ 54.3%, ‘복잡하고 어려워서’ 23.6%,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 8.3% 순으로 나타나서 상위 3가지 이유는 여성장애인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I-2-25> 성별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비용부담(구입비, 이용요금)	3.8	2.2	5.3
기기가 없어서	4.3	4.3	4.2
필요없어서	56.5	58.7	54.3
복잡하고 어려워서	22.0	20.3	23.6
교육 받을 곳이 없어서	0.8	0.8	0.7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2.1	1.9	2.3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	9.3	10.4	8.3
기타	1.2	1.2	1.3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40] 성별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이유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필요없어서”가 59.2%,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20.2%,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가 10.9%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상위 3가지에 해당한다.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필요없어서”가 53.9%,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24.5%,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가 9.6%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상위 3가지에 해당하며 항목은 여성장애인과 동일하다.

<표 III-2-26> 성별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비용부담(구입비, 이용요금)	3.7	2.5	4.9
기기가 없어서	3.7	3.9	3.4
필요없어서	56.6	59.2	53.9
복잡하고 어려워서	22.3	20.2	24.5
교육 받을 곳이 없어서	0.7	0.8	0.6
사용관리를 하지 못해서	1.7	1.5	1.8
어디에 활용할지 몰라서	10.3	10.9	9.6
기타	1.1	0.9	1.3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41] 성별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이유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정보 획득 및 경로

① 정보 획득 어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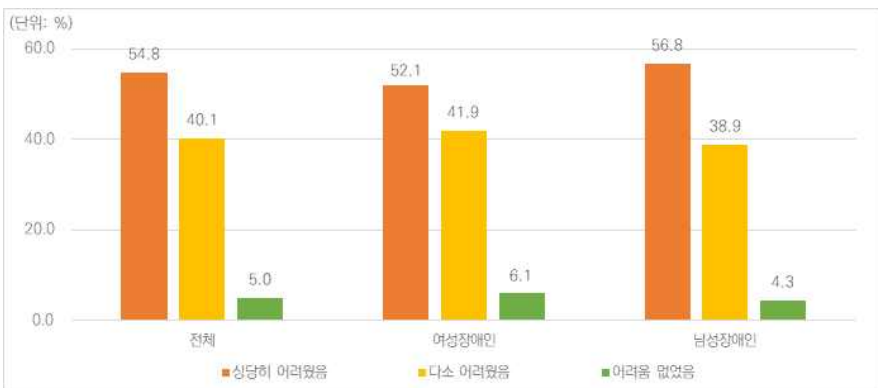
정보 획득 어려움 정도(코로나 19 방역 관련)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상당히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1%, “다소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 “어려움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로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약 94.0%에 해당하였다.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8%, “다소 어려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9%, “어려움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95.7%에 해당하였다. 여성장애인(94.0%)과 남성장애인(95.7%) 모두 정보획득에 있어서 90% 이상의 비율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7> 성별 정보획득 어려움 정도(코로나 19 방역 관련)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상당히 어려웠음	54.8	52.1	56.8
다소 어려웠음	40.1	41.9	38.9
어려움 없었음	5.0	6.1	4.3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음



[그림 III-2-42] 성별 정보획득 어려움 정도(코로나 19 방역 관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정보 획득 경로 - 건강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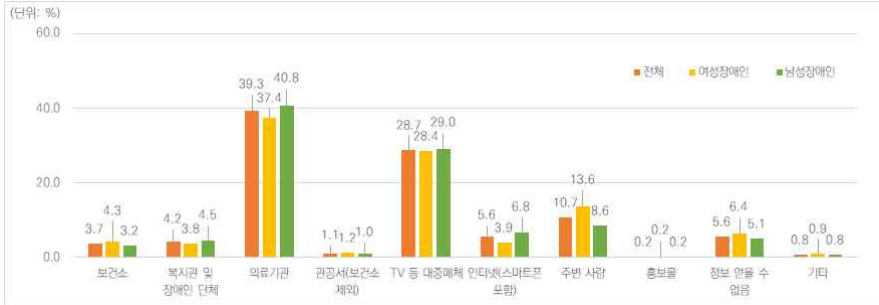
정보 획득 경로(건강 관련)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획득 경로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7.4%, 남성장애인 비율은 40.8%이며, “TV 등 대중매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8.4%, 남성장애인 비율은 29.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변 사람”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3.6%, 남성장애인 비율은 8.6%이며,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 6.4%, 남성장애인 비율 5.1%로 나타났다.

<표 III-2-28> 성별 건강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보건소	3.7	4.3	3.2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4.2	3.8	4.5
의료기관	39.3	37.4	40.8
관공서(보건소 제외)	1.1	1.2	1.0
TV 등 대중매체	28.7	28.4	29.0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5.6	3.9	6.8
주변 사람	10.7	13.6	8.6
홍보물	0.2	0.2	0.2
정보 얻을 수 없음	5.6	6.4	5.1
기타	0.8	0.9	0.8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43] 성별 건강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정보 획득 경로 - 예술행사

정보 획득 경로(예술행사)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획득 경로를 살펴보면, “TV/라디오”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61.3%, 남성장애인 비율은 56.6%이며, “인터넷(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4.9%, 남성장애인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변 사람”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6.0%, 남성장애인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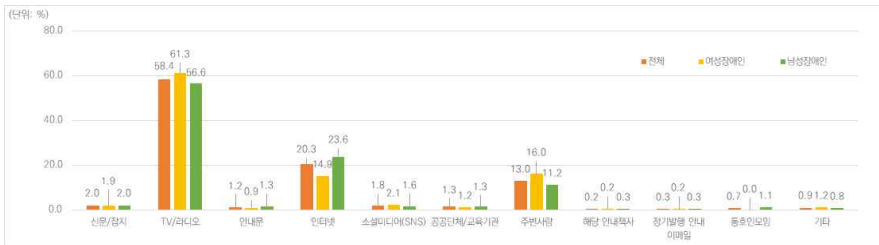


<표 III-2-29> 성별 예술행사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신문/잡지	2.0	1.9	2.0
TV/라디오	58.4	61.3	56.6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광고 등)	1.2	0.9	1.3
인터넷(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20.3	14.9	23.6
소셜미디어(SNS)	1.8	2.1	1.6
공공단체/교육기관	1.3	1.2	1.3
주변사람	13.0	16.0	11.2
해당 안내책자	0.2	0.2	0.3
정기발행 안내 이메일 및 뉴스레터	0.3	0.2	0.3
동호인모임	0.7	0.0	1.1
기타	0.9	1.2	0.8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44] 성별 예술행사 정보 획득 경로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④ 정보 획득 경로 - 장애복지사업

정보 획득 경로(장애복지사업)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획득 경로를 살펴보면, “정보매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1.2%, 남성장애인 비율은 43.4%이며, “친척/친구/이웃”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3.8%, 남성장애인 비율은 2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7.0%, 남성장애인 비율은 18.0%이며,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1.4%, 남성장애인 비율은 9.4%로 나타났다.

<표 III-2-30> 성별 장애인 복지사업 획득 경로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정보매체	38.2	31.2	43.4
친척/친구/이웃	26.6	33.8	21.3
장애인 동료	1.3	1.3	1.3
행정기관	17.0	15.7	18.0
사회복지관련 기관	10.2	11.4	9.4
장애인단체	1.4	1.2	1.5
종교기관	0.1	0.2	0.1
교육기관	0.2	0.2	0.2
복지관련 정보지	1.3	1.4	1.3
기타	3.6	3.7	3.5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45] 성별 장애인 복지사업 획득 경로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6) 여성장애인의 이동

(1) 여성장애인의 외부활동

① 외부 활동 불편 정도

외부 활동 불편 정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매우 불편함”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8.5%, 남성장애인 비율은 10.3%이며, “약간 불편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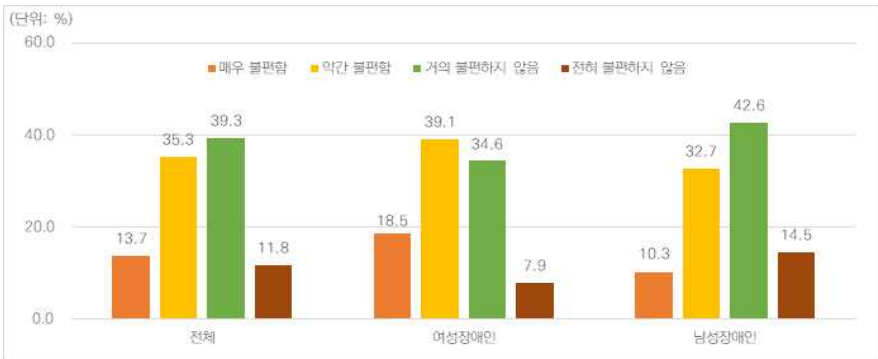
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9.1%, 남성장애인 비율은 32.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의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4.6%, 남성장애인 비율은 42.6%이며, “전혀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7.9%, 남성장애인 비율은 14.5%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외부 활동 시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남성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1> 성별 외부 활동 불편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불편함	13.7	18.5	10.3
약간 불편함	35.3	39.1	32.7
거의 불편하지 않음	39.3	34.6	42.6
전혀 불편하지 않음	11.8	7.9	14.5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46] 성별 외부 활동 불편 정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이유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이유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40.6%, 남성장애인 비율은 40.9%이며,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2.9%, 남성장애인 비율은 26.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6.4%, 남성장애인 비율은 10.7%이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

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7.0%, 남성장애인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이유에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부족”과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를 전체 장애인의 70%이상이 응답하였다.

<표 III-2-32> 성별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부족	40.8	40.6	40.9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29.6	32.9	26.4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8.6	6.4	10.7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8.1	7.0	9.1
기타	13.0	13.1	12.9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47] 성별 외부 활동 시 불편한 이유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여성장애인의 이동수단

① 주요 이동수단

주요 이동수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비율을 살펴보면, “자가용”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0.6%, 남성장애인 비율은 37.9%이며, “일반버스”라



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9.0%, 남성장애인 비율은 19.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6.0%, 남성장애인 비율은 19.1%이며, “지하철전철”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7.3%, 남성장애인 비율은 8.1%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남성장애인은 “자가용”(37.9%)을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일반버스”(29.0%), “도보”(26.0%), “자가용”(20.6%)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 전철은 전체 응답 비율이 7.8%로 나타나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2-33> 성별 주요 이동수단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일반버스	23.4	29.0	19.5
일반택시	4.9	6.6	3.7
지하철전철	7.8	7.3	8.1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3.4	3.6	3.3
복지관버스	0.5	0.5	0.4
자가용	30.8	20.6	37.9
셔틀형 복지버스	0.3	0.2	0.3
통학/통근버스	0.9	0.5	1.1
자전거, 오토바이	2.3	0.6	3.6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2.3	3.1	1.7
도보	22.0	26.0	19.1
기타	1.6	1.9	1.3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48] 성별 주요 이동수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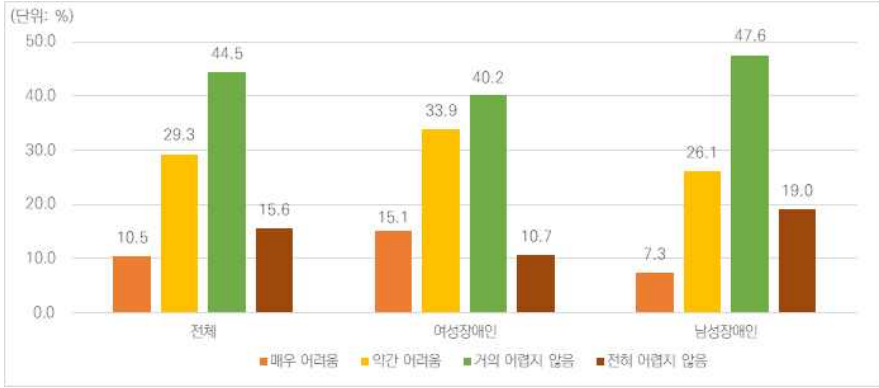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매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5.1%, 남성장애인 비율은 7.3%이며, “약간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33.9%, 남성장애인 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의 어렵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40.2%, 남성장애인 비율은 47.6%이며, “전혀 어렵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0.7%, 남성장애인 비율은 19.0%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남성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4> 성별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어려움	10.5	15.1	7.3
약간 어려움	29.3	33.9	26.1
거의 어렵지 않음	44.5	40.2	47.6
전혀 어렵지 않음	15.6	10.7	19.0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49] 성별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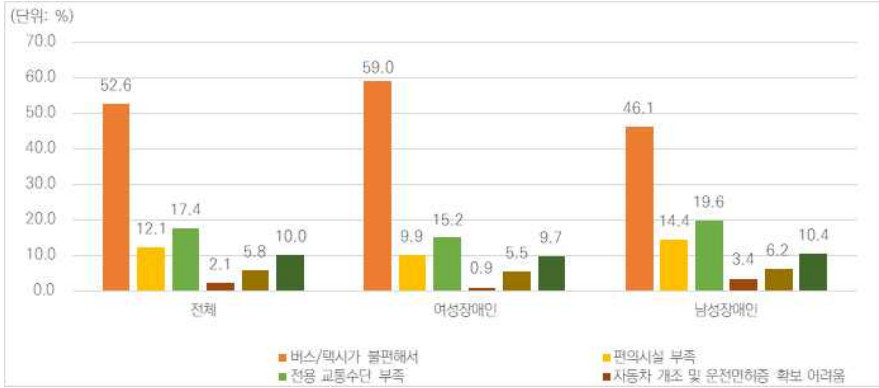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비율을 살펴보면, “버스/택시가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59.0%, 남성장애인 비율은 46.1%이며, “전용 교통수단 부족”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15.2%, 남성장애인 비율은 19.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9.9%, 남성장애인 비율은 14.1%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버스/택시가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 편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2-35> 성별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52.6	59.0	46.1
편의시설 부족	12.1	9.9	14.4
전용 교통수단 부족	17.4	15.2	19.6
자동차 개조 및 운전면허증 확보 어려움	2.1	0.9	3.4
승차거부 및 심리적 불편함	5.8	5.5	6.2
기타	10.0	9.7	10.4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2-50] 성별 이동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④ 여성장애인의 이동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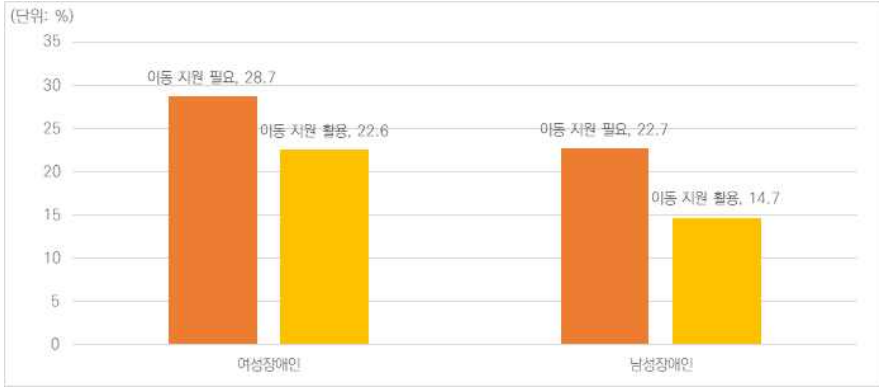
이동 지원 및 활용에 대하여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동 지원 필요”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8.7%, 남성장애인 비율은 22.7%이며, “이동 지원 활용”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2.6%, 남성장애인 비율은 14.7%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이동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활용 역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6> 여성장애인의 이동 지원 및 활용(2021년 기준)

(단위: %)

구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이동 지원 필요	28.7	22.7
이동 지원 활용	22.6	14.7

출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그림 III-2-51] 여성장애인의 이동 지원 및 활용(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3.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현황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성된 영역 중 사회적 참여 영역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참여의 영역을 구성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ICF³⁾를 참고하여 구성된 ‘대인관계’, ‘사회경제생활’, ‘가정생활’, ‘의사소통’, ‘이동’, ‘시민생활’, ‘총체적 건강’ 등의 7개 영역을 주로 활용하였다(김경미 외, 2010; 세계보건기구, 2016; 김도영 외,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사회참여 영역 분류를 참고하여 경제활동 현황에서 살펴본 영역을 제외한 대인관계, 사회활동, 가족관계, 정치활동 등의 영역을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장애인의 대인관계

(1) 여성장애인 대인관계 만족

대인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8.5%, ‘약간 만족’ 응답비율은 51.7%, ‘약간 불만족’ 응답비율은

3) 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30.7%,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9.2%로 남성장애인의 ‘매우 만족’ 응답비율 11.0%와 ‘약간 만족’ 응답비율 55.4%와 비교하여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여성장애인 비율이 남성장애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표 III-3-1> 성별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9.9	8.5	11.0
약간 만족	53.9	51.7	55.4
약간 불만족	27.8	30.7	25.8
매우 불만족	8.4	9.2	7.8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 성별 대인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연령대별 대인관계 만족도

① 20세 미만 대인관계 만족도

20세 미만 대인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18.6%, ‘약간 만족’ 응답비율은 47.5%, ‘약간 불만족’ 응답비율은 22.7%,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11.3%로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응



답비율은 66.1%로 남성장애인이 대인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60.1%보다 여성장애인이 6.0%p 높게 나타났다.

<표 III-3-2> 20세 미만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13.7	18.6	11.6
약간 만족	48.2	47.5	48.5
약간 불만족	28.5	22.7	30.9
매우 불만족	9.7	11.3	9.0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2] 20세 미만 대인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20대 대인관계 만족도

20대 대인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16.6%, ‘약간 만족’ 응답비율은 51.2%, ‘약간 불만족’ 응답비율은 18.4%,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13.8%로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67.8%로 남성장애인이 대인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69.8%보다 여성장애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2.0%p 낮게 나타났다.

<표 III-3-3> 20대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13.3	16.6	11.8
약간 만족	55.9	51.2	58.0
약간 불만족	21.0	18.4	22.1
매우 불만족	9.8	13.8	8.1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3] 20대 대인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30대 대인관계 만족도

30대 대인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15.4%, ‘약간 만족’ 응답비율은 42.6%, ‘약간 불만족’ 응답비율은 21.2%,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20.8%로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58.0%로 남성장애인이 대인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61.0%보다 여성장애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3.0%p 낮게 나타났다.



<표 III-3-4> 30대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14.9	15.4	14.7
약간 만족	45.2	42.6	46.3
약간 불만족	25.0	21.2	26.8
매우 불만족	14.9	20.8	12.2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4] 30대 대인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④ 40대 대인관계 만족도

40대 대인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13.3%, ‘약간 만족’ 응답비율은 44.5%, ‘약간 불만족’ 응답비율은 27.0%,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15.2%로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57.8%로 남성장애인이 대인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68.0%보다 여성장애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10.3%p 낮게 나타났다.

<표 III-3-5> 40대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12.7	13.3	12.4
약간 만족	52.1	44.5	55.7
약간 불만족	24.9	27.0	24.0
매우 불만족	10.2	15.2	8.0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5] 40대 대인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⑤ 50대 대인관계 만족도

50대 대인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11.2%, ‘약간 만족’ 응답비율은 52.9%, ‘약간 불만족’ 응답비율은 28.5%,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7.4%로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64.1%로 남성장애인이 대인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67.2%보다 여성장애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3.1%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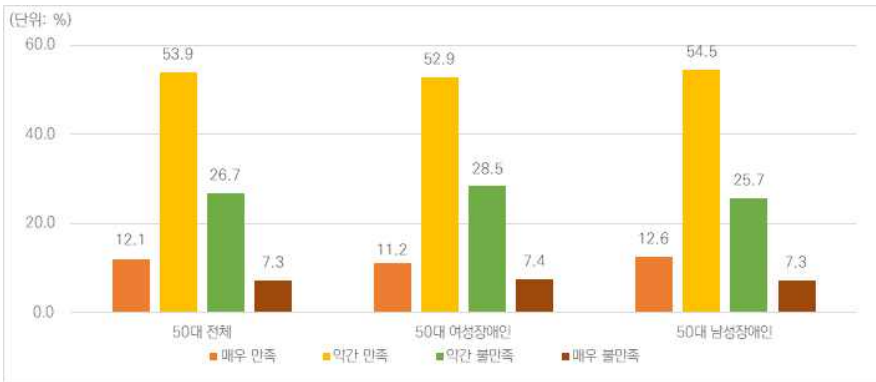


<표 III-3-6> 50대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12.1	11.2	12.6
약간 만족	53.9	52.9	54.5
약간 불만족	26.7	28.5	25.7
매우 불만족	7.3	7.4	7.3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6] 50대 대인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⑥ 60대 대인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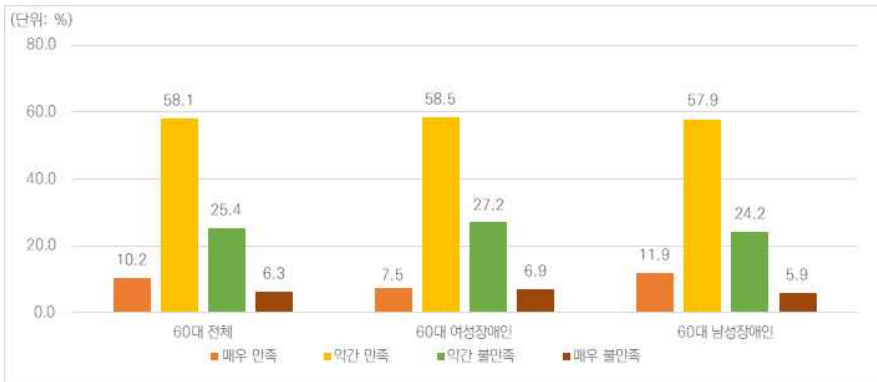
60대 대인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7.5%, ‘약간 만족’ 응답비율은 58.5%, ‘약간 불만족’ 응답비율은 27.2%,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6.9%로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66.0%로 남성장애인이 대인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67.2%보다 여성장애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3.8%p 낮게 나타났다.

<표 III-3-7> 60대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10.2	7.5	11.9
약간 만족	58.1	58.5	57.9
약간 불만족	25.4	27.2	24.2
매우 불만족	6.3	6.9	5.9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7] 60대 대인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⑦ 70세 이상 대인관계 만족도

70세 이상 대인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비율은 6.0%, ‘약간 만족’ 응답비율은 50.3%, ‘약간 불만족’ 응답비율은 35.1%, ‘매우 불만족’ 응답비율은 8.6%로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56.3%로 남성장애인이 대인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64.1%보다 여성장애인 대인관계 만족도가 -7.8%p 낮게 나타났다.



<표 III-3-8> 70세 이상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6.8	6.0	7.8
약간 만족	53.1	50.3	56.3
약간 불만족	31.5	35.1	27.3
매우 불만족	8.6	8.6	8.5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8] 70세 이상 대인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⑧ 연령대별 대인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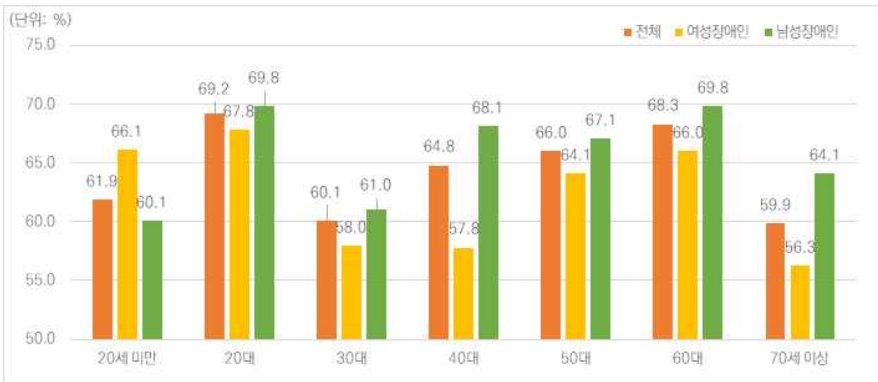
연령대별 대인관계 만족도 추이(推移)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20세 미만'에서는 66.1%로 '20세 미만' 남성장애인의 대인관계 만족도 비율 60.1%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지만 '2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남성장애인의 대인관계 만족도 비율보다 낮다. 특히, 30대, 40대, 70세 이상들의 여성장애인 대인관계 만족도 비율은 각각 30대 58.0%, 40대 57.8%, 70세 이상 56.3%로 50%대 수준이며 그중에서도 40대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 대인관계 만족도 비율의 차이가 -10.3%p로 가장 높다.

<표 III-3-9> 연령대별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세 미만	61.9	66.1	60.1
20대	69.2	67.8	69.8
30대	60.1	58.0	61.0
40대	64.8	57.8	68.1
50대	66.0	64.1	67.1
60대	68.3	66.0	69.8
70세 이상	59.9	56.3	64.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9] 연령대별 대인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1)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①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73.7%의 여성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며, 남성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편인 비율인 70.9%보다 2.8%p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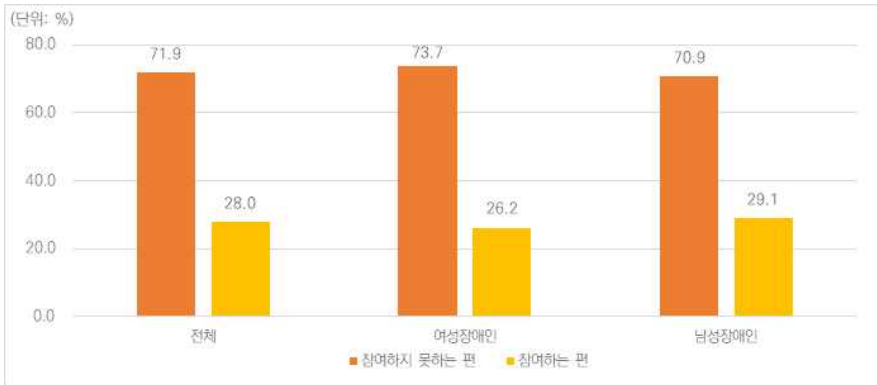


<표 III-3-10> 성별 사회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혀 참여하지 못함	21.3	23.9	19.9
참여하지 못하는 편	50.6	49.8	51.0
소계(참여하지 못하는 편)	71.9	73.7	70.9
참여하는 편	26.4	25.0	27.2
많이 참여함	1.6	1.2	1.9
소계(참여하는 편)	28.0	26.2	29.1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주 1.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이 100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2. 만 20세 이상 대상



[그림 III-3-10] 성별 사회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주 1.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이 100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2. 만 20세 이상 대상

②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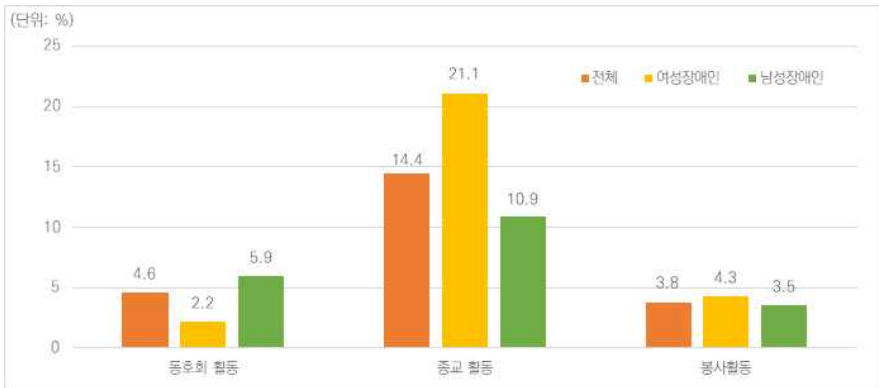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경험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동호회 활동이 2.2%, 종교 활동이 21.1%, 봉사활동이 4.3%로 종교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장애인의 종교 활동 비율 10.9%보다 거의 2배 높은 수치이다.

<표 III-3-11> 성별 사회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동호회 활동	4.6	2.2	5.9
종교 활동	14.4	21.1	10.9
봉사활동	3.8	4.3	3.5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1] 성별 사회활동 경험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

① 20대 사회활동 참여도

20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0.4%이고,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52.4%로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72.8%이다. 72.8%의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도는 남성장애인 중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비율인 78.1%보다 -5.3%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20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0대 남성장애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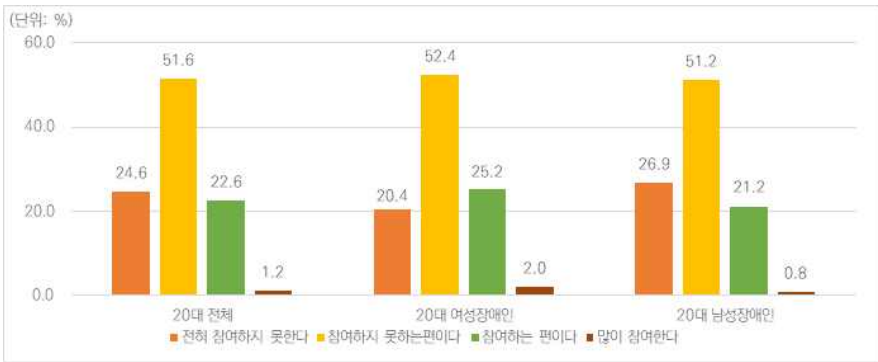


<표 III-3-12> 20대 사회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혀 참여하지 못함	24.6	20.4	26.9
참여하지 못하는 편	51.6	52.4	51.2
참여하는 편	22.6	25.2	21.2
많이 참여함	1.2	2.0	0.8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2] 20대 사회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30대 사회활동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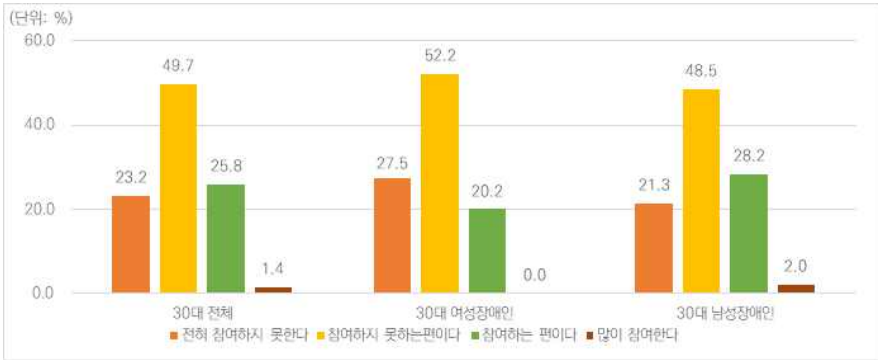
30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7.5%이고,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52.2%로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79.7%이다.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 79.7%는 남성장애인 중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비율인 69.8%보다 9.9% 높게 형성되어 있다. 즉, 30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가 30대 남성장애인보다 저조하다.

<표 III-3-13> 30대 사회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혀 참여하지 못함	23.2	27.5	21.3
참여하지 못하는 편	49.7	52.2	48.5
참여하는 편	25.8	20.2	28.2
많이 참여함	1.4	0.0	2.0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3] 30대 사회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40대 사회활동 참여도

40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5.9%이고,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47.2%로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73.1%이다. 이는 남성장애인 중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비율인 64.4%보다 8.7% 높게 형성되어 있어 40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가 40대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저조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표 III-3-14> 40대 사회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혀 참여하지 못함	18.9	25.9	15.9
참여하지 못하는 편	48.1	47.2	48.5
참여하는 편	30.9	25.2	33.2
많이 참여함	2.1	1.6	2.3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4] 40대 사회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④ 50대 사회활동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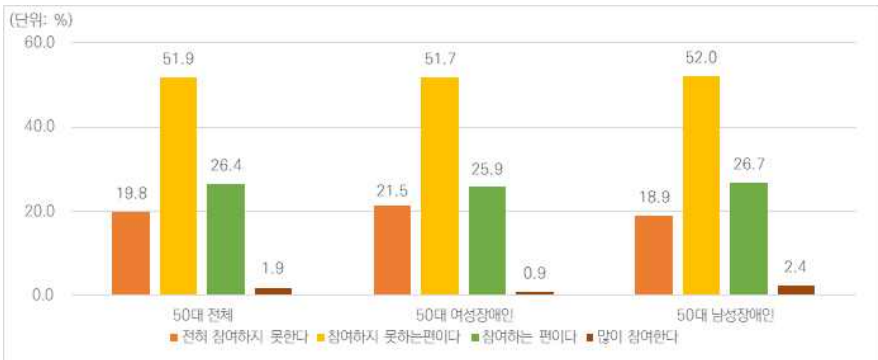
50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1.5%이고,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51.7%로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73.2%이다. 이 비율은 남성장애인 중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비율인 70.9%보다 2.3% 높은 수준이다.

<표 III-3-15> 50대 사회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혀 참여하지 못함	19.8	21.5	18.9
참여하지 못하는 편	51.9	51.7	52.0
참여하는 편	26.4	25.9	26.7
많이 참여함	1.9	0.9	2.4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5] 50대 사회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⑤ 60대 사회활동 참여도

60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4.3%,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48.0%로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72.3%이다. 이 비율을 남성장애인 중 사회활동 참여가 저조한 비율인 78.2%와 비교하면 -5.9% 낮은 수준으로 60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도가 60대 남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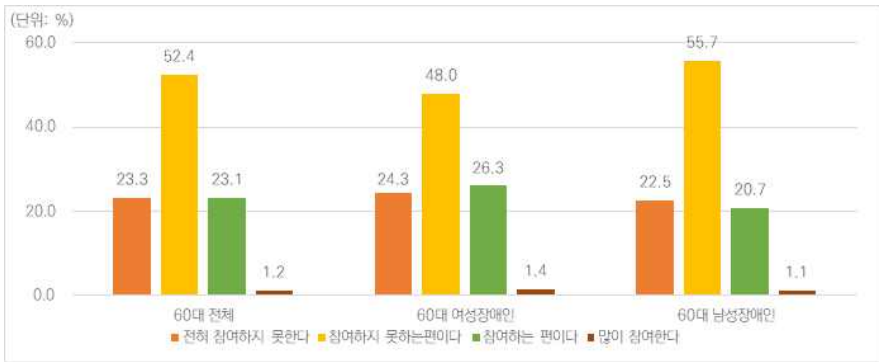


<표 III-3-16> 60대 사회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혀 참여하지 못함	23.3	24.3	22.5
참여하지 못하는 편	52.4	48.0	55.7
참여하는 편	23.1	26.3	20.7
많이 참여함	1.2	1.4	1.1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6] 60대 사회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⑥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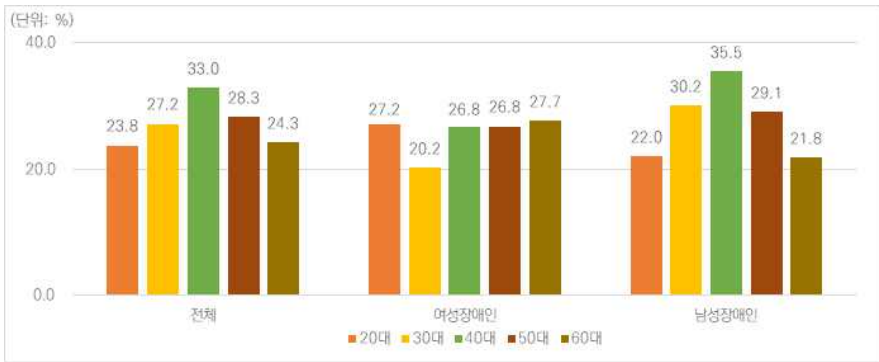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30대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비율 20.2%를 제외하면 20대(27.2%)·40대(26.8%)·50대(26.8%)·60대(27.7%) 여성장애인들은 약 27%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성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비율은 20대 22.0%에서 40대 35.5%로 상승한 이후 60대 21.8%로 하강하는 추이(推移)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3-17>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대	23.8	27.2	22.0
30대	27.2	20.2	30.2
40대	33.0	26.8	35.5
50대	28.3	26.8	29.1
60대	24.3	27.7	21.8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7] 연령대별 사회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연령대별 사회활동 경험

① 연령대별 동호회활동 경험

연령대별 동호회활동 경험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30대 여성장애인 동호회활동 경험 비율 1.1%를 제외하면 20대(2.7%)·40대(2.3%)·50대(2.3%)·60대(2.3%) 여성장애인들은 2.3% 수준에서 동호회활동 경험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성장애인 동호회활동 경험 비율은 20대 4.2%에서 30대 6.8%로 상승한 이후 40대 6.4%, 50대 5.9%, 60대 5.2%로 30대부터 60대 까지 하강하는 추세(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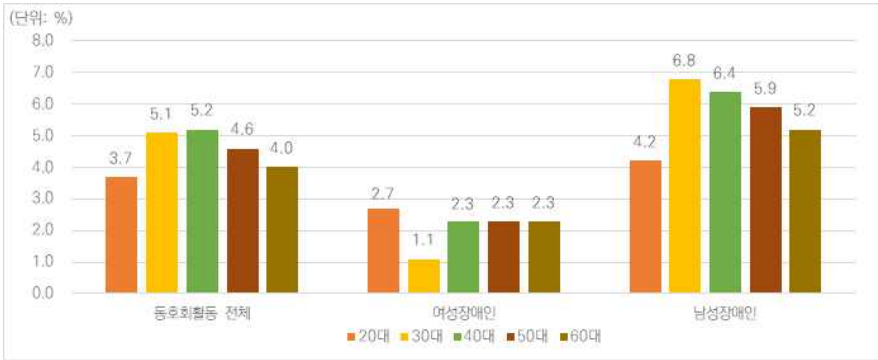


<표 III-3-18> 연령대별 동호회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대	3.7	2.7	4.2
30대	5.1	1.1	6.8
40대	5.2	2.3	6.4
50대	4.6	2.3	5.9
60대	4.0	2.3	5.2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8] 연령대별 동호회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② 연령대별 종교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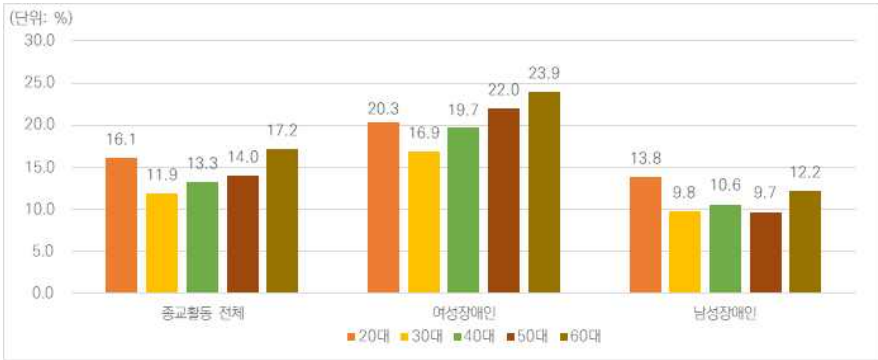
연령대별 종교활동 경험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20대 16.1%에서 30대 11.9%로 종교활동 경험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30대(11.9%) 이후로 40대 19.7%, 50대 22.0%, 60대 23.9%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趨勢)가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장애인의 종교활동 경험 비율은 20대 13.8%, 30대 9.8%, 40대 10.6%, 50대 9.7%, 60대 12.2%로 10% 내외로 종교활동 경험 비율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 III-3-19> 연령대별 종교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대	16.1	20.3	13.8
30대	11.9	16.9	9.8
40대	13.3	19.7	10.6
50대	14.0	22.0	9.7
60대	17.2	23.9	12.2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19] 연령대별 종교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연령대별 봉사활동 경험

연령대별 봉사활동 경험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20대 1.4%, 30대 4.5%, 40대 4.2%, 50대 6.7%, 60대 3.2%로 남성장애인의 변화 양상(20대 2.2%, 30대 3.7%, 40대 3.6%, 50대 4.9%, 60대 3.3%)과 비교하여 봉사활동 참여비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 유사한 추이(推移)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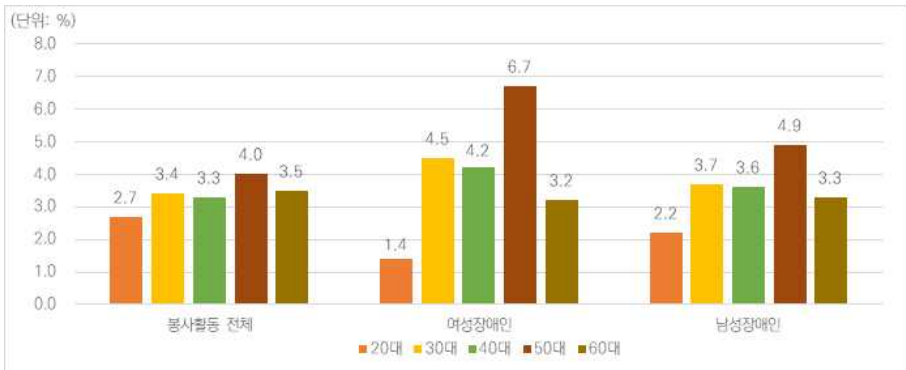


<표 III-3-20> 연령대별 봉사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대	2.7	1.4	2.2
30대	3.4	4.5	3.7
40대	3.3	4.2	3.6
50대	4.0	6.7	4.9
60대	3.5	3.2	3.3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20] 연령대별 봉사활동 참여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3) 여성장애인의 가족관계

(1) 가족관계 만족도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중 가족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2.4%, '약간 만족'하는 비율은 64.7%, '약간 불만족'하는 비율은 10.9%,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은 2.0%로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이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 87.1%는 남성장애인이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인 84.6%보다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1>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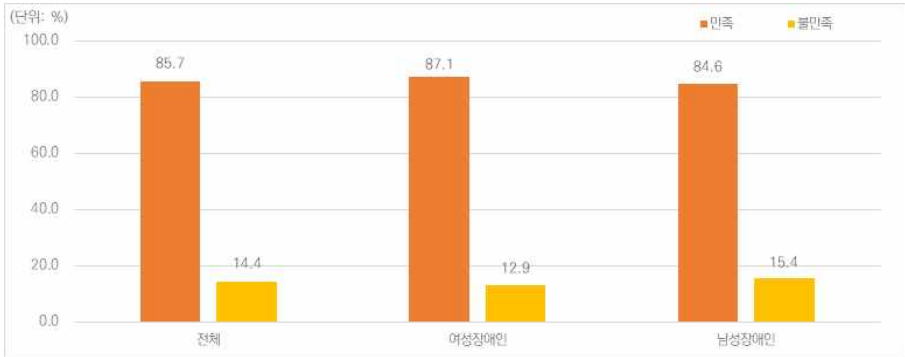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매우 만족	23.2	22.4	23.7
약간 만족	62.5	64.7	60.9
약간 불만족	11.8	10.9	12.4
매우 불만족	2.6	2.0	3.0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21]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22]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연령대별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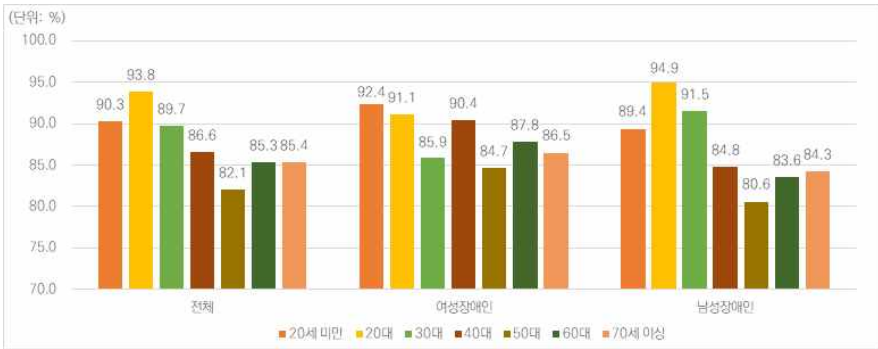
연령대별 가족관계 만족도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20대 미만 92.4%, 20대 91.1%, 30대 85.9%, 40대 90.4%, 50대 84.7%, 60대 87.8%, 70세 이상 86.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장애인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20대 미만 89.4%, 20대 94.9%, 30대 91.5%, 40대 84.8%, 50대 80.6%, 60대 83.6%, 70세 이상 84.3%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대(94.9%)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50대(80.6%)까지 감소추세가 나타난 반면에 여성장애인은 50대(84.7%)로 가장 낮은 만족 비율이 나타났으나 40대(90.4%)를 제외하고 20세 미만(92.4%)에 가장 높은 만족 비율이 나타난 이후 50대(80.6%)까지 감소세가 나타났다.

<표 III-3-22> 연령대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세 미만	90.3	92.4	89.4
20대	93.8	91.1	94.9
30대	89.7	85.9	91.5
40대	86.6	90.4	84.8
50대	82.1	84.7	80.6
60대	85.3	87.8	83.6
70세 이상	85.4	86.5	84.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주: 연령대별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그림 III-3-23] 연령대별 가족관계 만족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주: 연령대별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4) 여성장애인의 정치활동

(1) 여성장애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참여

① 여성장애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여성장애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 보면,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74.6%로 이는 남성장애인의 투표율 81.2%보다 낮으나 전체인구 중 여성의 투표율 66.7%보다 높다.

<표 III-3-23> 여성장애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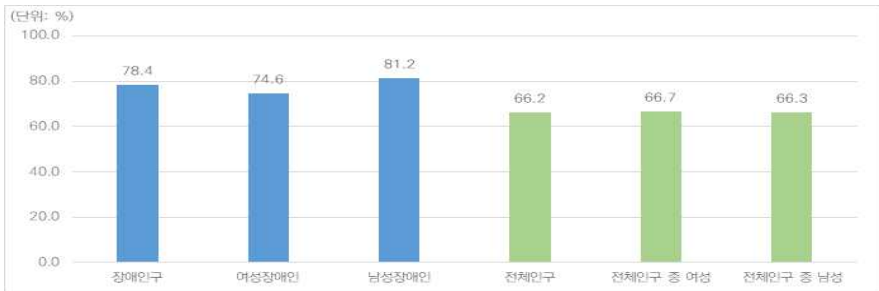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장애인구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체인구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투표율	78.4	74.6	81.2	66.2	66.7	66.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주 1. 장애인구 투표율은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전체인구 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활용



[그림 III-3-24] 여성장애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② 투표하지 않은 이유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비율의 이유를 살펴보면,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55.8%, 남성장애인 비율은 43.1%이며, “본인이 원치 않아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7.6%, 남성장애인 비율은 34.4%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투표를 함에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 또는 투표 방법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3-24>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교통불편	4.1	4.1	4.2
편의시설 부족	2.2	2.5	1.9
몸이 불편해서	49.5	55.8	43.1
도우미가 없어서	1.8	1.4	2.1
정보부족	2.9	2.3	3.4
시간이 없어서	2.2	1.6	2.7
본인이 원치 않아서	31.0	27.6	34.4
주위의 시선때문에	1.1	0.6	1.6
코로나19로 인하여	2.7	2.5	2.9
기타	2.5	1.6	3.4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25]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연령대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참여

여성장애인의 연령대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참여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39.2%, 20대 50.6%, 30대 57.8%, 40대 71.0%, 50대 75.6%, 60대 80.1%, 70세 이상 75.2%로 전 연령대에서 남성장애인의 투표율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표 III-3-25> 연령대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세 미만	51.0	39.2	57.0
20대	53.4	50.6	54.6
30대	63.8	57.8	66.5
40대	76.1	71.0	78.3
50대	79.3	75.6	81.3
60대	83.8	80.1	86.1
70세 이상	79.8	75.2	85.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26] 연령대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여성장애인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① 여성장애인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여성장애인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81.2%로 이는 남성장애인의 투표율 87.1%보다 낮으나 전체인구 중 여성의 투표율 77.3%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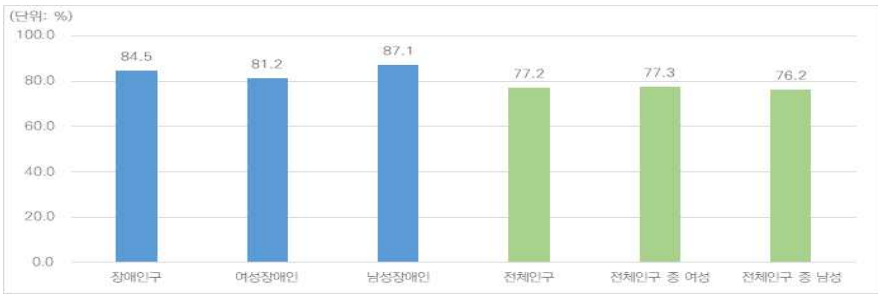
<표 III-3-26> 여성장애인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단위: %)

구분	장애인구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체인구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투표율	84.5	81.2	87.1	77.2	77.3	76.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주 1. 장애인구 투표율은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 2. 전체인구 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활용



[그림 III-3-27] 여성장애인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② 투표하지 않은 이유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비율의 이유를 살펴보면,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62.1%, 남성장애인 비율은 48.1%이며,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4.3%, 남성장애인 비율은 35.1%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와 유사한 결과로 투표를 함에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 또는 투표 방법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3-27>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교통이 불편해서	1.3	1.7	0.9
편의시설 부족	1.3	1.3	1.3
몸이 불편해서	55.6	62.1	48.1
도우미가 없어서	3.7	4.3	3.1
정보가 부족해서	1.7	1.9	1.5
시간이 없어서	3.3	1.9	5.0
하고 싶지 않아서	29.3	24.3	35.1
주위 시선 때문에	1.8	1.1	2.6
기타	1.8	1.3	2.4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28]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연령대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여성장애인의 연령대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33.3%, 20대 73.3%, 30대 67.7%, 40대 72.1%, 50대 86.8%, 60대 89.0%, 70세 이상 79.2%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와 유사하게 전 연령대에서 남성장애인의 투표율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표 III-3-28> 연령대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세 미만	44.4	33.3	66.7
20대	66.8	73.3	62.6
30대	76.3	67.7	80.5
40대	79.4	72.1	83.3
50대	88.6	86.8	89.5
60대	90.0	89.0	90.7
70세 이상	83.3	79.2	88.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29] 연령대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3) 여성장애인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① 여성장애인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여성장애인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 보면,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73.7%로 이는 남성장애인의 투표율 79.9%보다 낮으나 전체인구 중 여성의 투표율 57.2%보다 높다.



<표 III-3-29> 여성장애인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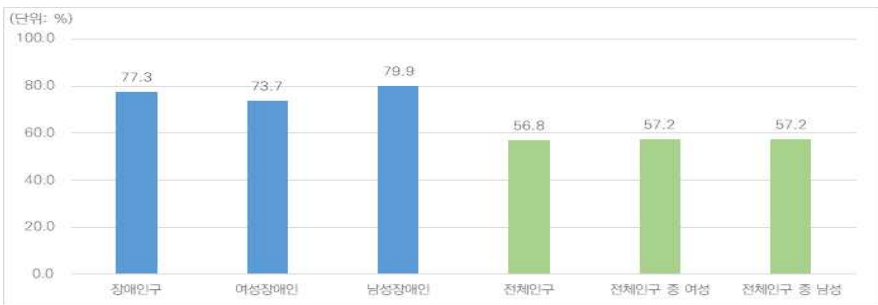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장애인구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체인구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투표율	77.3	73.7	79.9	56.8	57.2	57.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주 1. 장애인구 투표율은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전체인구 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활용



[그림 III-2-30] 여성장애인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② 투표하지 않은 이유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상위 비율의 이유를 살펴보면,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51.4%, 남성장애인 비율은 36.6%이며,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29.1%, 남성장애인 비율은 39.0%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와 유사한 결과로 투표를 함에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 또는 투표 방법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3-30>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교통이 불편해서	1.1	1.1	1.0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1.0	0.4	1.6
몸이 불편해서	43.9	51.4	36.6
도우미가 없어서	3.0	3.8	2.2
정보가 부족해서	5.2	5.5	5.0
시간이 없어서	8.4	5.7	11.1
하고 싶지 않아서	34.1	29.1	39.0
주위의 시선 때문에	0.7	1.2	0.1
기타	2.6	1.7	3.4
계	100.0	100.0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31] 성별 투표하지 않은 이유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③ 연령대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여성장애인의 연령대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을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88.0%, 20대 35.9%, 30대 59.2%, 40대 64.6%, 50대 74.4%, 60대 82.1%, 70세 이상 75.0%로 20세 미만 여성장애인만 남성장애인보다 크게 투표율이 높았으며, 20세 미만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이 남성장애인의 투표율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



다.

<표 III-3-31> 연령대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단위: %)

구분	전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20세 미만	44.6	88.0	35.7
20대	52.0	35.9	60.1
30대	67.4	59.2	70.9
40대	71.0	64.6	73.7
50대	78.1	74.4	79.9
60대	85.6	82.1	88.2
70세 이상	78.9	75.0	84.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III-3-32] 연령대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4) 여성장애인의 투표율 추세

다음 표와 그림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투표율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73.7%,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81.2%, 2020년 21대 국회의원총선거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은 74.6%로 나타났다. 3번의 선거 모두 남성장애인의 투표율보다 낮게, 전체인구 중 여성의 투표율보다 높게 투표율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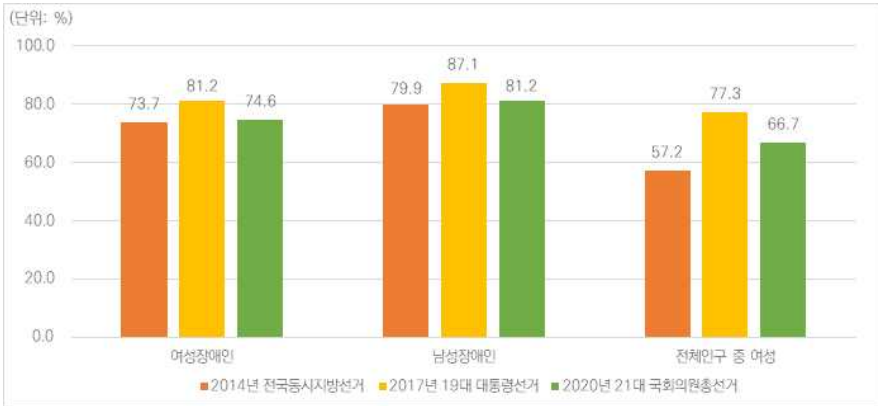
<표 III-3-32> 여성장애인의 투표율 추세

(단위: %)

구분	장애 인구	여성 장애인	남성 장애인	전체 인구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7.3	73.7	79.9	56.8	57.2	57.2
19대 대통령선거	84.5	81.2	87.1	77.2	77.3	76.2
21대 국회의원총선거	78.4	74.6	81.2	66.2	66.7	66.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주 1. 장애인구 투표율은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 2. 전체인구 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활용



[그림 III-2-33] 여성장애인의 투표율 추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4. 산업별 및 직업별 성별 임금수준

1) 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산업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



의 평균임금은 40,98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9,020천원으로 나타났다. 광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2,05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3,044천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9,87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5,956천원으로 나타났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9,25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8,225천원으로 나타났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8,12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5,121천원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9,52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3,938천원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1,57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0,908천원으로 나타났다. 운수 및 창고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8,40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5,952천원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9,61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6,293천원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7,74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4,366천원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9,47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94,924천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7,41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3,754천원으로 나타났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3,83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7,095천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3,42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6,189천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1,27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3,747천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36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2,179천원으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44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5,302천원으로 나타났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1,10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8,301천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은 1. 금융 및 보험업(69,474), 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59,252),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3,839), 4. 정보통신업(47,744), 5. 광업(42,053), 6. 도매 및 소매업(41,574), 7. 교육서비스업(41,275), 8. 제조업(39,872), 9. 건설업(39,527), 10. 운수 및 창고업(38,405), 1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8,125), 12. 부동산업(37,417),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6,448),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6,369), 1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3,425),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1,103), 17. 숙박 및 음식점업(29,61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과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과의 관계를 보면,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들 중 5순위 중 광업에는 여성장애인의 진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1순위인 금융 및 보험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 연봉은 34,051천원(4,782명), 2순위인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 연봉은 26,750천원(1,219명), 3순위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 연봉은 32,954천원(1,269명), 4순위인 정보통신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 연봉은 22,453천원(2,784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전체 산업	-	-	40,982	59,020
농업, 임업 및 어업	3,600(296)	10,110(1,657)	-	-
광업	-	24,988(709)	42,053	53,044
제조업	23,388(12,246)	33,726(89,545)	39,872	55,95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6,750(1,219)	44,183(517)	59,254	78,22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29,051(3,312)	38,125	45,121
건설업	21,587(2,460)	28,814(56,069)	39,527	53,938
도매 및 소매업	22,938(9,318)	27,485(22,235)	41,574	60,908
운수 및 창고업	28,225(2,013)	26,111(26,167)	38,405	45,952
숙박 및 음식점업	15,482(12,648)	17,056(9,235)	29,614	36,293
정보통신업	22,453(2,784)	43,238(9,427)	47,744	64,366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금융 및 보험업	34,051(4,782)	27,416(4,526)	69,474	94,924
부동산업	14,002(1,773)	25,087(19,726)	37,417	53,7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954(1,269)	45,342(10,995)	53,839	77,09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923(10,387)	24,007(25,880)	33,425	46,18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266(36,625)	22,760(42,842)	-	-
교육서비스업	17,712(15,568)	27,968(17,201)	41,275	63,7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09(61,028)	18,898(45,545)	36,369	52,1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676(4,118)	21,054(5,301)	36,448	45,3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033(5,468)	25,340(15,772)	31,103	48,30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1) 광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광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광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2,05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3,044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5,41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8,188천원으로 나타났다. 금속 광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7,341천원으로 나타났다.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2,40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1,414천원으로 나타났다. 광업 지원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7,971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광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광업 전체	-	24,988(709)	42,053	53,04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46,060(32)	35,413	58,188
금속 광업	-	-	-	47,341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24,000(677)	42,402	51,414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	67,97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2) 제조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제조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9,87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5,956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1,20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3,835천원으로 나타났다. 음료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7,75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2,118천원으로 나타났다. 담배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7,83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2,874천원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8,91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8,840천원으로 나타났다.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3,33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8,785천원으로 나타났다.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7,43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6,508천원으로 나타났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8,95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2,903천원으로 나타났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4,33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0,284천원으로 나타났다.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5,86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2,186천원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4,24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92,218천원으로 나타났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4,03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0,654천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3,53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5,170천원으로 나타났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0,45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2,726천원으로 나타났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7,28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9,969천원으로 나타났다. 1차 금속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3,69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2,562천원으로 나타났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44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8,408천원으로 나타났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2,49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88,777천원으로 나타났다.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97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6,349천원으로 나타났다. 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24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4,622천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0,18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1,238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5,79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6,704천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9,34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5,218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51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3,758천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제품 제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9,78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9,631천원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5,37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9,121천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 상위 5순위에 해당하는 세부 산업은 1. 담배 제조업(67,836), 2.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2,496), 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54,245), 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45,370), 5.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44030)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상위 5순위에 해당하는 제조업 세부산업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담배 제조업은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30,058천원(698명)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과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에서는 21,752천원(295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제조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제조업 전체	23,388(12,246)	33,726(89,545)	39,872	55,956
식료품 제조업	25,880(3,225)	22,332(9,769)	31,208	43,835
음료 제조업	-	48,000(254)	37,752	52,118
담배 제조업	-	-	67,836	72,874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6,030(316)	30,172(1,428)	38,912	48,84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30(1,672)	26,611(859)	43,337	58,78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4,415(427)	28,165(350)	27,439	36,50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30,000(378)	38,957	42,9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6,286(193)	33,511(2,366)	34,336	40,28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000(77)	33,810(1,715)	35,866	42,18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54,245	92,218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752(295)	30,466(3,960)	44,030	70,65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6,469(277)	37,247(1,776)	43,535	55,17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898(463)	24,710(4,931)	30,451	42,726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1,600(128)	33,451(2,067)	37,289	49,969
1차 금속 제조업	42,000(46)	39,697(2,312)	33,699	52,56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939(790)	26,305(6,372)	36,443	48,408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058(698)	40,578(10,159)	62,496	88,77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740(68)	24,443(660)	36,975	56,349
전기장비 제조업	21,686(1,564)	30,800(3,527)	36,244	54,62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146(393)	37,258(13,413)	40,186	51,2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714(1,501)	42,068(14,424)	35,795	56,70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000(94)	35,579(2,401)	39,340	55,218
가구 제조업	-	38,102(1,797)	36,514	43,758
기타 제품 제조업	1,200(20)	25,891(1,480)	29,788	39,6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29,338(3,146)	45,370	59,12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9,25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8,225천원으로 나타났다. 수도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7,16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7,038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6,750(1,219)	44,183(517)	59,254	78,225
수도업	-	28,430(857)	47,169	67,038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8,12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5,121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5,34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1,814천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68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2,625천원으로 나타났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0,90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8,576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전체	-	29,051(3,312)	38,129	45,121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35,344	41,81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29,268(2,455)	36,684	42,62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40,904	58,576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4) 건설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건설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건설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9,52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3,938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종합 건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5,61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7,377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5,54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4,581천원으로 나타났다.

종합 건설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21,581천원(1,637명),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21,600천원(823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건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건설업 전체	21,587(2,460)	28,814(56,069)	39,527	53,938
종합 건설업	21,581(1,637)	27,494(32,041)	45,619	67,377
전문직별 공사업	21,600(823)	30,572(24,028)	35,547	44,58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	------------------	------------------	--------------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5) 도매 및 소매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도매 및 소매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1,57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0,908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4,12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6,309천원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7,54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4,199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자동차 제외)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3,57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7,217천원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산업별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서 여성장애인의 진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29,677천원(4,207명), 소매업(자동차 제외)은 17,389천원(5,111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도매 및 소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도매 및 소매업 전체	22,938(9,318)	27,485(22,235)	41,574	60,908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33,940(415)	54,127	76,30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9,677(4,207)	30,071(11,858)	47,541	64,199
소매업(자동차 제외)	17,389(5,111)	24,138(9,963)	33,574	47,217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	------------------	------------------	--------------	--------------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6) 운수 및 창고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운수 및 창고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운수 및 창고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8,40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5,952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40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0,34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상 운송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4,35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3,332천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항공 운송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70,28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91,481천원으로 나타났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28,225천원(2,013명)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세부산업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4-8> 운수 및 창고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운수 및 창고업 전체	28,225(2,013)	26,111(26,167)	38,405	45,95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8,225(2,013)	25,559(19,234)	36,401	40,340
수상 운송업	-	33,600(303)	54,354	73,332
항공 운송업	-	16,800(346)	70,285	91,48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27,950(6,284)	35,499	49,039

구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체인구	전체인구
	평균임금(N)	평균임금(N)	중 여성	중 남성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7) 숙박 및 음식점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9,61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6,293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숙박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5,25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4,03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8,17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2,464천원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8,614천원(1,004명)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5,212천원(11,644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숙박 및 음식점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전체인구	전체인구
	평균임금(N)	평균임금(N)	중 여성	중 남성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15,482(12,648)	17,056(9,235)	29,614	36,293
숙박업	18,614(1,004)	23,978(298)	35,253	44,036
음식점 및 주점업	15,212(11,644)	16,825(8,937)	28,178	32,464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	------------------	------------------	--------------	--------------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8) 정보통신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정보통신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7,74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4,366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출판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2,83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5,38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5,32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9,783천원으로 나타났다. 방송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2,30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88,14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우편 및 통신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3,48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88,019천원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3,66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8,69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0,86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8,561천원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높은 세부산업은 우편 및 통신업(63,481천원), 방송업(62,304천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53,666천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세부산업의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우편 및 통신업은 23,016천원(1,763명), 방송업은 24,098천원(360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5,764천원(397명)으로 나타났다.

(9) 금융 및 보험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표 III-4-10> 정보통신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정보통신업 전체	22,453(2,784)	43,238(9,427)	47,744	64,366
출판업	29,638(217)	44,238(2,543)	42,832	55,38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2,000(46)	38,610(393)	45,322	59,783
방송업	24,098(360)	42,000(268)	62,304	88,140
우편 및 통신업	23,016(1,763)	36,066(2,592)	63,481	88,01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764(397)	49,944(3,405)	53,666	68,697
정보서비스업	-	22,697(225)	50,865	68,56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금융 및 보험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9,47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94,924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70,66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91,05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보험 및 연금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6,20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92,879천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9,22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106,966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금융업은 51,355천원(1,257명), 보험 및 연금업은 27,878천원(3,524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4-11> 금융 및 보험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금융 및 보험업 전체	34,051(4,782)	27,416(4,526)	69,474	94,924
금융업	51,355(1,257)	27,788(603)	70,660	91,056
보험 및 연금업	27,878(3,524)	29,467(3,521)	66,209	92,879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8,898(402)	69,225	106,966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10) 부동산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부동산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세부산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부동산업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부동산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7,41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3,754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부동산업에서 14,002천원(1,773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12> 부동산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부동산업	14,002(1,773)	25,087(19,726)	37,417	53,754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	------------------	------------------	--------------	--------------

- 추정치)를 취합함
-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3,83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7,095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9,56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98,98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4,21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83,934천원으로 나타났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9,01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3,64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7,92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3,649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세부산업별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은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업의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연구개발업 30,318천원(126명), 전문 서비스업 34,396천원(934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4,000천원(66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00천원(142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체	32,954(1,269)	45,342(10,995)	53,839	77,095
연구개발업	30,318(126)	48,271(2,927)	69,567	98,984
전문 서비스업	34,396(934)	23,382(1,661)	54,213	83,93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4,000(66)	48,342(5,408)	39,010	53,64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00(142)	57,041(999)	37,925	53,649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3,42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6,189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3,207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4,80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2,77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5,495천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대업(부동산 제외)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6,62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6,933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은 임대업(부동산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임대업(부동산 제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서

18,020천원(4,604명),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서 19,640천원(5,784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체	18,923(10,387)	24,007(25,880)	33,425	46,189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8,020(4,604)	25,362(7,566)	33,207	44,808
사업 지원 서비스업	19,640(5,784)	22,338(16,585)	32,779	45,495
임대업(부동산 제외)	-	34,087(1,729)	46,620	56,933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13) 교육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교육 서비스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려 하였으나 교육 서비스업에서 세부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서비스업의 성별 평균임금은 남성은 63,747천원, 여성은 41,275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7,712천원(15,568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15> 교육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교육 서비스업	17,712(15,568)	27,968(17,201)	41,275	63,747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	------------------	------------------	--------------	--------------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36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2,179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2,06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2,09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9,33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8,034천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업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22,366천원(7,502명)이며,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8,390천원(53,525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체	10,109(61,028)	18,898(45,545)	36,369	62,179
보건업	22,366(7,502)	60,721(8,161)	42,069	72,096
사회복지 서비스업	8,390(53,525)	9,768(37,384)	29,330	38,034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	------------------	------------------	--------------	--------------

- 추정치)를 취함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6,44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5,302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8,42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7,97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5,62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4,430천원으로 나타났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0,661천원(2,316명)이며,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5,265천원(1,802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체	12,676(4,118)	21,054(5,301)	36,448	45,30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661(2,316)	13,997(2,067)	38,425	47,97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5,265(1,802)	25,564(3,234)	35,629	44,430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함함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부산업들에 따른 성별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1,10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8,301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협회 및 단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5,80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5,75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9,36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2,482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2,72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6,575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협회 및 단체에서 12,526천원(1,804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서 16,675천원(506명),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19,666천원(3,158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17,033(5,468)	25,340(15,772)	31,103	48,301
협회 및 단체	12,526(1,804)	23,354(3,468)	35,804	45,751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6,675(506)	30,109(6,487)	39,368	52,482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666(3,158)	21,205(5,817)	22,725	36,575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	------------------	------------------	--------------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2) 직업별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를 통하여 직업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직업 중 '관리자'에서는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112,36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148,080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는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44,28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0,923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사무 종사자'에서는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46,06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6,820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서비스 종사자'에서는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27,66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4,791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판매 종사자'에서는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34,87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5,773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서는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31,07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6,317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서는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34,57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4,433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단순노무 종사자'에서는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26,84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1,531천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이 높은 직업은 1. 관리자(112,363), 2. 사무 종사자(46,061), 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4,285), 4. 판매 종사자(34,870), 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4,578),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1,074), 7. 서비스 종사자(27,663), 8. 단순노무 종사자(26,84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임금이 높은 산업 중 상위 3순위 직업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관리자는 여성장애인 종사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무 종사자에서는 25,303천원(31,42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는 23,792천원(14,314명)으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보다 낮거나 종사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4-19> 직업별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관리자	-	53,401(1,308)	112,363	148,0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792(14,314)	46,193(39,666)	44,285	70,923
사무 종사자	25,303(31,422)	35,719(72,488)	46,061	66,820
서비스 종사자	15,734(37,820)	24,775(15,720)	27,663	34,791
판매 종사자	21,068(6,797)	27,660(9,870)	34,870	55,7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853(3,375)	30,890(37,586)	31,074	46,31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3,996(3,944)	31,900(60,669)	34,578	44,433
단순노무 종사자	9,419(85,738)	17,066(165,607)	26,845	31,53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1) 관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관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관리자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112,36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148,080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분류별로 보면,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에서 여성의 평균임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32,362천원으로 나타났다.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

은 146,22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180,35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서비스 관리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105,77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146,738천원으로 나타났다.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108,38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131,55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105,88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139,442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관리자 평균임금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4-20> 관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관리자 전체	-	53,401(1,308)	112,363	148,080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	-	-	332,36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	146,226	180,359
전문 서비스 관리직	-	43,582(517)	105,778	146,738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59,825(791)	108,384	131,557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	-	105,880	139,442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4,28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0,923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분류별로 보면,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9,30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6,97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4,39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7,888천원으로 나타났다.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6,90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9,99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7,96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9,835천원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4,68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3,68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법률 및 행정 전문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110,90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127,982천원으로 나타났다.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7,59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81,30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3,46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4,566천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체 중 여성 평균임금 상위 3순위인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을 보면, 법률 및 행정 전문직은 여성장애인의 진출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은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이 32,156천원(88명),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은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이 34,800천원(60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체	23,792(14,314)	46,193(39,666)	44,285	70,923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34,800(60)	58,015(926)	59,306	76,970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58,248(1,077)	46,753(3,711)	54,399	67,888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42,000(51)	46,033(12,953)	56,905	69,991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9,990(5,444)	64,213(6,948)	37,962	69,83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4,754(3,939)	45,924(6,781)	44,681	73,687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	110,902	127,982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32,156(88)	49,020(1,567)	67,591	81,305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7,640(3,656)	25,724(6,781)	43,464	54,566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3) 사무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사무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6,06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6,820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분류별로 보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5,95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66,45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 사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67,35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84,836천원으로 나타났다. 법률 및 감사 사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58,66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75,48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3,54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0,739천원으로 나타났다.

법률 및 감사 사무직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26,720천원(23,789명), 금융 사무직에서 24,149천원(435명),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에서 20,690천원(7,198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22> 사무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사무 종사자 전체	25,303(31,422)	35,719(72,488)	46,061	66,820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6,720(23,789)	36,834(65,707)	45,959	66,457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금융 사무직	24,149(435)	38,831(2,200)	67,355	84,836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26,400(140)	58,664	75,484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20,690(7,198)	17,993(4,441)	33,549	40,739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4) 서비스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서비스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7,66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4,791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분류별로 보면,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0,28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6,50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6,56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1,280천원으로 나타났다.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9,76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9,53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7,89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4,021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에서 30,000천원(23명),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에서 14,022천원(25,344명),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에서 22,385천원(351명),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서 19,100천원(12,101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23> 서비스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서비스 종사자 전체	15,734(37,820)	24,775(15,720)	27,663	34,79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0,000(23)	46,165(4,703)	30,285	36,504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14,022(25,344)	14,946(6,888)	26,562	31,280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2,385(351)	17,633(918)	39,763	39,532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9,100(12,101)	16,572(3,210)	27,898	34,02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5) 판매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판매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판매 종사자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4,87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5,773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분류별로 보면, 영업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8,29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9,92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0,92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2,439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0,30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6,468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을 세부분류별로 보면, 영업직에서는 26,874천원(3,443명),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에서는 14,992천원(3,266명),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에는 19,396천원(87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24> 판매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판매 종사자 전체	21,068(6,797)	27,660(9,870)	34,870	55,773
영업직	26,874(3,443)	31,258(3,991)	48,296	59,92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4,992(3,266)	22,861(4,818)	30,920	42,439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19,396(87)	35,916(1,062)	30,300	36,468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1,07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6,317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분류별로 보면,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8,13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4,04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0,96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8,836천원으로 나타났다.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9,26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7,49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1,17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3,375천원으로 나타났다.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8,614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3,22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9,04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6,808천원으로 나타났다.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1,18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4,81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2,36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9,078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기능 관련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7,83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2,577천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세부분류 중 평균임금 상위 3순위 직업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1순위인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진출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순위인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도 여성장애인의 진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3순위인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에서 21,600천원(823명)으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이 나타났다.

<표 III-4-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체	16,853(3,375)	30,890(37,586)	31,074	46,317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21,600(27)	40,271(1,052)	28,131	34,044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21,239(1,511)	36,000(52)	30,968	38,836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30,000(24)	29,264	37,495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31,516(1,588)	31,175	43,3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32,994(8,919)	48,614	53,224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21,600(823)	38,207(4,550)	39,040	46,808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25,180(2,166)	41,182	44,815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8,000(9)	28,882(16,379)	32,362	39,078
기타 기능 관련직	6,235(1,005)	24,629(2,856)	27,832	42,577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4,57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4,433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분류별로 보면,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1,23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1,87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8,48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9,014천원으로 나타났다.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0,518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9,75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1,00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5,411천원으로 나타났다.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3,42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6,07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40,879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50,612천원으로 나타났다. 운전 및 운송 관련 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3,82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8,26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0,86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41,660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8,810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7,487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세부분류 중 여성의 평균임금 상위 3순위 직업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1순위인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25,349천원(1,029명), 2순위인 운전 및 운송 관련직에서 15,144천원(82명), 3순위인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23,706천원(2,382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2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	------------------	------------------	--------------	--------------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전체	23,996(3,944)	31,900(60,669)	34,578	44,433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28,295(1,269)	31,230	41,87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26,400(138)	28,985(1,223)	28,486	39,014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24,000(43)	41,602(2,256)	30,518	49,755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22,862(269)	31,363(1,425)	31,005	45,411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23,706(2,382)	38,738(17,120)	33,429	46,079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25,349(1,029)	34,349(6,814)	40,879	50,612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144(82)	25,986(25,785)	33,825	38,269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24,000(315)	30,862	41,660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33,743(4,462)	28,810	37,487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8) 단순노무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임금수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2022년 기준 추정치)을 통하여 단순노무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전체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6,84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1,531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분류별로 보면,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31,075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4,93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6,191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3,392천원으로 나타났다.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7,94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1,89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5,452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29,104천원으로 나타났다.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6,443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



성의 평균임금은 31,35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에서 전체인구 중 여성의 평균임금은 27,996천원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의 평균임금은 31,911천원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 종사자 세부분류 중 여성의 평균임금 상위 3순위 직업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1순위인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에서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21,600천원(1,629명)이며, 2순위인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에서는 5,167천원(11,887명)이며, 3순위인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에서는 12,337천원(12,552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4-27> 단순노무 종사자 세부분류에 따른 성별 평균임금
(단위: 천원, 인)

구분	여성장애인 평균임금(N)	남성장애인 평균임금(N)	전체인구 중 여성	전체인구 중 남성
단순노무 종사자 전체	9,419(85,738)	17,066(165,607)	26,845	31,53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21,600(1,629)	22,782(27,931)	31,075	34,933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8,346(1,682)	19,955(16,207)	26,191	33,392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12,337(12,552)	15,335(20,592)	27,943	31,893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179(43,684)	15,408(65,297)	25,452	29,104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864(14,304)	18,582(12,412)	26,443	31,352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5,167(11,887)	13,554(23,167)	27,996	31,91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주 1. 전체인구 평균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맞춤형 임금정보를 통하여 각 자료(2022년 기준 추정치)를 취합함
- 2. 장애인구 평균임금은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월평균임금에 12개월을 곱하여 계산함
- 3. 장애인구는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수를 표기하였으며(N: 응답자수), 표준편차가 높은 수치가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활용
- 4.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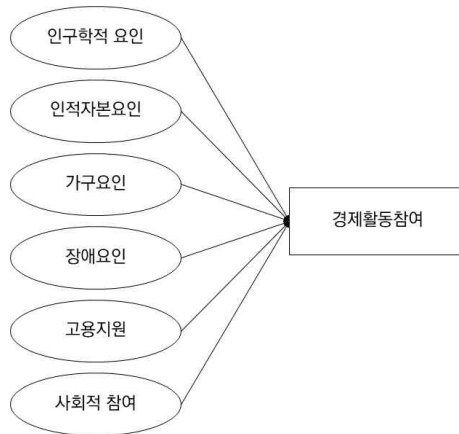
IV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 분석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를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고용지원, 사회적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그림 IV-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고용지원, 사회적 참여로 설정하여 각 요인들이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상기 그림과 같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구학적 요인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인적자본요인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가구요인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장애요인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 다섯째, 고용지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여섯째, 사회적 참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의 등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2020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는 제11차 조사로 등록장애인 2,623,201명(2020년 5월말 기준)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추출한 250개 읍면동의 등록 장애인 40,831명 중 약 7,000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 자료는 경제활동 참여,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고용지원, 사회적 참여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기 위한 설문으로 활용하여 경제활동참여(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비참여(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주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2) 0~35시간”, “3) 36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내용을 활용하여 취업자를 분류하였으며,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 구해 보았음”, “2) 구해 보지 않았음”으로 응답한 내용과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 있었음”, “2) 없었음”으로 응답한 내용을 활용하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인은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고용지원, 사회적 참여 등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은 만나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변수로 활용하였고, 인적자본요인은 학력, 직업훈련여부 등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가구요인은 가구주여부, 배우자유무 등의 변수로 구성하였고, 장애요인은 장애정도, 일상생활타인의존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고용지원은 취업정보우선필요, 임금보조우선필요 등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참여는 교통수단이용난이도, 여가생활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①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은 만나이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측정하였다. 만나이는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설문의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 자신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 매우 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5)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내용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② 인적자본요인

인적자본요인은 학력과 직업훈련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학력은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직업훈련여부는 “장애를 갖게 된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 예”, “2) 훈련 중”, “3) 아니오”로 응답한 내용을 “있음”과 “없음”으로 이원화하여 활용하였다.

③ 가구요인

가구요인은 가구주여부와 배우자유무 등을 측정하였다. 가구주여부는 “귀댁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그 외의 응답으로 이원화하여 활용하였으며, 배우자유무는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사실상의 결혼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이원화하여 활용하였다.

④ 장애요인

장애요인은 장애정도와 일상생활타인의존도 등을 측정하였다. 장애정도는 “등록된 장애정도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응답한 내용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일상생활타인의존도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⑤ 고용지원

고용지원은 취업정보우선필요, 임금보조우선필요 등을 측정하였다. 취업정보우선필요는 “국가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취업정보 제공”이라고 응답한 내용과 그 외 응답으로 이원화하여 활용하였고, 임금보조우선필요는 동일설문에 대하여 “임금보조”라고 응답한 내용과 그 외 응답으로 이원화하여 활용하였다.

⑥ 사회적 참여

사회적 참여는 교통수단이용난이도, 여가생활만족도 등을 측정하였다. 교통수단이용난이도는 “교통수단 이용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여가생활만족도는 “평소 문화 및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한 분석방법은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SD)를 실시하였다. 둘째, 카이자승 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각 독립변수별 경제활동 참여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셋째, 경제활동 참여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분석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1)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다음 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을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참여’가 78명(0.9%), ‘비참여’가 8,823명(99.1%), 20대는 ‘참여’가 11,668명(39.7%), ‘비참여’가 17,690명(60.3%), 30대에서는 ‘참여’가 12,557명(31.8%), ‘비참여’가 26,959명(68.2%), 40대에서는 ‘참여’가 27,007명(34.6%), ‘비참여’가 51,137명(65.4%), 50대에서는 ‘참여’가 51,254명(31.3%), ‘비참여’가 112,380명(68.7%), 60대에서는 ‘참여’가 40,927명(7.6%), ‘비참여’가 167,385명(72.6%), 70세 이상에서는 ‘참여’가 63,169명(27.4%), ‘비참여’가 498,194명(92.4%)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만나이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평균 17.14세(SD=1.51)이며, 20대는 평균 23.80세(SD=2.78)이며, 30대에서는 평균 35.56세(SD=2.66)이며, 40대에서는 평균 45.16세(SD=2.83)이며, 50대에서는 평균 54.86세(SD=2.87)이며, 60대에서는 평균 64.58세(SD=2.88)이며, 70세 이상에서는 ‘평균 79.37세(SD=5.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매우 나쁨’이 71명(0.8%), ‘나쁨’이 624명(7.0%), ‘보통’이 5,149명(57.8%), ‘ 좋음’이 3,057명(34.3%)이다. 20대에서는 ‘매우 나쁨’이 201명(0.7%), ‘나쁨’이 4,414명(15.0%), ‘보통’이 11,495명(39.2%), ‘ 좋음’이 12,422명(42.3%), ‘매우 좋음’이 827명(2.8%)이다. 30대에서는 ‘매우 나쁨’이 2,372명(6.0%), ‘나쁨’이 8,943명(22.6%), ‘보통’이 15,917명(40.3%), ‘ 좋음’이 11,537명(29.2%), ‘매우 좋음’이 746명(1.9%)이다. 40대에서는 ‘매우 나쁨’이 3,178명(4.1%), ‘나쁨’이 22,963명(29.4%), ‘보통’이 36,779명(47.1%), ‘ 좋음’이 14,240명(18.2%), ‘매우 좋음’이 984명(1.3%)이다. 50대에서는 ‘매우 나쁨’이 16,306명(10.0%), ‘나쁨’이 56,172명(34.3%), ‘보통’이 65,700명(40.2%), ‘ 좋음’이 23,693명(14.5%), ‘매우 좋음’이 1,762명(1.1%)이다. 60대에서는 ‘매우 나쁨’이 25,592명(11.1%), ‘나쁨’이 101,578명(44.1%), ‘보통’이 86,419명(37.5%), ‘ 좋음’이 16,965명(7.4%)이다.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나쁨'이 93,644명(17.4%), '나쁨'이 277,419명(51.5%), '보통'이 148,724명(27.6%), '좋음'이 19,238명(3.6%), '매우 좋음'이 95명(0.0%)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학력을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474명(5.3%), '중학교 졸업'이 2,060명(23.1%), '고등학교 졸업'이 6,071명(68.2%), '대학교 졸업이상'이 297명(3.3%)이다. 20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563명(5.3%), '중학교 졸업'이 1,081명(3.7%), '고등학교 졸업'이 19,290명(65.7%), '대학교 졸업이상'이 7,424명(25.3%)이다. 30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235명(0.6%), '중학교 졸업'이 6,105명(15.4%), '고등학교 졸업'이 18,301명(46.3%), '대학교 졸업이상'이 14,875명(37.6%)이다. 40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0,659명(13.6%), '중학교 졸업'이 5,573명(7.1%), '고등학교 졸업'이 38,369명(49.1%), '대학교 졸업이상'이 23,543명(30.1%)이다. 50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28,687명(17.5%), '중학교 졸업'이 34,076명(20.8%), '고등학교 졸업'이 76,975명(47%), '대학교 졸업이상'이 23,896명(14.6%)이다. 60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16,130명(50.4%), '중학교 졸업'이 57,623명(25%), '고등학교 졸업'이 44,971명(19.5%), '대학교 졸업이상'이 11,830명(5.1%)이다. 70세 이상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431,881명(80.1%), '중학교 졸업'이 65,114명(12.1%), '고등학교 졸업'이 33,561명(6.2%), '대학교 졸업이상'이 8,564명(1.6%)이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없음'이 7,978명(89.6%), '있음'이 923명(10.4%)이다. 20대에서는 '없음'이 23,219명(79.1%), '있음'이 6,139명(20.9%)이다. 30대에서는 '없음'이 36,592명(92.6%), '있음'이 2,923명(7.4%)이다. 40대에서는 '없음'이 75,757명(96.9%), '있음'이 2,387명(3.1%)이다. 50대에서는 '없음'이 155,697명(95.2%), '있음'이 7,936명(4.8%)이다. 60대에서는 '없음'이 224,210명(97.2%), '있음'이 6,344명(2.8%)이다. 70세 이상에서는 '없음'이 536,421명(99.5%), '있음'이 2,700명(0.5%)이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가구주 여부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가구주아님'이 8,901명(100%)이며, 20대에서는 '가구주아님'이 25,949명(88.4%), '가구주'가 3,410명(11.6%)이다. 30대에서는 '가구주아님'이 33,731명(85.4%), '가구주'가 5,784명(14.6%)이다. 40대에서는 '가구주아님'이 51,554명(66%), '가구주'가



26,590명(34%)이다. 50대에서는 '가구주아님'이 92,784명(56.7%), '가구주'가 70,850명(43.3%)이다. 60대에서는 '가구주아님'이 122,795명(53.3%), '가구주'가 107,760명(46.7%)이다. 70세 이상에서는 '가구주아님'이 232,114명(43.1%), '가구주'가 307,006명(56.9%)이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배우자 없음'이 4,233명(100%)이다. 20대에서는 '배우자 없음'이 28,642명(97.6%), '배우자 있음'이 717명(2.4%)이다. 30대에서는 '배우자 없음'이 24,420명(61.8%), '배우자 있음'이 15,095명(38.2%)이다. 40대에서는 '배우자 없음'이 40,402명(51.7%), '배우자 있음'이 37,742명(48.3%)이다. 50대에서는 '배우자 없음'이 75,066명(45.9%), '배우자 있음'이 88,568명(54.1%)이다. 60대에서는 '배우자 없음'이 107,006명(46.4%), '배우자 있음'이 123,549명(53.6%)이다. 70세 이상에서는 '배우자 없음'이 381,215명(70.7%), '배우자 있음'이 157,905명(29.3%)이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중증'이 7,673명(86.2%), '경증'이 1,229명(13.8%)이다. 20대에서는 '중증'이 25,606명(87.2%), '경증'이 3,753명(12.8%)이다. 30대에서는 '중증'이 27,113명(68.6%), '경증'이 12,402명(31.4%)이다. 40대에서는 '중증'이 40,813명(52.2%), '경증'이 37,331명(47.8%)이다. 50대에서는 '중증'이 76,756명(46.9%), '경증'이 86,878명(53.1%)이다. 60대에서는 '중증'이 70,605명(30.6%), '경증'이 159,949명(69.4%)이다. 70세 이상에서는 '중증'이 115,750명(21.5%), '경증'이 423,371명(78.5%)이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타인의존도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매우 높음'이 3,428명(38.5%), '높음'이 2,100명(23.6%), '보통'이 1,880명(21.1%), '낮음'이 1,493명(16.8%)이다. 20대에서는 '매우 높음'이 8,864명(30.2%), '높음'이 5,503명(18.7%), '보통'이 7,198명(24.5%), '낮음'이 7,794명(26.5%)이다. 30대에서는 '매우 높음'이 7,362명(18.6%), '높음'이 8,609명(21.8%), '보통'이 7,113명(18%), '낮음'이 16,431명(41.6%)이다. 40대에서는 '매우 높음'이 11,978명(15.3%), '높음'이 10,828명(13.9%), '보통'이 12,673명(16.2%), '낮음'이 42,664명(54.6%)이다. 50대에서는 '매우 높음'이 15,726명(9.6%), '높음'이 27,189명(16.6%), '보통'이 28,653명(17.5%), '낮음'이 92,065명(56.3%)이다. 60대에서는 '매우 높음'이 22,774명(9.9%), '높음'이 38,731명(16.8%), '보통'이

43,092명(18.7%), '낮음'이 125,958명(54.6%)이다.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높음'이 111,211명(20.6%), '높음'이 118,237명(21.9%), '보통'이 114,978명(21.3%), '낮음'이 194,696명(36.1%)이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취업정보 우선필요에 대하여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그외'가 8,343명(93.7%), '취업정보제공'이 559명(6.3%)이다. 20대에서는 '그외'가 22,161명(75.5%), '취업정보제공'이 7,198명(24.5%)이다. 30대에서는 '그외'가 35,477명(89.8%), '취업정보제공'이 4,038명(10.2%)이다. 40대에서는 '그외'가 67,009명(85.8%), '취업정보제공'이 11,135명(14.2%)이다. 50대에서는 '그외'가 139,824명(85.4%), '취업정보제공'이 23,809명(14.6%)이다. 60대에서는 '그외'가 197,469명(85.6%), '취업정보제공'이 33,086명(14.4%)이다. 70세 이상에서는 '그외'가 486,300명(90.2%), '취업정보제공'이 52,821명(9.8%)이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임금보조 우선필요에 대하여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그외'가 8,725명(98.0%), '임금보조'가 176명(2.0%)이다. 20대에서는 '그외'가 28,436명(96.9%), '임금보조'가 923명(3.1%)이다. 30대에서는 '그외'가 34,130명(86.4%), '임금보조'가 5,385명(13.6%)이다. 40대에서는 '그외'가 69,879명(89.4%), '임금보조'가 8,265명(10.6%)이다. 50대에서는 '그외'가 142,541명(87.1%), '임금보조'가 21,092명(12.9%)이다. 60대에서는 '그외'가 189,242명(82.1%), '임금보조'가 41,313명(17.9%)이다. 70세 이상에서는 '그외'가 448,045명(83.1%), '임금보조'가 91,076명(16.9%)이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난이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1,187명(13.7%), '어려움'이 3,365명(39.0%), '어렵지 않음'이 4,004명(46.4%), '전혀 어렵지 않음'이 80명(0.9%)이다. 20대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3,742명(14.9%), '어려움'이 5,218명(20.7%), '어렵지 않음'이 11,834명(47%), '전혀 어렵지 않음'이 4,386명(17.4%)이다. 30대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4,083명(11.5%), '어려움'이 5,472명(15.4%), '어렵지 않음'이 15,350명(43.3%), '전혀 어렵지 않음'이 10,533명(29.7%)이다. 40대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5,248명(7.3%), '어려움'이 19,726명(27.5%), '어렵지 않음'이 35,291명(49.2%), '전혀 어렵지 않음'이 11,392명(15.9%)이다. 50대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9,724명(6.4%), '어려움'이 40,024명(26.5%), '어렵지 않음'이 68,345명(45.2%), '전혀 어렵지 않음'이 33,209명(21.9%)이다. 60대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21,435명(10.1%), '어



려움'이 68,761명(32.4%), '어렵지 않음'이 100,729명(47.4%), '전혀 어렵지 않음'이 21,425명(10.1%)이다.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98,253명(21.2%), '어려움'이 187,016명(40.4%), '어렵지 않음'이 154,346명(33.4%), '전혀 어렵지 않음'이 23,129명(5.0%)이다.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매우 불만'이 1,320명(14.8%), '불만'이 2,466명(27.7%), '만족'이 5,115명(57.5%)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매우 불만'이 886명(3.0%), '불만'이 11,799명(40.2%), '만족'이 15,387명(52.4%), '매우 만족'이 1,287명(4.4%)이다. 20대에서는 '매우 불만'이 886명(3%), '불만'이 11,799명(40.2%), '만족'이 15,387명(52.4%), '매우 만족'이 1,287명(4.4%)이다. 30대에서는 '매우 불만'이 4,195명(10.6%), '불만'이 16,949명(42.9%), '만족'이 15,326명(38.8%), '매우 만족'이 3,044명(7.7%)이다. 40대에서는 '매우 불만'이 6,899명(8.8%), '불만'이 27,889명(35.7%), '만족'이 41,195명(52.7%), '매우 만족'이 2,161명(2.8%)이다. 50대에서는 '매우 불만'이 12,101명(7.4%), '불만'이 66,507명(40.6%), '만족'이 77,902명(47.6%), '매우 만족'이 7,123명(4.4%)이다. 60대에서는 '매우 불만'이 19,319명(8.4%), '불만'이 95,149명(41.3%), '만족'이 113,118명(49.1%), '매우 만족'이 2,968명(1.3%)이다.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불만'이 71,470명(13.3%), '불만'이 236,472명(43.9%), '만족'이 225,903명(41.9%), '매우 만족'이 5,277명(1%)이다.

<표 IV-3-1> 연령대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연령대	범주	M	SD	빈도(명)	백분율(%)
경제활동 참여	20세 미만	참여	-	-	78	0.9
		비참여			8,823	99.1
	20대	참여	-	-	11,668	39.7
		비참여			17,690	60.3
	30대	참여	-	-	12,557	31.8
		비참여			26,959	68.2
	40대	참여	-	-	27,007	34.6
		비참여			51,137	65.4
	50대	참여	-	-	51,254	31.3
		비참여			112,380	68.7

변수	연령대	범주	M	SD	빈도(명)	백분율(%)
	60대	참여	-	-	63,169	27.4
		비참여			167,385	72.6
	70세 이상	참여	-	-	40,927	7.6
		비참여			498,194	92.4
만나이	20세 미만	연속변수	17.14	1.51	8,901	-
	20대		23.80	2.78	29,359	-
	30대		35.56	2.66	39,515	-
	40대		45.16	2.83	78,144	-
	50대		54.86	2.87	163,634	-
	60대		64.58	2.88	230,555	-
	70세 이상		79.37	5.81	539,121	-
주관적 건강상태	20세 미만	매우 나쁨	3.26	0.62	71	0.8
		나쁨			624	7.0
		보통			5,149	57.8
		좋음			3,057	34.3
		매우 좋음			0	0.0
	20대	매우 나쁨	3.32	0.78	201	0.7
		나쁨			4,414	15.0
		보통			11,495	39.2
		좋음			12,422	42.3
		매우 좋음			827	2.8
	30대	매우 나쁨	2.98	0.91	2,372	6.0
		나쁨			8,943	22.6
		보통			15,917	40.3
		좋음			11,537	29.2
		매우 좋음			746	1.9
	40대	매우 나쁨	2.83	0.81	3,178	4.1
		나쁨			22,963	29.4
		보통			36,779	47.1
		좋음			14,240	18.2
		매우 좋음			984	1.3
	50대	매우 나쁨	2.62	0.89	16,306	10.0
		나쁨			56,172	34.3
		보통			65,700	40.2
		좋음			23,693	14.5
		매우 좋음			1,762	1.1
	60대	매우 나쁨	2.41	0.78	25,592	11.1
		나쁨			101,578	44.1
		보통			86,419	37.5
좋음		16,965			7.4	



변수	연령대	범주	M	SD	빈도(명)	백분율(%)	
학력	70세 이상	매우 좋음	2.17	0.75	0	0.0	
		매우 나쁨			93,644	17.4	
		나쁨			277,419	51.5	
		보통			148,724	27.6	
		좋음			19,238	3.6	
		매우 좋음			95	0.0	
	20세 미만	20대	초등학교 졸업이하	2.70	0.62	474	5.3
			중학교 졸업			2,060	23.1
			고등학교 졸업			6,071	68.2
			대학교 졸업이상			297	3.3
		30대	초등학교 졸업이하	3.11	0.70	1,563	5.3
			중학교 졸업			1,081	3.7
			고등학교 졸업			19,290	65.7
			대학교 졸업이상			7,424	25.3
		40대	초등학교 졸업이하	3.21	0.72	235	0.6
			중학교 졸업			6,105	15.4
			고등학교 졸업			18,301	46.3
			대학교 졸업이상			14,875	37.6
		50대	초등학교 졸업이하	2.96	0.96	10,659	13.6
중학교 졸업	5,573		7.1				
고등학교 졸업	38,369		49.1				
대학교 졸업이상	23,543		30.1				
60대	초등학교 졸업이하	2.59	0.94	28,687	17.5		
	중학교 졸업			34,076	20.8		
	고등학교 졸업			76,975	47.0		
	대학교 졸업이상			23,896	14.6		
70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이하	1.79	0.93	116,130	50.4		
	중학교 졸업			57,623	25.0		
	고등학교 졸업			44,971	19.5		
	대학교 졸업이상			11,830	5.1		
70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이하	1.29	0.65	431,881	80.1		
	중학교 졸업			65,114	12.1		
	고등학교 졸업			33,561	6.2		
	대학교 졸업이상			8,564	1.6		
직업훈련 경험 여부	20세 미만	없음	-	-	7,978	89.6	
		있음	-	-	923	10.4	
	20대	없음	-	-	23,219	79.1	
		있음	-	-	6,139	20.9	
	30대	없음	-	-	36,592	92.6	
		있음	-	-	2,923	7.4	

변수	연령대	범주	M	SD	빈도(명)	백분율(%)	
	40대	없음	-	-	75,757	96.9	
		있음			2,387	3.1	
	50대	없음	-	-	155,697	95.2	
		있음			7,936	4.8	
	60대	없음	-	-	224,210	97.2	
		있음			6,344	2.8	
	70세 이상	없음	-	-	536,421	99.5	
		있음			2,700	0.5	
	가구주 여부	20세 미만	가구주아님	-	-	8,901	100.0
			가구주			0	0.0
		20대	가구주아님	-	-	25,949	88.4
			가구주			3,410	11.6
30대		가구주아님	-	-	33,731	85.4	
		가구주			5,784	14.6	
40대		가구주아님	-	-	51,554	66.0	
		가구주			26,590	34.0	
50대		가구주아님	-	-	92,784	56.7	
		가구주			70,850	43.3	
60대		가구주아님	-	-	122,795	53.3	
		가구주			107,760	46.7	
70세 이상		가구주아님	-	-	232,114	43.1	
		가구주			307,006	56.9	
배우자 유무	20세 미만	배우자 없음	-	-	4,233	100.0	
		배우자 있음			0	0.0	
	20대	배우자 없음	-	-	28,642	97.6	
		배우자 있음			717	2.4	
	30대	배우자 없음	-	-	24,420	61.8	
		배우자 있음			15,095	38.2	
	40대	배우자 없음	-	-	40,402	51.7	
		배우자 있음			37,742	48.3	
	50대	배우자 없음	-	-	75,066	45.9	
		배우자 있음			88,568	54.1	
	60대	배우자 없음	-	-	107,006	46.4	
		배우자 있음			123,549	53.6	
	70세 이상	배우자 없음	-	-	381,215	70.7	
		배우자 있음			157,905	29.3	
장애정도	20세 미만	중증	-	-	7,673	86.2	
		경증			1,229	13.8	
	20대	중증	-	-	25,606	87.2	
		경증			3,753	12.8	



변수	연령대	범주	M	SD	빈도(명)	백분율(%)	
	30대	중증	-	-	27,113	68.6	
		경증			12,402	31.4	
	40대	중증	-	-	40,813	52.2	
		경증			37,331	47.8	
	50대	중증	-	-	76,756	46.9	
		경증			86,878	53.1	
	60대	중증	-	-	70,605	30.6	
		경증			159,949	69.4	
	70세 이상	중증	-	-	115,750	21.5	
		경증			423,371	78.5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20세 미만	매우 높음	2.16	1.11	3,428	38.5
			높음			2,100	23.6
			보통			1,880	21.1
			낮음			1,493	16.8
매우 낮음			0			0.0	
20대		매우 높음	2.47	1.18	8,864	30.2	
		높음			5,503	18.7	
		보통			7,198	24.5	
		낮음			7,794	26.5	
		매우 낮음			0	0.0	
30대		매우 높음	2.83	1.16	7,362	18.6	
		높음			8,609	21.8	
		보통			7,113	18.0	
		낮음			16,431	41.6	
		매우 낮음			0	0.0	
40대		매우 높음	3.10	1.14	11,978	15.3	
		높음			10,828	13.9	
		보통			12,673	16.2	
		낮음			42,664	54.6	
		매우 낮음			0	0.0	
50대		매우 높음	3.20	1.04	15,726	9.6	
		높음			27,189	16.6	
		보통			28,653	17.5	
		낮음			92,065	56.3	
		매우 낮음			0	0.0	
60대		매우 높음	3.18	1.04	22,774	9.9	
		높음			38,731	16.8	
		보통			43,092	18.7	
	낮음	125,958			54.6		
	매우 낮음	0			0.0		

변수	연령대	범주	M	SD	빈도(명)	백분율(%)
	70세 이상	매우 높음	2.73	1.15	111,211	20.6
		높음			118,237	21.9
		보통			114,978	21.3
		낮음			194,696	36.1
		매우 낮음			0	0.0
취업정보 우선필요	20세 미만	그외	-	-	8,343	93.7
		취업정보제공			559	6.3
	20대	그외	-	-	22,161	75.5
		취업정보제공			7,198	24.5
	30대	그외	-	-	35,477	89.8
		취업정보제공			4,038	10.2
	40대	그외	-	-	67,009	85.8
		취업정보제공			11,135	14.2
	50대	그외	-	-	139,824	85.4
		취업정보제공			23,809	14.6
	60대	그외	-	-	197,469	85.6
		취업정보제공			33,086	14.4
	70세 이상	그외	-	-	486,300	90.2
		취업정보제공			52,821	9.8
임금보조 우선필요	20세 미만	그외	-	-	8,725	98.0
		임금보조			176	2.0
	20대	그외	-	-	28,436	96.9
		임금보조			923	3.1
	30대	그외	-	-	34,130	86.4
		임금보조			5,385	13.6
	40대	그외	-	-	69,879	89.4
		임금보조			8,265	10.6
	50대	그외	-	-	142,541	87.1
		임금보조			21,092	12.9
	60대	그외	-	-	189,242	82.1
		임금보조			41,313	17.9
	70세 이상	그외	-	-	448,045	83.1
		임금보조			91,076	16.9
교통수단 이용난이도	20세 미만	매우 어려움	2.34	0.72	1,187	13.7
		어려움			3,365	39.0
		어렵지 않음			4,004	46.4
		전혀 어렵지 않음			80	0.9
	20대	매우 어려움	2.67	0.93	3,742	14.9
		어려움			5,218	20.7
		어렵지 않음			11,834	47.0



변수	연령대	범주	M	SD	빈도(명)	백분율(%)	
여가생활 만족도	30대	전혀 어렵지 않음	2.91	0.95	4,386	17.4	
		매우 어려움			4,083	11.5	
		어려움			5,472	15.4	
		어렵지 않음			15,350	43.3	
		전혀 어렵지 않음			10,533	29.7	
	40대	매우 어려움	2.74	0.81	5,248	7.3	
		어려움			19,726	27.5	
		어렵지 않음			35,291	49.2	
		전혀 어렵지 않음			11,392	15.9	
	50대	매우 어려움	2.83	0.84	9,724	6.4	
		어려움			40,024	26.5	
		어렵지 않음			68,345	45.2	
		전혀 어렵지 않음			33,209	21.9	
	60대	매우 어려움	2.58	0.81	21,435	10.1	
		어려움			68,761	32.4	
		어렵지 않음			100,729	47.4	
		전혀 어렵지 않음			21,425	10.1	
	70세 이상	매우 어려움	2.22	0.84	98,253	21.2	
		어려움			187,016	40.4	
		어렵지 않음			154,346	33.4	
		전혀 어렵지 않음			23,129	5.0	
	20세 미만	매우 불만	2.43	0.74	1,320	14.8	
					불만	2,466	27.7
					만족	5,115	57.5
					매우 만족	0	0.0
		20대	2.58	0.63	매우 불만	886	3.0
					불만	11,799	40.2
					만족	15,387	52.4
매우 만족					1,287	4.4	
30대		2.44	0.78	매우 불만	4,195	10.6	
				불만	16,949	42.9	
				만족	15,326	38.8	
				매우 만족	3,044	7.7	
40대	2.49	0.69	매우 불만	6,899	8.8		
			불만	27,889	35.7		
			만족	41,195	52.7		
			매우 만족	2,161	2.8		
50대	2.49	0.70	매우 불만	12,101	7.4		
			불만	66,507	40.6		
			만족	77,902	47.6		

변수	연령대	범주	M	SD	빈도(명)	백분율(%)
	60대	매우 만족	2.43	0.66	7,123	4.4
		매우 불만			19,319	8.4
		불만			95,149	41.3
		만족			113,118	49.1
		매우 만족			2,968	1.3
	70세 이상	매우 불만	2.31	0.71	71,470	13.3
		불만			236,472	43.9
		만족			225,903	41.9
		매우 만족			5,277	1.0

2)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

다음 표와 그림에서는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을 제시하였다. 각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비경제활동'이 8,823명(99.1%), '경제활동참여'가 78명(0.9%)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비경제활동'이 17,690명(60.3%), '경제활동참여'가 11,668명(39.7%)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비경제활동'이 26,959명(68.2%), '경제활동참여'가 12,557명(31.8%)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비경제활동'이 51,137명(65.4%), '경제활동참여'가 27,007명(34.6%)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비경제활동'이 112,380명(68.7%), '경제활동참여'가 51,254명(31.3%)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비경제활동'이 167,385명(72.6%), '경제활동참여'가 63,169명(27.4%)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비경제활동'이 498,194명(92.4%), '경제활동참여'가 40,927명(7.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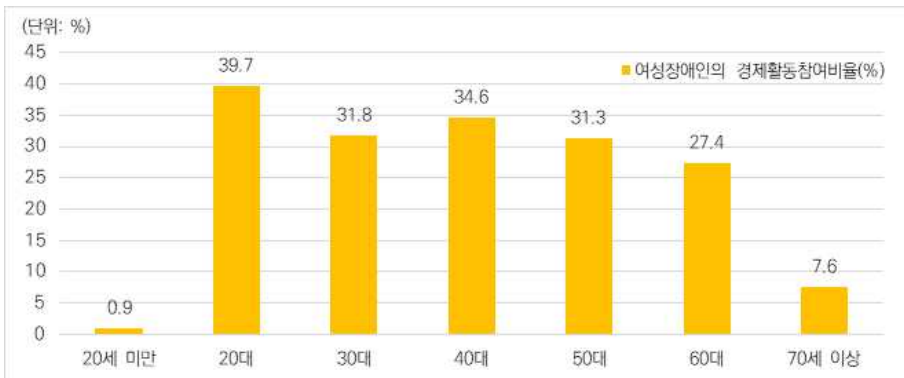
<표 IV-3-2>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변수	연령대	범주	빈도(명)	백분율(%)
경제활동 참여여부	20세 미만	비경제활동	8,823	99.1
		경제활동참여	78	0.9
	20대	비경제활동	17,690	60.3
		경제활동참여	11,668	39.7
	30대	비경제활동	26,959	68.2



변수	연령대	범주	빈도(명)	백분율(%)
	40대	경제활동참여	12,557	31.8
		비경제활동	51,137	65.4
	50대	경제활동참여	27,007	34.6
		비경제활동	112,380	68.7
	60대	경제활동참여	51,254	31.3
		비경제활동	167,385	72.6
	70세 이상	경제활동참여	63,169	27.4
		비경제활동	498,194	92.4
		경제활동참여	40,927	7.6



[그림 IV-3-1]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비율(%)

3)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1)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다음 표에서는 각 요인에 따른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비교하였다. 20세 미만 여성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78명 (0.9%)로 낮다. 그리고 가구요인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가구주인 경우는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가구주 여부와 배우자 유무 등의 변수는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0.9%(78명)인 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인구학적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나쁨’부터 ‘좋음’까지 비경제활동

100%에 해당하며, ‘매우 좋음’만 경제활동참여 100%에 해당하였다($\chi^2=150.429$, $p<0.001$). 인적자본요인 중 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이 비경제활동 100%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졸업’은 비경제활동 비율이 98.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3%에 해당하였다($\chi^2=36.694$, $p<0.001$). 직업훈련 경험 여부에서는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는 비경제활동 비율 100.0%에 해당하며,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1.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8.5%에 해당하였다($\chi^2=680.157$, $p<0.001$).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는 ‘중증’이 비경제활동 비율 99.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0%에 해당하였으며, ‘경증’은 비경제활동 비율 100%에 해당하였다($\chi^2=12.604$, $p<0.001$). 일상생활타인의 의존도는 ‘매우 높음’, ‘높음’, ‘보통’이 비경제활동 비율 100%에 해당하였으며, ‘낮음’은 비경제활동 비율 94.8%, 경제활동참여 비율 5.2%에 해당하였다($\chi^2=390.444$, $p<0.001$).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 우선필요에서는 ‘그외’에서 비경제활동 비율이 99.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0.9%에 해당하였으며, ‘취업정보제공’은 비경제활동 비율 100%에 해당하였다($\chi^2=5.272$, $p<0.05$). 임금보조 우선필요에서는 ‘그외’는 비경제활동 비율 100%에 해당하며, ‘임금보조’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5.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4.3%에 해당하였다($\chi^2=3900.946$, $p<0.001$).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 이용난이도에서는 ‘매우 어려움’,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음’이 비경제활동 비율 100%에 해당하며,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 98.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9%에 해당하였다. 여가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 ‘불만’이 비경제활동 비율 100%에 해당하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8.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5%에 해당하였다.

<표 IV-3-3>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인구학적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71	100.0%	0	0.0%	150.429***
		나쁨	624	100.0%	0	0.0%	
		보통	5,149	100.0%	0	0.0%	
		좋음	2,979	100.0%	0	0.0%	
		매우 좋음	0	0.0%	78	100.0%	
인적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74	100.0%	0	0.0%	36.694***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자본 요인		중학교 졸업	2,060	100.0%	0	0.0%	680.157***
		고등학교 졸업	5,993	98.7%	78	1.3%	
		대학교 졸업 이상	297	100.0%	0	0.0%	
	직업훈련 경험 여부	없음	7,978	100.0%	0	0.0%	
		있음	845	91.5%	78	8.5%	
가구 요인	가구주 여부	가구주 아님	8,823	99.1%	78	0.9%	-
		가구주	0	0.0%	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4,155	98.2%	78	1.8%	-
		배우자 있음	0	0.0%	0	0.0%	
장애 요인	장애정도	중증	7,595	99.0%	78	1.0%	12.604***
		경증	1,229	100.0%	0	0.0%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매우 높음	3,428	100.0%	0	0.0%	390.444***
		높음	2,100	100.0%	0	0.0%	
		보통	1,880	100.0%	0	0.0%	
		낮음	1,415	94.8%	78	5.2%	
		매우 낮음	0	0.0%	0	0.0%	
고용 지원	취업정보 우선필요	그외	8,265	99.1%	78	0.9%	5.272*
		취업정보제공	559	100.0%	0	0.0%	
	임금보조 우선필요	그외	8,725	100.0%	0	0.0%	3900.946***
		임금보조	98	55.7%	44.3	100.0%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 이용난이도	매우 어려움	1,187	100.0%	0	0.0%	91.033***
		어려움	3,365	100.0%	0	0.0%	
		어렵지 않음	3,927	98.1%	78	1.9%	
		전혀 어렵지 않음	80	100.0%	0	0.0%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	1,320	100.0%	0	0.0%	58.244***
		불만	2,466	100.0%	0	0.0%	
		만족	5,037	98.5%	78	1.5%	
		매우 만족	0	0.0%	0	0.0%	

* $p < 0.5$, ** $p < 0.01$, *** $p < 0.001$

(2) 2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다음 표에서는 각 요인에 따른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쁨’은 비경제활동 비율이 100%이며, ‘나쁨’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4.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5.4%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5.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4.8%이며, ‘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7.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3.0%이며, ‘매우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1.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8.7%로 주관적 건

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284.036, p<0.001$).

인적자본요인 중 학력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학교 졸업'에서 비경제활동 비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6.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3.2%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5.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4.9%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chi^2=1922.699, p<0.001$).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6.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3.8%이나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37.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62.2%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638.139, p<0.001$).

가구요인 중 가구주여부에서 '가구주 아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1.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8.5%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0.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9.3%로 나타나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47.840, p<0.001$). 배우자 유무에서 '배우자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1.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8.5%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20.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9.6%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488.358, p<0.001$).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 '중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2.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7.8%로 나타났으며, '경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7.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2.8%로 경증인 경우가 중증인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았다($\chi^2=305.630, p<0.001$).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 '매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7.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2.8%로 나타났으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4.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5.7%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7.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2.7%이며, '낮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2.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7.1%이며, '매우 낮음'에서는 해당 인원이 없었다.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매우 높음'에서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다른 범주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chi^2=3944.992, p<0.001$).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1.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8.8%이며, '취업정보제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7.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2.8%로 나타나 취업정보제공을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외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36.302$, $p<0.001$). 임금보조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0.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0.0%이며, ‘임금보조’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7.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2.8%로 나타나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 외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chi^2=19.027$, $p<0.001$).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이용난이도에서 ‘매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7.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7%이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0.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9.6%이며,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7.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2.8%이며, ‘전혀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8.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1.4%로 대체적으로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았다($\chi^2=3098.569$, $p<0.001$). 여가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100.0%에 해당하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 64.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5.5%이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6.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3.9%이며, ‘매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3.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6.4%로 나타나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상승하였다($\chi^2=935.428$, $p<0.001$).

<표 IV-3-4> 2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인구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201	100.0%	0	0.0%	2284.036***
		나쁨	3,734	84.6%	680	15.4%	
		보통	7,495	65.2%	3,999	34.8%	
		좋음	5,836	47.0%	6,586	53.0%	
		매우 좋음	424	51.3%	403	48.7%	
인적 자본 요인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63	100.0%	0	0.0%	1922.699***
		중학교 졸업	1,081	100.0%	0	0.0%	
		고등학교 졸업	10,952	56.8%	8,338	43.2%	
		대학교 졸업 이상	4,094	55.1%	3,331	44.9%	
	직업훈련 경험 여부	없음	15,371	66.2%	7,848	33.8%	1638.139***
있음	2,319	37.8%	3,820	62.2%			
가구	가구주	가구주 아님	15,962	61.5%	9,987	38.5%	147.840***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요인	여부	가구주	1,728	50.7%	1,682	49.3%	488.35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7,544	61.3%	11,098		38.7%
			배우자 있음	146	20.4%	571		79.6%
장애 요인	장애정도	중증	15,919	62.2%	9,687	37.8%	305.630***	
		경증	1,772	47.2%	1,981	52.8%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매우 높음	7,725	87.2%	1,138	12.8%	3944.992***	
		높음	2,438	44.3%	3,065	55.7%		
		보통	3,404	47.3%	3,794	52.7%		
		낮음	4,123	52.9%	3,671	47.1%		
	매우 낮음	0	0.0%	0	0.0%			
고용 지원	취업정보 우선필요	그외	13,571	61.2%	8,590	38.8%	36.302***	
		취업정보제공	4,120	57.2%	3,078	42.8%		
	임금보조 우선필요	그외	17,071	60.0%	11,365	40.0%	19.027***	
		임금보조	620	67.2%	303	32.8%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 이용난이도	매우 어려움	3,642	97.3%	101	2.7%	3098.569***	
		어려움	3,150	60.4%	2,068	39.6%		
		어렵지 않음	5,588	47.2%	6,245	52.8%		
		전혀 어렵지 않음	2,134	48.6%	2,253	51.4%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	886	100.0%	0	0.0%	935.428***	
		불만	7,613	64.5%	4,186	35.5%		
만족		8,631	56.1%	6,756	43.9%			
매우 만족		561	43.6%	727	56.4%			

* $p < 0.5$, ** $p < 0.01$, *** $p < 0.001$

(3) 3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다음 표에서는 각 요인에 따른 3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쁨’은 비경제활동 비율이 62.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7.6%이며, ‘나쁨’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2.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7.3%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4.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5.1%이며, ‘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4.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5.1%이며, ‘매우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0.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00.0%로 나타났다($\chi^2=2040.918$, $p < 0.001$).

인적자본요인 중 학력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00.0%(235명)이나 대상자가 235명에 불과하며, ‘중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2.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6%이며,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1.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8.7%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비경제



활동 비율이 43.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6.7%로 초등학교 졸업 이상을 제외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chi^2=7841.274$, $p<0.001$).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1.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8.7%이며,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29.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0.1%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142.342$, $p<0.001$).

가구요인 중 가구주여부에서 '가구주 아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0.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9.3%이며, '가구주'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3.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6.2%로 나타나 가구주인 경우에 아닌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653.938$, $p<0.001$). 배우자 유무에서 '배우자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9.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0.3%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5.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4.2%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66.864$, $p<0.001$).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 '중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7.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2.1%이며, '경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8.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1.2%로 나타나 경증과 중증 사이의 경제활동참여 비율 차이는 0.9%p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2.975$, $p<0.05$).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 '매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6.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3.6%로 나타났으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0.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9.7%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0.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9.6%이며, '낮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3.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6.7%이며, '매우 낮음'에서는 해당 인원이 없었다.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매우 높음'에서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다른 범주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chi^2=1567.242$, $p<0.001$).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0.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9.7%이며, '취업정보제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9.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0.3%로 나타나 취업정보제공을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외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711.585$, $p<0.001$). 임금보조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5.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4.2%이며, '임금보조'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3.3%,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16.7%로 나타나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 외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chi^2=653.727, p<0.001$).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이용난이도에서 ‘매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4.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6.0%이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5.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4.1%이며,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4.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5.4%이며, ‘전혀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0.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9.5%로 대체적으로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면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았다($\chi^2=2506.060, p<0.001$). 여가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4.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5.6%이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 70.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9.8%이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3.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6.7%이며, ‘매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3.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6.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상승하였다($\chi^2=319.842, p<0.001$).

<표 IV-3-5> 3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인구 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1,479	62.4%	893	37.6%	2040.918***
		나쁨	6,504	72.7%	2,439	27.3%	
		보통	10,333	64.9%	5,584	35.1%	
		좋음	8,642	74.9%	2,895	25.1%	
		매우 좋음	0	0.0%	746	100.0%	
인적 자본 요인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0%	235	100.0%	7841.274***
		중학교 졸업	5,641	92.4%	465	7.6%	
		고등학교 졸업	14,874	81.3%	3,427	18.7%	
		대학교 졸업 이상	6,444	43.3%	8,431	56.7%	
	직업훈련 경험 여부	없음	26,086	71.3%	10,506	28.7%	2142.342***
있음		873	29.9%	2,050	70.1%		
가구 요인	가구주 여부	가구주 아님	23,849	70.7%	9,882	29.3%	653.938***
		가구주	3,110	53.8%	2,675	46.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7,028	69.7%	7,392	30.3%	66.864***
배우자 있음		9,930	65.8%	5,164	34.2%		
장애 요인	장애정도	중증	18,423	67.9%	8,690	32.1%	2.975*
		경증	8,535	68.8%	3,867	31.2%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매우 높음	6,359	86.4%	1,003	13.6%	1567.242***
		높음	5,192	60.3%	3,417	39.7%	
		보통	5,007	70.4%	2,106	29.6%	
		낮음	10,400	63.3%	6,031	36.7%	
		매우 낮음	0	0.0%	0	0.0%	
고용 지원	취업정보 우선필요	그외	24,952	70.3%	10,526	29.7%	711.585***
		취업정보제공	2,007	49.7%	2,031	50.3%	
	임금보조 우선필요	그외	22,473	65.8%	11,657	34.2%	653.727***
		임금보조	4,485	83.3%	899	16.7%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 이용난이도	매우 어려움	3,428	84.0%	655	16.0%	2506.060***
		어려움	4,703	85.9%	770	14.1%	
		어렵지 않음	8,382	54.6%	6,968	45.4%	
		전혀 어렵지 않음	6,369	60.5%	4,164	39.5%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	3,123	74.4%	1,072	25.6%	319.842***
		불만	11,893	70.2%	5,057	29.8%	
		만족	9,698	63.3%	5,628	36.7%	
		매우 만족	2,245	73.7%	800	26.3%	

* $p<0.5$, ** $p<0.01$, *** $p<0.001$

(4) 4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다음 표에서는 각 요인에 따른 4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나쁨’이 비경제활동 비율이 100.0%로 나타났으며, ‘나쁨’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9.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0.7%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5.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4.2%이며, ‘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5.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4.3%이며, ‘매우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3.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6.1%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619.970$, $p<0.001$).

인적자본요인 중 학력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1.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8.3%이며, ‘중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9.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0.5%이며,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6.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3.8%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4.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5.8%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서 학력이 높을

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chi^2=10780.790$, $p<0.001$).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5.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5.0%이며,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0.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9.1%로 나타났다($\chi^2=258.704$, $p<0.001$).

가구요인 중 가구주여부에서 '가구주 아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5.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4.1%이며, '가구주'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4.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5.4%로 나타나 가구주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참여 비율 차이는 1.3%p로 나타났다($\chi^2=12.017$, $p<0.01$). 배우자 유무에서 '배우자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6.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3.6%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3.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6.3%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4443.566$, $p<0.001$).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 '중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5.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4.5%이며, '경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3.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6.5%로 나타나 경증인 경우가 중증인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15242.076$, $p<0.001$).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 '매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9.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0.7%이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9.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0.8%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8.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1.3%이며, '낮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8.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1.2%이며, '매우 낮음'에서는 해당 인원이 없었다.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상생활 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1932.590$, $p<0.001$).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2.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7.7%이며, '취업정보제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4.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5.6%로 나타났다($\chi^2=2058.373$, $p<0.001$). 임금보조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7.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2.7%이며, '임금보조'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9.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0.6%로 나타나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 외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046.461$, $p<0.001$).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이용난이도에서 '매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4.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5.5%이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9.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1.0%이며,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0.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9.5%이며, '전혀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0.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9.1%로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어렵지 않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았다($\chi^2=1390.276$, $p<0.001$). 여가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100.0%에 해당하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 82.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7.9%이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1.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8.2%이며, '매우 만족'에서는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00.0%로 나타나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상승하였다($\chi^2=14563.382$, $p<0.001$).

<표 IV-3-6> 4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인구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3,178	100.0%	0	0.0%	11619.970***
		나쁨	20,502	89.3%	2,461	10.7%	
		보통	20,515	55.8%	16,264	44.2%	
		좋음	6,509	45.7%	7,731	54.3%	
		매우 좋음	432	43.9%	551	56.1%	
인적 자본 요인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9,770	91.7%	889	8.3%	10780.790***
		중학교 졸업	5,544	99.5%	29	0.5%	
		고등학교 졸업	25,405	66.2%	12,964	33.8%	
		대학교 졸업 이상	10,417	44.2%	13,126	55.8%	
	직업훈련 경험 여부	없음	49,207	65.0%	26,550	35.0%	258.704***
가구 요인	가구주 여부	가구주 아님	33,955	65.9%	17,599	34.1%	12.017**
		가구주	17,182	64.6%	9,408	35.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30,867	76.4%	9,535	23.6%	4443.566***
		배우자 있음	20,269	53.7%	17,472	46.3%	
장애 요인	장애정도	중증	34,906	85.5%	5,907	14.5%	15242.076***
		경증	16,231	43.5%	21,100	56.5%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매우 높음	10,698	89.3%	1,280	10.7%	11932.590***
		높음	9,658	89.2%	1,171	10.8%	
		보통	9,969	78.7%	2,705	21.3%	
		낮음	20,812	48.8%	21,852	51.2%	
매우 낮음	0	0.0%	0	0.0%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고용 지원	취업정보 우선필요	그외	41,742	62.3%	25,267	37.7%	2058.373***
		취업정보제공	9,395	84.4%	1,740	15.6%	
	임금보조 우선필요	그외	47,051	67.3%	22,828	32.7%	1046.461***
		임금보조	4,086	49.4%	4,179	50.6%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 이용난이도	매우 어려움	3,911	74.5%	1,336	25.5%	1390.276***
		어려움	13,603	69.0%	6,122	31.0%	
		어렵지 않음	21,337	60.5%	13,954	39.5%	
		전혀 어렵지 않음	5,797	50.9%	5,595	49.1%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	6,899	100.0%	0	0.0%	14563.382***
		불만	22,904	82.1%	4,985	17.9%	
		만족	21,334	51.8%	19,861	48.2%	
		매우 만족	0	0.0%	2,161	100.0%	

* $p < 0.5$, ** $p < 0.01$, *** $p < 0.001$

(5) 5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다음 표에서는 각 요인에 따른 5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쁨’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8.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1.1%로 나타났으며, ‘나쁨’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8.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1.6%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5.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5.0%이며, ‘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6.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3.7%이며, ‘매우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100.0%로 나타났다. ‘매우 좋음’을 제외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아졌다($\chi^2=10018.514$, $p < 0.001$).

인적자본요인 중 학력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4.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5.6%이며, ‘중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2.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7.1%이며,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3.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6.2%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9.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0.4%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chi^2=5388.752$, $p < 0.001$).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1.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8.9%이며,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20.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9.1%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χ



$\chi^2=8860.321, p<0.001$).

가구요인 중 가구주여부에서 '가구주 아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2.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7.6%이며, '가구주'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3.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6.2%로 나타나 가구주 인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1398.237, p<0.001$). 배우자 유무에서 '배우자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9.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0.9%이며, '배우자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8.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1.7%로 배우자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참여 비율 차이는 0.8%p로 나타났다($\chi^2=14.292, p<0.001$).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 '중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6.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3.3%이며, '경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2.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7.3%로 나타나 경증인 경우가 중증인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21934.752, p<0.001$).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 '매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5.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8%이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7.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2.6%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5.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4.8%이며, '낮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6.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3.4%이며, '매우 낮음'에서는 해당 인원이 없었다.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일상생활 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6327.705, p<0.001$).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3.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6.9%이며, '취업정보제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2.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7.3%로 나타났다($\chi^2=8730.930, p<0.001$). 임금보조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9.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0.3%이며, '임금보조'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1.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8.2%로 나타나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 외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535.331, p<0.001$).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이용난이도에서 '매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5.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7%이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3.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6.6%이며,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9.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0.9%이며, '전혀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43.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6.4%로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어렵지 않을수

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았다($\chi^2=12474.466$, $p<0.001$). 여가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7.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2.6%이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 73.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7.0%이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3.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6.6%이며, '매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3.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6.5%로 나타나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상승하였다($\chi^2=4334.720$, $p<0.001$).

<표 IV-3-7> 5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인구 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12,869	78.9%	3,437	21.1%	10018.514***
		나쁨	44,059	78.4%	12,113	21.6%	
		보통	42,725	65.0%	22,976	35.0%	
		좋음	10,964	46.3%	12,728	53.7%	
인적 자본 요인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4,225	84.4%	4,461	15.6%	5388.752***
		중학교 졸업	24,841	72.9%	9,234	27.1%	
		고등학교 졸업	49,082	63.8%	27,893	36.2%	
		대학교 졸업 이상	14,231	59.6%	9,666	40.4%	
	직업훈련 경험 여부	없음	110,723	71.1%	44,974	28.9%	8860.321***
있음	1,657	20.9%	6,280	79.1%			
가구 요인	가구주 여부	가구주 아님	67,198	72.4%	25,586	27.6%	1398.237***
		가구주	45,182	63.8%	25,668	36.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51,907	69.1%	23,159	30.9%	14.292***
배우자 있음	60,473	68.3%	28,095	31.7%			
장애 요인	장애정도	중증	66,581	86.7%	10,175	13.3%	21934.752***
		경증	45,799	52.7%	41,079	47.3%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매우 높음	14,967	95.2%	759	4.8%	16327.705***
		높음	23,753	87.4%	3,437	12.6%	
		보통	21,535	75.2%	7,118	24.8%	
		낮음	52,125	56.6%	39,940	43.4%	
매우 낮음	0	0.0%	0	0.0%			
고용 지원	취업정보 우선필요	그외	102,210	73.1%	37,615	26.9%	8730.930***
		취업정보제공	10,170	42.7%	13,639	57.3%	
	임금보조 우선필요	그외	99,349	69.7%	43,192	30.3%	535.331***
		임금보조	13,031	61.8%	8,061	38.2%	
사회적	교통수단	매우 어려움	9,265	95.3%	458	4.7%	12474.466***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참여	이용난이도	어려움	29,363	73.4%	10,662	26.6%	4334.720***
		어렵지 않음	47,236	69.1%	21,109	30.9%	
		전혀 어렵지 않음	14,469	43.6%	18,740	56.4%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	10,583	87.4%	1,519	12.6%	
		불만	48,580	73.0%	17,927	27.0%	
		만족	49,404	63.4%	28,498	36.6%	
	매우 만족	3,812	53.5%	3,311	46.5%		

* $p < 0.5$, ** $p < 0.01$, *** $p < 0.001$

(6) 6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다음 표에서는 각 요인에 따른 6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쁨’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3.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6.2%로 나타났으며, ‘나쁨’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9.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0.6%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2.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7.1%이며, ‘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4.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5.4%이며, ‘매우 좋음’에서는 해당 인원이 없었다. 대체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아졌다($\chi^2=8611.433$, $p < 0.001$).

인적자본요인 중 학력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4.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5.8%이며, ‘중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0.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9.3%이며,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0.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9.9%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5.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4.3%로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 간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 차이가 0.6%p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보다 -5.6%p 낮게 나타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60대는 은퇴가 나타나는 연령대이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chi^2=465.725$, $p < 0.001$).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3.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6.2%이며,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29.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1.0%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6235.667$, $p < 0.001$).

가구요인 중 가구주여부에서 ‘가구주 아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4.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5.1%이며, ‘가구주’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0.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0.0%로 나타나 가구주 인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686.577, p<0.001$). 배우자 유무에서 ‘배우자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4.7%,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5.3%이며, ‘배우자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0.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9.2%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445.045, p<0.001$).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 ‘중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5.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4.8%이며, ‘경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7.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3.0%로 나타나 경증인 경우가 중증인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8135.530, p<0.001$).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 ‘매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3.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6.8%이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9.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0.4%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4.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5.2%이며, ‘낮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2.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7.1%이며, ‘매우 낮음’에서는 해당 인원이 없었다.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일상생활 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6569.960, p<0.001$).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3.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6.1%이며, ‘취업정보제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4.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5.4%로 나타났다. 취업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하는 경우가 그 외의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1236.263, p<0.001$). 임금보조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2.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7.9%이며, ‘임금보조’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74.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5.1%로 나타나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 외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chi^2=132.220, p<0.001$).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이용난이도에서 ‘매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6.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3.5%이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0.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9.2%이며,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4.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5.6%이며, ‘전혀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7.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2.1%로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어렵지 않을수



특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았다($\chi^2=9626.646, p<0.001$). 여가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5.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1%이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 76.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3.1%이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64.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5.5%이며, '매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9.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1.0%로 나타나 '매우 만족'을 제외하고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chi^2=10291.441, p<0.001$).

<표 IV-3-8> 60대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인구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21,440	83.8%	4,152	16.2%	8611.433***
		나쁨	80,645	79.4%	20,934	20.6%	
		보통	54,345	62.9%	32,075	37.1%	
		좋음	10,956	64.6%	6,009	35.4%	
		매우 좋음	0	0.0%	0	0.0%	
인적 자본 요인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86,206	74.2%	29,925	25.8%	465.725***
		중학교 졸업	40,723	70.7%	16,901	29.3%	
		고등학교 졸업	31,505	70.1%	13,466	29.9%	
		대학교 졸업 이상	8,952	75.7%	2,878	24.3%	
	직업훈련 경험 여부	없음	165,546	73.8%	58,665	26.2%	6235.667***
있음		1,840	29.0%	4,505	71.0%		
가구 요인	가구주 여부	가구주 아님	91,950	74.9%	30,845	25.1%	686.577***
		가구주	75,435	70.0%	32,325	3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79,940	74.7%	27,065	25.3%	445.045***
		배우자 있음	87,445	70.8%	36,104	29.2%	
장애 요인	장애정도	중증	60,164	85.2%	10,442	14.8%	8135.530***
		경증	107,221	67.0%	52,728	33.0%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매우 높음	21,218	93.2%	1,556	6.8%	16569.960***
		높음	34,718	89.6%	4,013	10.4%	
		보통	32,233	74.8%	10,859	25.2%	
		낮음	79,216	62.9%	46,742	37.1%	
매우 낮음	0	0.0%	0	0.0%			
고용 지원	취업정보 우선필요	그외	146,004	73.9%	51,464	26.1%	1236.263***
		취업정보제공	21,381	64.6%	11,705	35.4%	
	임금보조 우선필요	그외	136,447	72.1%	52,795	27.9%	132.220***
		임금보조	30,938	74.9%	10,375	25.1%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 이용난이도	매우 어려움	18,539	86.5%	2,897	13.5%	9626.646***
		어려움	55,540	80.8%	13,222	19.2%	
		어렵지 않음	64,892	64.4%	35,837	35.6%	
		전혀 어렵지 않음	12,413	57.9%	9,013	42.1%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	18,535	95.9%	784	4.1%	10291.441***
		불만	73,205	76.9%	21,944	23.1%	
		만족	73,002	64.5%	40,116	35.5%	
		매우 만족	2,643	89.0%	326	11.0%	

* $p < 0.5$, ** $p < 0.01$, *** $p < 0.001$

(7)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수준

다음 표에서는 각 요인에 따른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쁨’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8.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6%로 나타났으며, ‘나쁨’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3.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6.6%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8.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1.8%이며, ‘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0.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9.2%이며, ‘매우 좋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100.0%였으나 해당인원이 95명이다. ‘매우 좋음’을 제외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율은 20%미만으로 나타났다($\chi^2=12641.281$, $p < 0.001$).

인적자본요인 중 학력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3.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0%이며, ‘중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8.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1.6%이며,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4.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7%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6.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3.7%로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2300.353$, $p < 0.001$).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2.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4%이며,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57.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43.0%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4849.814$, $p < 0.001$).

가구요인 중 가구주여부에서 ‘가구주 아님’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5.5%, 경



제활동참여 비율이 4.5%이며, '가구주'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0.0%,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10.0%로 나타나 가구주 인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5688.719$, $p<0.001$). 배우자 유무에서 '배우자 없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2.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8%이며, '배우자 있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2.9%,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1%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의 차이는 0.7%p로 미미하였다($\chi^2=73.998$, $p<0.001$).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 '중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7.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6%이며, '경증'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1.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9.0%로 나타나 경증인 경우가 중증인 경우보다 6.4%p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5304.803$, $p<0.001$).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 '매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100.0%로 나타났으며, '높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7.1%,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2.9%이며, '보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0.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9.2%이며, '낮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6.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3.8%이며, '매우 낮음'에서는 해당 인원이 없었다.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일상생활 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23930.664$, $p<0.001$).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3.3%,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6.7%이며, '취업정보제공'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4.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6.0%로 나타났다. 취업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하는 경우가 그 외의 경우보다 높은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나타났다($\chi^2=5866.124$, $p<0.001$). 임금보조우선필요에서 '그외'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2.8%,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2%이며, '임금보조'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0.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9.6%로 나타나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 외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632.853$, $p<0.001$).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이용난이도에서 '매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7.0%,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3.0%이며, '어려움'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2.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7.8%이며,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6.6%,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3.4%이며, '전혀 어렵지 않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0.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9.5%로 대체적으로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어렵지 않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았다($\chi^2=8520.325$, $p<0.001$). 여가생활만족

도에서는 ‘매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99.2%,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0.8%이며, ‘불만’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 93.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6.6%이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9.4%,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0.6%이며, ‘매우 만족’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84.5%,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15.5%로 나타나 여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452.211, p<0.001$).

<표 IV-3-9>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요인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인구 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92,176	98.4%	1,468	1.6%	12641.281***
		나쁨	259,162	93.4%	18,257	6.6%	
		보통	131,208	88.2%	17,517	11.8%	
		좋음	15,552	80.8%	3,686	19.2%	
		매우 좋음	95	100.0%	0	0.0%	
인적 자본 요인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01,573	93.0%	30,309	7.0%	2300.353***
		중학교 졸업	57,574	88.4%	7,540	11.6%	
		고등학교 졸업	31,652	94.3%	1,909	5.7%	
		대학교 졸업 이상	7,395	86.3%	1,169	13.7%	
	직업훈련 경험 여부	없음	496,655	92.6%	39,766	7.4%	4849.814***
있음	1,539	57.0%	1,161	43.0%			
가구 요인	가구주 여부	가구주 아님	221,757	95.5%	10,358	4.5%	5688.719***
		가구주	276,437	90.0%	30,569	1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351,514	92.2%	29,701	7.8%	73.998***
		배우자 있음	146,680	92.9%	11,226	7.1%	
장애 요인	장애정도	중증	112,779	97.4%	2,971	2.6%	5304.803***
		경증	385,415	91.0%	37,956	9.0%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매우 높음	111,211	100.0%	0	0.0%	23930.664***
		높음	114,790	97.1%	3,447	2.9%	
		보통	104,343	90.8%	10,635	9.2%	
		낮음	167,850	86.2%	26,846	13.8%	
		매우 낮음	0	0.0%	0	0.0%	
고용 지원	취업정보 우선필요	그외	453,810	93.3%	32,490	6.7%	5866.124***
		취업정보제공	44,383	84.0%	8,438	16.0%	
	임금보조 우선필요	그외	415,866	92.8%	32,180	7.2%	632.853***
		임금보조	82,328	90.4%	8,747	9.6%	
사회적	교통수단	매우 어려움	95,294	97.0%	2,959	3.0%	8520.325***



변인	변수	범주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참여		χ^2
참여	이용난이도	어려움	172,523	92.2%	14,494	7.8%	8452.211***
		어렵지 않음	133,655	86.6%	20,691	13.4%	
		전혀 어렵지 않음	20,926	90.5%	2,203	9.5%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	70,883	99.2%	586	0.8%	
		불만	220,943	93.4%	15,529	6.6%	
		만족	201,909	89.4%	23,994	10.6%	
	매우 만족	4,459	84.5%	818	15.5%		

* $p < 0.5$, ** $p < 0.01$, *** $p < 0.001$

4)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은 연령대별로 진행하였으나 20세 미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0.9%(78명)에 불과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1)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와 같다.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chi^2=4522.238$, $p < 0.001$), 설명력은 22.1%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정보우선필요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나이($B=.050$, $p < .001$), 주관적건강상태($B=.191$, $p < .001$), 학력($B=.401$, $p < .001$), 직업훈련경험 여부($B=.606$, $p < .001$), 가구주여부($B=.260$, $p < .001$), 배우자유무($B=.950$, $p < .001$), 장애정도($B=-.481$, $p < .001$), 일상생활타인의존도($B=.217$, $p < .001$), 임금보조우선필요($B=-.981$, $p < .001$), 교통수단이용난이도($B=.540$, $p < .001$), 여가생활만족도($B=.501$, $p < .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만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5.1%(.051=1.051-1) 증가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1.0%(.210=1.210-1) 증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49.3%(.493=1.493-1) 증가하며,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

동 참여 가능성이 83.4%(.834=1.834-1) 높으며,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9.7%(.297=1.297-1)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58.5%(1.585=2.585-1) 높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8.2%(.382=1-.618) 낮으며, 일상생활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4.2%(.242=1.242-1) 증가하며,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62.5%(.625=1-.375) 낮으며,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71.5%(.715=1.715-1) 증가하며,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65.0%(.650=1.650-1) 증가하였다.

<표 IV-3-10>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Wald	OR
인구학적 요인	만나이	.050 ***	.005	87.469	1.051
	주관적건강상태	.191 ***	.022	74.882	1.210
인적자본 요인	학력	.401 ***	.023	295.094	1.493
	직업훈련경험 여부	.606 ***	.036	287.955	1.834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260 ***	.044	35.441	1.297
	배우자유무	.950 ***	.104	83.020	2.585
장애 요인	장애정도	-.481 ***	.054	80.898	.618
	일상생활타인의존도	.217 ***	.016	183.680	1.242
고용 지원	취업정보우선필요	-.010	.036	.074	.990
	임금보조우선필요	-.981 ***	.081	145.818	.375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이용난이도	.540 ***	.021	648.410	1.715
	여가생활만족도	.501 ***	.031	257.809	1.650
상수		-6.375***			
chi-square test		4522.238***			
Nagelkerke R ²		.221			

* $p < 0.5$, ** $p < 0.01$, *** $p < 0.001$

주) 기준범주 = 20세, 매우 나쁨,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없음, 가구주 아님, 배우자 없음, 종종, 매우 높음, 그외, 그외, 매우 어려움, 매우 불만

(2) 3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와 같다.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chi^2=9337.571$, $p < 0.001$), 설명력은 31.8%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가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나이($B=.110, p<.001$), 주관적건강상태($B=.355, p<.001$), 학력($B=1.335, p<.001$), 직업훈련경험 여부($B=1.110, p<.001$), 가구주여부($B=.345, p<.001$), 배우자유무($B=-.140, p<.001$), 장애정도($B=-1.087, p<.001$), 일상생활타인의존도($B=-.038, p<.05$), 취업정보우선필요($B=1.133, p<.001$), 임금보조우선필요($B=-.838, p<.001$), 교통수단이용난이도($B=.514, p<.001$), 여가생활만족도($B=-.640, p<.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만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1.6%($.116=1.116-1$) 증가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42.6%($.426=1.426-1$) 증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80.1%($2.801=3.801-1$) 증가하며,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03.6%($2.036=3.036-1$) 높으며,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41.1%($.411=1.411-1$)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3.1%($.131=1-.869$) 낮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66.3%($.663=1-.337$) 낮으며, 일상생활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7%($.037=1-.963$) 감소하며, 취업정보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10.4%($2.104=3.104-1$) 높으며,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56.7%($.567=1-.433$) 낮으며,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67.1%($.671=1.671-1$) 증가하며,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47.3%($.473=1-.527$) 감소하였다.

<표 IV-3-11> 3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Wald	OR
인구학적 요인	만나이	.110 ***	.006	304.808	1.116
	주관적건강상태	.355 ***	.018	384.443	1.426
인적자본 요인	학력	1.335 ***	.023	3409.615	3.801
	직업훈련경험 여부	1.110 ***	.055	410.923	3.036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345 ***	.038	83.604	1.411
	배우자유무	-.140 ***	.035	16.176	.869
장애	장애정도	-1.087 ***	.038	823.463	.337

	변수	B	(SE)	Wald	OR
요인	일상생활타인의존도	-.038 *	.015	6.381	.963
고용 지원	취업정보우선필요	1.133 ***	.041	766.037	3.104
	임금보조우선필요	-.838 ***	.047	314.465	.433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이용난이도	.514 ***	.019	767.319	1.671
	여가생활만족도	-.640 ***	.021	896.439	.527
상수		-8.547***			
chi-square test		9337.571***			
Nagelkerke R ²		.318			

* $p < 0.5$, ** $p < 0.01$, *** $p < 0.001$

주) 기준범주 = 30세, 매우 나쁨,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없음, 가구주 아님, 배우자 없음, 중증, 매우 높음, 그외, 그외, 매우 어려움, 매우 불만

(3) 4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와 같다.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chi^2=37526.233$, $p < 0.001$), 설명력은 55.5%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가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나이($B = -.065$, $p < .001$), 주관적건강상태($B = 1.135$, $p < .001$), 학력($B = .755$, $p < .001$), 직업훈련경험 여부($B = -1.794$, $p < .001$), 가구주여부($B = .862$, $p < .001$), 배우자유무($B = .720$, $p < .001$), 장애정도($B = 1.519$, $p < .001$), 일상생활타인의존도($B = .046$, $p < .01$), 취업정보우선필요($B = -.820$, $p < .001$), 임금보조우선필요($B = 1.508$, $p < .001$), 교통수단이용난이도($B = -.399$, $p < .001$), 여가생활만족도($B = 1.645$, $p < .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만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6.3%($.063 = 1 - .937$) 감소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11.3%($2.113 = 3.113 - 1$) 증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12.7%($1.127 = 2.127 - 1$) 증가하며,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83.4%($0.834 = 1 - .166$) 낮으며,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36.7%($1.367 = 2.367 - 1$)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05.4%($1.054 = 2.054 - 1$) 높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56.7%($3.567 = 4.567 - 1$) 높으며, 일상생활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4.7%($.047 = 1.047 - 1$) 증가하며, 취업정보를 우



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56.0%($.560=1-.440$) 낮으며, 임금 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51.8%($3.518=4.518-1$) 높으며,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2.9%($.329=1-.671$) 감소하며,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418.3%($4.183=5.183-1$) 증가하였다.

<표 IV-3-12> 4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Wald	OR
인구학적 요인	만나이	-.065 ***	.004	269.382	.937
	주관적건강상태	1.135 ***	.015	5491.475	3.113
인적자본 요인	학력	.755 ***	.017	1969.399	2.127
	직업훈련경험 여부	-1.794 ***	.060	884.347	.166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862 ***	.029	902.625	2.367
	배우자유무	.720 ***	.029	635.404	2.054
장애 요인	장애정도	1.519 ***	.024	3896.171	4.567
	일상생활타인의존도	.046 **	.014	10.376	1.047
고용 지원	취업정보우선필요	-.820 ***	.036	509.933	.440
	임금보조우선필요	1.508 ***	.041	1339.811	4.518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이용난이도	-.399 ***	.016	588.872	.671
	여가생활만족도	1.645 ***	.022	5757.366	5.183
상수		-9.845***			
chi-square test		37526.233***			
Nagelkerke R ²		.555			

* $p<0.5$, ** $p<0.01$, *** $p<0.001$

주) 기준범주 = 40세, 매우 나쁨,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없음, 가구주 아님, 배우자 없음, 종종, 매우 높음, 그외, 그외, 매우 어려움, 매우 불만

(4) 5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와 같다.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chi^2=44981.603$, $p<0.001$), 설명력은 35.7%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력과 배우자 유무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나이($B=-.116$, $p<.001$), 주관적건강상태

(B=.197, $p<.001$), 직업훈련경험 여부(B=2.573, $p<.001$), 가구주여부(B=.656, $p<.001$), 장애정도(B=1.554, $p<.001$), 일상생활타인의존도(B=.310, $p<.01$), 취업정보우선필요(B=.996, $p<.001$), 임금보조우선필요(B=.593, $p<.001$), 교통수단이용난이도(B=.376, $p<.001$), 여가생활만족도(B=.029, $p<.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만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0.9%(.109=1-.891) 감소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1.8%(.218=1.218-1) 증가하며,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210.5%(12.105=13.105-1) 높으며,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92.7%(.927=1.927-1) 높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73.0%(3.730=4.730-1) 높으며, 일상생활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6.3%(.363=1.363-1) 증가하며, 취업정보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70.6%(1.706=2.706-1) 높으며,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81.0%(.810=1.810-1) 높으며,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45.7%(.457=1.457-1) 증가하며,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9%(.029=1.029-1) 증가하였다.

<표 IV-3-13> 5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Wald	OR
인구학적 요인	만나이	-.116 ***	.002	2255.483	.891
	주관적건강상태	.197 ***	.008	657.193	1.218
인적자본 요인	학력	.000	.008	.003	1.000
	직업훈련경험 여부	2.573 ***	.034	5721.863	13.105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656 ***	.021	960.295	1.927
	배우자유무	-.024	.022	1.260	.976
장애 요인	장애정도	1.554 ***	.016	9034.900	4.730
	일상생활타인의존도	.310 **	.010	1039.009	1.363
고용 지원	취업정보우선필요	.996 ***	.017	3379.582	2.706
	임금보조우선필요	.593 ***	.019	935.030	1.810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이용난이도	.376 ***	.009	1707.491	1.457
	여가생활만족도	.029 **	.011	7.318	1.029
	상수				-.328*



	변수	B	(SE)	Wald	OR
	chi-square test	44981.603***			
	Nagelkerke R ²	.357			

* $p < 0.5$, ** $p < 0.01$, *** $p < 0.001$

주) 기준범주 = 50세, 매우 나쁨,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없음, 가구주 아님, 배우자 없음, 종종, 매우 높음, 그외, 그외, 매우 어려움, 매우 불만

(5) 6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와 같다.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chi^2=31267.179$, $p < 0.001$), 설명력은 19.6%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가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나이($B = -.043$, $p < .001$), 주관적건강상태($B = .313$, $p < .001$), 학력($B = -.080$, $p < .001$), 직업훈련경험 여부($B = 1.264$, $p < .001$), 가구주여부($B = 1.085$, $p < .001$), 배우자유무($B = .932$, $p < .001$), 장애정도($B = .542$, $p < .001$), 일상생활타인의존도($B = .524$, $p < .001$), 취업정보우선필요($B = .295$, $p < .001$), 임금보조우선필요($B = -.178$, $p < .001$), 교통수단이용난이도($B = .263$, $p < .001$), 여가생활만족도($B = .294$, $p < .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만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4.2%($.042=1-.958$) 감소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6.8%($.368=1.368-1$) 증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7.7%($.077=1-.923$) 감소하며,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54.1%($2.541=3.541-1$) 높으며,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95.8%($1.958=2.958-1$)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254.1%($1.541=2.541-1$) 높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71.9%($.719=1.719-1$) 높으며, 일상생활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68.8%($.688=1.688-1$) 증가하며, 취업정보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4.4%($.344=1.344-1$) 높으며,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6.3%($.163=1-.837$) 낮으며,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0.1%($.301=1.301-1$) 증가하며,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4.2% (.342=1.342-1) 증가하였다.

<표 IV-3-14> 6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Wald	OR
인구학적 요인	만나이	-.043 ***	.002	517.700	.958
	주관적건강상태	.313 ***	.008	1678.575	1.368
인적자본 요인	학력	-.080 ***	.006	173.866	.923
	직업훈련경험 여부	1.264 ***	.030	1785.200	3.541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1.085 ***	.020	3031.888	2.958
	배우자유무	.932 ***	.020	2192.538	2.541
장애 요인	장애정도	.542 ***	.013	1653.628	1.719
	일상생활타인의존도	.524 ***	.008	4851.338	1.688
고용 지원	취업정보우선필요	.295 ***	.015	408.512	1.344
	임금보조우선필요	-.178 ***	.014	164.183	.837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이용난이도	.263 ***	.008	1151.278	1.301
	여가생활만족도	.294 ***	.009	983.685	1.342
상수		-4.070			
chi-square test		31267.179***			
Nagelkerke R ²		.196			

* $p < 0.5$, ** $p < 0.01$, *** $p < 0.001$

주) 기준법주 = 60세, 매우 나쁨,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없음, 가구주 아님, 배우자 없음, 종종, 매우 높음, 그외, 그외, 매우 어려움, 매우 불만

(6)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표와 같다.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chi^2=39058.755$, $p < 0.001$), 설명력은 18.1%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가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나이($B = -.053$, $p < .001$), 주관적건강상태($B = .345$, $p < .001$), 학력($B = -.036$, $p < .001$), 직업훈련경험 여부($B = 2.314$, $p < .001$), 가구주여부($B = 1.058$, $p < .001$), 배우자유무($B = .457$, $p < .001$), 장애정도($B = .756$, $p < .001$), 일상생활타인의존도($B = .583$, $p < .001$), 취업정보우선필요($B = .694$, $p < .001$), 임금보조우선필요($B = .537$, $p < .001$), 교통수단이용난이도($B = .110$, $p < .001$), 여가생활만족도



($B=.294, p<.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의 승산비를 살펴보면, 만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5.2%(.052=1-.948) 감소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41.2%(.412=1.412-1) 증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5%(.035=1-.965) 감소하며,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911.3%(9.113=10.113-1) 높으며,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87.9%(1.879=2.879-1)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58.0%(.580=1.580-1) 높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12.9%(1.129=2.129-1) 높으며, 일상생활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79.2%(.792=1.792-1) 증가하며, 취업정보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00.2%(1.002=2.002-1) 높으며, 임금보조를 우선 필요로 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71.0%(.710=1.710-1) 높으며, 교통수단이용난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11.7%(.117=1.117-1) 증가하며,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34.2%(.342=1.342-1) 증가하였다.

<표 IV-3-15> 70세 이상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Wald	OR
인구학적 요인	만나이	-.053 ***	.001	2051.011	.948
	주관적건강상태	.345 ***	.008	1694.986	1.412
인적자본 요인	학력	-.036 ***	.008	19.668	.965
	직업훈련경험 여부	2.314 ***	.049	2227.594	10.113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1.058 ***	.017	3717.861	2.879
	배우자유무	.457 ***	.017	710.424	1.580
장애 요인	장애정도	.756 ***	.021	1272.391	2.129
	일상생활타인의존도	.583 ***	.008	5047.233	1.792
고용 지원	취업정보우선필요	.694 ***	.015	2155.658	2.002
	임금보조우선필요	.537 ***	.014	1484.759	1.710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이용난이도	.110 ***	.008	180.860	1.117
	여가생활만족도	.294 ***	.010	873.621	1.342
상수		-4.399***			
chi-square test		39058.755***			
Nagelkerke R ²		.181			

* $p<0.5$, ** $p<0.01$, *** $p<0.001$

	변수	B	(SE)	Wald	OR
--	----	---	------	------	----

주) 기준범주 = 70세, 매우 나쁨,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없음, 가구주 이님, 배우자 없음, 종종, 매우 높음, 그외, 그외, 매우 어려움, 매우 불만

(7)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 표에서 요약 하면, 첫째, 인구학적 요인 중 ‘만나이’에서는 20대와 30대는 만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만나이가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인적자본 요인 중 ‘학력’에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50대에서는 학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60대, 70세 이상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는 4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직업 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가구요인 중 ‘가구주 여부’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20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30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40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50대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넷째,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는 20대와 30대는 중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30대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나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다섯째,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 우선필요’에서는 20대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30대는 취업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



능성이 높았고, 40대는 그 외의 정보를 우선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고, 5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취업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임금보조 우선필요’에서는 20대, 30대, 60대는 임금보조를 우선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고, 40대, 50대, 70세 이상은 임금보조를 우선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여섯째,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 이용난이도’에서는 40대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교통수단의 이용이 용이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30대를 제외하고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표 IV-3-16>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인구학적 요인	만나이	1.051 ***	1.116 ***	.937 ***	.891 ***	.958 ***	.948 ***
	주관적 건강상태	1.210 ***	1.426 ***	3.113 ***	1.218 ***	1.368 ***	1.412 ***
인적 자원 요인	학력	1.493 ***	3.801 ***	2.127 ***	1.000	.923 ***	.965 ***
	직업훈련 경험 여부	1.834 ***	3.036 ***	.166 ***	13.105 ***	3.541 ***	10.113 ***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1.297 ***	1.411 ***	2.367 ***	1.927 ***	2.958 ***	2.879 ***
	배우자유무	2.585 ***	.869 ***	2.054 ***	.976	2.541 ***	1.580 ***
장애 요인	장애정도	.618 ***	.337 ***	4.567 ***	4.730 ***	1.719 ***	2.129 ***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1.242 ***	.963 *	1.047 **	1.363 **	1.688 ***	1.792 ***
고용 지원	취업정보 우선필요	.990	3.104 ***	.440 ***	2.706 ***	1.344 ***	2.002 ***
	임금보조 우선필요	.375 ***	.433 ***	4.518 ***	1.810 ***	.837 ***	1.710 ***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 이용난이도	1.715 ***	1.671 ***	.671 ***	1.457 ***	1.301 ***	1.117 ***
	여가생활 만족도	1.650 ***	.527 ***	5.183 ***	1.029 **	1.342 ***	1.342 ***

* $p < 0.5$, ** $p < 0.01$, *** $p < 0.001$

주 1. 기준범주 = X0세, 매우 나쁨,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없음, 가구주 아님, 배우자 없음, 중증, 매우 높음, 그외, 그외, 매우 어려움, 매우 불만

2. 연구결과의 연령대별 OR값을 기술함





V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FGI 조사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가지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경제활동에 가지는 어려움, 필요한 서비스 등과 경제활동참여 관련 여성 및 장애 관련 법안들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 및 개선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면접대상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으로 시설이나 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설로부터의 추천 또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소개를 받아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보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면접방법

면접대상자는 시설, 협회, 지인 등의 추천으로 방문을 약속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는 일터, 자택 혹은 면접대상자가 원하는 장소 주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일대일 또는 다대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책임자가 진행하였으며, 공동 연구진도 함께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4회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당사자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인터뷰를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룹 또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회당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일시	응답자	성별	만 나이	장애 정도	배우자 동거여부	가족과의 동거여부	최종 학력	특수교육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주된 장애유형
2023. 7.14.(금)	1	여성	47	중증	N	Y	고졸	일반학교 일반학급	건강한편	정신장애
7.14.(금)	2	여성	53	중증	N	N	전문대	일반학교	보통	정신장애

일시	응답자	성별	만 나이	장애 정도	배우자 동거여부	가족과의 동거여부	최종 학력	특수교육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주된 장애유형
							졸	일반학급		
2023. 7.14.(금)	3	여성	55	중증	N (왕래만)	N	중졸	일반학교 일반학급	건강한편	정신장애
2023. 7.14.(금)	4	여성	56	경증	N	N	초졸	일반학교 일반학급	보통	정신장애
2023. 8.19.(토)	5	여성	49	중증	Y	Y	전문대 졸	일반학교 일반학급	보통	청각장애
2023. 8.22.(화)	6	여성	57	중증	Y	Y	대졸	일반학교 일반학급	보통	지체장애
2023.8.24.(목)	7	여성	32	중증	Y	N	고졸	일반학교 특수학급	나쁜편	지적장애
2023.8.24.(목)	8	여성	24	중증	N	N	고졸	일반학교 특수학급	보통	지적장애
2023.8.24.(목)	9	여성	42	중증	N	Y	고졸	일반학교 일반학급	건강한편	정신장애
2023.8.24.(목)	10	여성	45	중증	Y	N	고졸	특수학교	건강한편	지체장애

<표 V-1-2> 인터뷰 질문문항

요인	인터뷰 질문문항
경제 활동	1. 장애를 갖게 된 이후로 경제활동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2. 경제활동에 어떠한 점이 불편하였습니까? 3. 구직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4. 직업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까? 5.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구학적 요인	1-1.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과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제시한 장애와 여성에 대한 어려움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문제점을 장애와 여성 측면에서 모두 겪으셨습니까? 한 측면만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여성 일자리대책은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목적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법 제1조에는 장애인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여성과 장애)을 포함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떠한 점이 반영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 요인	2-1.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과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인적자원 요인과 관련하여 제시한 장애와 여성에 대한 추진과제와 일자리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추진과제와 일자리대책이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각 영역에서 장애인고용법에는 장애인에 대하여만 언급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여성과 장애)을 포함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떠한 점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가구 요인	3-1.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가구요인과 관련하여 제시한 여성에 대한 일자리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일자리대책이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장애인고용법에는 여성장애인의 가구요인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 각 법안에는 여성장애인에 관한 관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장애인(여성과 장애)을 포함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떠한 점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장애 요인	4-1.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요인과 관련하여 제시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추진과제가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2. 장애인고용법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여성과 장애)을 포함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떠한 점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고용 지원	5-1.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과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고용지원과 관련하여 제시한 장애와 여성에 대한 추진과제와 일자리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추진과제와 일자리대책이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법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장애인(여성과 장애)을 포함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떠한 점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2.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그룹인터뷰에 기반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중심의미를 그룹화하여 하위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유사한 하위범주들을 상위범주로 그룹화하였다. 다음으로 상위범주를 통합하여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인터뷰 분석 결과를 범주화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범주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재배치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생각과 경험은 경제활동의 어려움, 여성장애인 지원, 인적자본 개발, 고용과 일자리 지원, 고용유지지원으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영역별로 2~3개의 상위범주와 1~3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여 11개의 상위범주와 20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V-1-3> 인터뷰 분석결과 범주화

구분	상위범주	하위범주
경제활동의 어려움	업무난이도	수행가능한 업무난이도가 낮음 특정상황에서 업무난이도가 높음
	기능보장	장애로 인하여 특정업무 수행이 불가능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함
여성장애인 지원	필요한 지원	출산·양육에서 어려움이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보조기기의 기능이 불충분함
	지원정책 체감	출산·양육지원 정보접근이 어려움
인적자본 개발	직업훈련	여성을 위한 교육은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직업선택의 어려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음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연결이 되지 않음
고용과 일자리 지원	여성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지원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음 여성장애인 취업지원이 잘 이루지고 있지 않음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의무고용제도는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 양육지원은 여성장애인의 육아에 도움이 됨 양육 및 가사지원은 여성장애인에게 부족한 수준임
고용유지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하지 않음
	편의시설 설치 지원	편의시설 설치하는 회사가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에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취업 자체가 되지 않음

1) 경제활동의 어려움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난이도가 낮은 장애인 당사자가 있었으며, 특정상황에서 업무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 특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정업무를 수행할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가 있었다.

(1) 업무 난이도

① 수행가능한 업무난이도가 낮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난이도를 수행할 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있었다. 장애로 인하여 수행이 가능한 업무난이도가 낮아서 비장애인 기업에 다닐 때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적응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업무난이도가 낮은 직장은 지속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환청 때문에 일을 하고싶어도 환청에 시달려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간호사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안돌아가고 근데 여기서 하는게 항상 똑같은거야. 이게 적응이 잘 되가지고 이런 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으로 다녔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얼마하고 때려치우고 얼마하고 때려치우고 너무 힘들니까 몸에 안 맞춰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하죠. 종이접기만 하면 되니까 접는 거니까.”

② 특정상황에서 업무난이도가 높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 업무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는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있었다. 청각장애인과 같은 경우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는데 회의할시 말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입모양이 아닌 듣는 것만 의존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알아듣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특정상황에서 업무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장애유형에 따라 여러 다른 상황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의를 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듣기만 바쁜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필기를 안하세요?’ 라고하면 저는 듣는다고 이걸 무슨 내용인지 들었더라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같이 안하세요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는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니까 투명 마스크가 아니니까 또 마스크 쓰면 발음이 더 불분명하게 들리잖아요. 명확하지 않고 그럼 저희는 이거 듣기 평가가 두배로 난이도가 더 올라간거죠.”
 “네 분석하느라 바빠요. 머리는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데 놓치면 또 물어봐야 되는데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늘 얘기했는데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타이밍이 애매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그건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다 끝나고 나서 따로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여러 번 그럴 경우에는 저도 좀 부담스럽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매번 그러니까 이랬으면 10번 계속 회의를 10번 했다. 그러면 10번 계속 또 물어봐야 되는 거야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어떨 때는 좀..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2) 기능보장

① 특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특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청각장애인과 같은 경우 전화업무가 불가능하지만 여성장애인이 구하는 직업에 대부분 전화가 기본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직업이 제한적임에 따라서 취업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가능한 직업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가능한 직업과 장애유형에 따라 직업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직업을 구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제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청각장애인은 전화를 일단 못 받아요. 보통 직업을 구한다는 건 전화가 기본 업무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전화가 안되요. 되도록 전화를 배제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 보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②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 자체를 하지 않았다.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건물 자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고용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이 활용하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기능 보장을 위하여 충분한 기능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저희 회사는 휠체어 장애인을 뽑지 않았어요. 아예 뽑지를 못했어요. 회사 자체에서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요. 시설이 부족해서 만약에 여성 휠체어 장애인이라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네이버 클로바 노트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보거든요. 대화 내용을 근데 100% 번역이 안 돼요. 이것도. 오번역이 많아요.”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

(1)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① 출산·양육의 어려움

인터뷰에서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는 출산과 양육문



제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많이 가진다고 응답하였다. 청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언어를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가 언어구사능력이 부족하기에 아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불안함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가장 여성장애인은 출산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출산하고 육어요. 어떤 장애인이다 마찮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가족이 있으면 좋지만 요즘 가족은 핵가족이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도움은 장애인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필기 활동은 되지만, 듣지는 못해서 아이한테 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면 어떡하지 내 발음이 어눌한데 똑같이 따라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이틀테면 지체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이 옷을 하나하나 입힐 때 옷을 입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출산 도우미가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있는 걸로 알지만 이 가사도우미도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② 경제적 어려움

인터뷰에서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우려하는 점은 수급비의 삭감이었다. 여성장애인 중 수급비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렇기에 수급비가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업무난이도가 낮은 일이라도 일을 하는 경우 수급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활동을 하는데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양육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만 지원이 거의 없기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음으로 비장애인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종이 거의 단순 노무직이라고 응답하였다.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기에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원이라면 (일을 하더라도) 수급비가 안 깎이는 거죠. 월급이 올라도 수급비가 안 바뀌고, 저희한테 지원이죠. 수급자한테는”

“저희한테는 (수급비가 수입의) 거의 80% 차지하는 거라”

“그거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가지고 출퇴근할 때 그때 경제적으로 좀 쪼들렸어요. 아이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저귀라든지 분류라든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옷도 사야 되고 해서 경제적으로 그때 굉장히 좀 쪼들렸죠. 많이.”

“비장애인 사업장에 가보면 없어요. 장애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작업장에만 고용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특히 중장년 여성 장애인들은 취업하기가 너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 노무직 거의 다 그런 거 장애인 일자리 거의 이거예요. 이거에 목매어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는 보면 거의”

③ 보조기기 기능 보강

여성장애인이 근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대화를 자막으로 써주는 기기와 같은 경우에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대화를 완벽하게 자막으로 옮겨주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며, 오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시설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이 경우 청각장애인은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 시설에 투명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정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보거든요. 대화 내용을 근데 100% 번역이 안 돼요. 이것도. 오번역이 많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자막으로 다 보여지는 그런거겠죠.”

“그러니까 투명 마스크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은 일단 그냥 마스크가 있잖아요. 보건 마스크 뜨잖아요. 이거 내릴 수는 없잖아요. 내려달라고 얘기해도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다 있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5인실에 입원하시가지고 다 보호자 또 환자들 사이에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 안 좋은 환자들 아버지처럼 좀 이렇게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사람 환자들 이거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2)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의 체감

① 출산·양육 지원

여성장애인이 응답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휴가가 큰 부분은 차지하였다. 사기업에서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양육 기간 중 예방접종 등 병원에 갈일이 있을 때 휴가를 받기 용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여성 전체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은 출산 축하금과 출산 도우미 기간을 추가한 부분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과 양육문



제에 있어서 비장애인 여성보다 장애인 여성이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원에 있어서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출산하고 나서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거는 그래도 저희 회사는 다행히도 조금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유연하다고 할까 1년 3개월간 육아휴직이랑 출산 휴가를 다 받았어요. 그거는 가능했고요. 대신 그 이후에는 이제 똑같아요.”
 “(여성 일자리 대책)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회사 다니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휴가를 아무래도 좀 더 주니까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아이 키울 때 신생아부터 5세까지는 예방접종이라든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꽤 많은데 토요일만 집중해서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다고 축하 지원금이 100만 원 외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전혀... 출산 도우미가 있었는데 원래 2주거든요. 기본. 장애인이라고 2주 더 추가를 했었어요. 4주, (그렇게) 두 가지뿐이었어요.”

② 정보접근

여성장애인과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을 위한 법과 장애인을 위한 법에서 따로따로 지원을 하기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때 여성관련 부서와 장애인 관련 부서에 따로따로 문의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법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과 정책이 여성과 장애인으로 양분되어 지원과 정책이 수립 되기에 각각 확인해야한다. 이에 통합적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장애와 여성을 같이 포괄하는 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따로 여성인 따로 하면 저희가 알아볼 때 여성부에 가서 알아봐야 되고 장애인 부서에 가서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데가 없었고 동사무소에 가셔도 이렇게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 좀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될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원을)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없어서 동사무소도 가서 물어보니까 지원되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막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기하고 거기서 딱 끊어버리면 일단 동사무소가 가장 기본적인데 거기서 알아보고 여기 있습니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연결이 아예 안되는 그런 상황이 꽤버린 거죠. 여성장애인법이 없으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3) 인적자본 개발

(1) 직업훈련

① 여성 대상 직업훈련과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입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취

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장애인이 보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네일 아트나 헤어 관련 교육이 많은데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장애인 입장에서 해당 교육과 관련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여성문화센터,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여성장애인 입장에서 해당 기관 등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응답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등의 교육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고 여성장애인이 취업을 하기 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하기가 유리하다는 이야기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 쪽은 안 했어요? 여성 쪽은 잘 모르겠어요. 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는 들었는데 가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아마 여성 쪽에서는 대부분 이틀테면 네일 아트라든지 아니면 좀 '직업 구하기 가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여성 쪽으로 가면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성은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가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네일이나 헤어 쪽이) 많았었는데 그게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배워가지고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그때 그 당시에는 과목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성문화센터 아니면 여성... 그때만 해도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가 없었고 여성 문화센터만 있었어요. 제가 그때 백수였을 때 여성문화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왜 이런 기관만 있지?'라는 것도 좀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는 생각을 못 해봤죠. “(실질적으로 직업 찾기에는) 여성보다 장애인 쪽이 좀 더 좋았어요.”

(2) 직업선택의 어려움

① 여성장애인의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문제

여성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이후 취업성공률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진로선택을 함에 있어서 임금수준과 취업률은 중요하다. 직업훈련을 통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를 기능하는 것이 관련 직종의 임금수준과 취업률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기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못했으며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두달인가 석달인가 다녔는데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짤렸어요. 저는 거기서 한 두 달이나 석 달 일하고요. 제가 과를 잘못 선택했었는데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있고 안 되는 과도 있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선호도가 다 틀리는데 저는 그때 인사 쪽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인사 쪽으로 취업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배운 건 인사에 관련된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 과라고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배우는 과로 갔었어요.”

② 여성장애인의 경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제공 문제

인터뷰에서 여성장애인은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훈련과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응답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여도 지원받는 일자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진 경력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직업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공단에 저도 많이 그걸 내봤어요. 의뢰도 해봤고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영업을 했으니까 사람 만나고 이런 거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안내 카운터,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병원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관공 서라든가 이런데 안내 카운터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없어요'(라고 하고) 아예 (접수를) 안 받아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맞춤 훈련을 해서 적절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곳을 취업할 수 있는 곳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예 없어요.”

“제가 운동을 12년을 하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스포츠 일자리를 하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포츠 일자리 하면 최저임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운동하면서 그냥 스포츠 일자리에서 돈도 나오고 그 돈을 그냥 내가 가져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4) 고용과 일자리 지원

(1) 여성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지원

① 정보제공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어떤 직업이 취업에 유리한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장애인이 취업을 많이 하는 직업, 취업에 유리한 전공 등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서 취업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장애인이 취업을 많이 하는 직업 등) 정보제공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다고 하지만 그 '여성 장애인이 취업하기 편한 직업이다.' 이거는 검색하면 잘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분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모아놓은 센터도 아예 없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과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는 그냥 이런 과가 있다. 그러면 와라. (이런 방식이었죠.)”

②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의 구직기간이 장기간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취업지원도 실적 유지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고용유지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유지가 불분명한 직업을 알선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이 잘 됐으면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취업이 워낙 안 돼가지고 7~8년 구직하니까”
 “그냥 한 번 취업하면 이렇게 실적 유지를 위한 그런 직업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웬지 좀 단기적으로만 취업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2) 여성 일자리 지원

① 여성고용할당제

여성장애인에게 있어서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장애인을 배제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성장애인이 느끼기에 여성의무고용제도는 여성장애인을 제외한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비장애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여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비장애인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만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일단 경력 단절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경력 단절로 딱 된 후로부터는 취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여성 장애인들은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보면 특히 우리가 고용의무제 막 이렇게 해도 들어가기에 여성 장애인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② 양육지원

여성장애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추가하여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출산 및 육아 휴직기간 동안 생활비는 배우자의 임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배우자의 경우 출산 축하 휴가 외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기에 배우자는 가정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 양육에 대한 문제가 여성장애인이 육아휴직을 받고 대부분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여성장애인이 근로에 종사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받고 양육에 시간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아이를 2016년에 낳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게 보면서 도움을 받겠다라고 느꼈죠. 왜냐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좀 더 인상됐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아이를 낳고 1년 3개월 동안 아이 아빠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좀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렸다고요. 어느 정도 월급이 그래도 조금 인상됐다면 도움을 조금 주잖아요.”
 “저희 회사에도 아이를 낳은 사람 이번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성분이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휴가를 낸 게 딱 그거예요. 일주일 휴가. 그러니까 왜 아이 낳았다가 출산 축하 휴가 그거 외에는 휴직을 안 들어가요. 전부 다”

③ 여성장애인에 대한 양육 및 가사지원 체감 수준

인터뷰에서 여성장애인이 양육을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장애유형에 따라 양육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가 정리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문제는 정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양육문제에 대한 강연을 할 때 여성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사지원도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소득수준이어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양육과 일 자리를 양립하는 상황에 있을 때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여성보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의 양육에 대해서 어떤 걸 가르쳤어요? 양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는 곳이 없고”
 “그 아이를 키울 때는 저희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시라든지 책이라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를테면 육아 책은 많아요. 도서관에 가면 많아요. 근데 여성 장애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양육 지침서는 없었어요.”
 “이번에 영등포에서 여성지원복지센터가 부모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랑 같이 들은 적 있는데 자막 지원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 과정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 거기 담당자들이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저 있을 때는 아예 이런 게 없었고 제가 끝난 후에는 제주도에서 가사 지원 서비스가 이제 복지관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가사 지원 서비스도 이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려면 항상 (시간이 걸리죠.) 저희는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고”

5) 고용유지지원

(1) 보조공학기기 지원

① 보조공학기기의 실효성 문제

장애인이 구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는 기능상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기능보조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회의 등 여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자막으로 다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만 아직 보조공학기기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준의 발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원하는 건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자막으로 다 보여지는 그런거겠죠.”

② 근로지원인의 필요성 여부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근로지원인을 활용하여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회사측에서 근로지원인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업무를 배정하면 근로지원인의 필요성이 급감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지원인이 필요하다면 근로지원인을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승진, 이직 등을 통하여 주요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지원인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이 있어봐야... 회사에도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지금 업무가 회의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서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승진..음..그게 저는 이게 제가 일 욕심이 별로 안 내가지고 승진을 못했는데 이게 저희 회사는 일 업무를 욕심을 내면 승진도 가능하고 그런 회사예요. 사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특별히 잘해주거나 더 이렇게 해주는 건 없지만 대신 뭐랄까 불이익을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괜찮기는 한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팀장이 됐다 하면 근로 지원 요청 하면 아마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③ 편의시설의 설치

여성장애인이 회사 내 편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회사에서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회사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배리어 프리를 고려해야 할 장애유형인 휠체어 사용자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냥 수유실이 있었으면 수유 일로 여성 장애인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저희 부서에는 없는데 다른 부서에 수유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유실에서 만약에 거기 제가 근무했다면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휠체어 장애인을 뽑지 않았어요. 아예 뽑지를 못했어요. 회사 자체에서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요. 시설이 부족해서 만약에 여성 휠체어 장애인이라면 필요할 것 같아요.”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결론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FGI 조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다음 표에서 기술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학적 요인 중 ‘만나이’에서는 20대와 30대는 만나이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만나이가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인적자본 요인 중 ‘학력’에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50대에서는 학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60대, 70세 이상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직업훈련경험 여부’에서는 4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가구요인 중 ‘가구주 여부’에서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구주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20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30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40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50대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넷째, 장애요인 중 ‘장애정도’에서는 20대와 30대는 중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며, 4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경증인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일상생활 타인의존도’에서는 30대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나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다섯째, 고용지원 중 ‘취업정보 우선필요’에서는 20대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30대는 취업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고, 40대는 그 외의 정보를 우선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고, 50대부터 70세 이상까지는 취업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임금보조 우선필요’에서는 20대, 30대, 60대는 임금보조를 우선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고, 40대, 50대, 70세 이상은 임금보조를 우선하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여섯째, 사회적 참여 중 ‘교통수단 이용난이도’에서는 40대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교통수단의 이용이 용이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30대를 제외하고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표 VI-1-1>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인구학적 요인	만나이	1.051 ***	1.116 ***	.937 ***	.891 ***	.958 ***	.948 ***
	주관적 건강상태	1.210 ***	1.426 ***	3.113 ***	1.218 ***	1.368 ***	1.412 ***
인적 자본 요인	학력	1.493 ***	3.801 ***	2.127 ***	1.000	.923 ***	.965 ***
	직업훈련 경험 여부	1.834 ***	3.036 ***	.166 ***	13.105 ***	3.541 ***	10.113 ***
가구 요인	가구주여부	1.297 ***	1.411 ***	2.367 ***	1.927 ***	2.958 ***	2.879 ***
	배우자유무	2.585 ***	.869 ***	2.054 ***	.976	2.541 ***	1.580 ***
장애 요인	장애정도	.618 ***	.337 ***	4.567 ***	4.730 ***	1.719 ***	2.129 ***
	일상생활 타인의존도	1.242 ***	.963 *	1.047 **	1.363 **	1.688 ***	1.792 ***
고용 지원	취업정보 우선필요	.990	3.104 ***	.440 ***	2.706 ***	1.344 ***	2.002 ***
	임금보조 우선필요	.375 ***	.433 ***	4.518 ***	1.810 ***	.837 ***	1.710 ***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사회적 참여	교통수단 이용난이도	1.715 ***	1.671 ***	.671 ***	1.457 ***	1.301 ***	1.117 ***
	여가생활 만족도	1.650 ***	.527 ***	5.183 ***	1.029 **	1.342 ***	1.342 ***

* $p < 0.5$, ** $p < 0.01$, *** $p < 0.001$

주 1. 기준범주 = X0세, 매우 나쁨,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없음, 가구주 아님, 배우자 없음, 중증, 매우 높음, 그외, 그외, 매우 어려움, 매우 불만

2. 연구결과와 연령대별 OR값을 기술함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FGI 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구분하여 경제활동의 어려움, 여성 장애인 지원, 인적자본 개발, 고용과 일자리 지원, 고용유지지원으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1) 경제활동의 어려움

① 업무 난이도

- 수행가능한 업무난이도가 낮은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난이도를 수행할 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업무난이도가 낮은 직장을 필요로 하였다.

- 특정상황에서 업무난이도가 높은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 업무에서 업무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었다. 청각장애인과 같은 경우 회의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애유형에 따라 여러 다른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능보강

- 특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특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청각장애인은 전화업무가 불가능하여 전화업무가 제외된 업무만 수행할 때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불가능한 업무가 있음을 나타내며, 불가능한 업무를 제외된 직업을 구할 필요성이나 업무를 배정받을 필요성이 있다.

-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건물 자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점은 장애유형에 따라 근무환경이 조성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보조기기가 장애인 당사자의 기능을 충분히 보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점은 보조기기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성을 보여준다.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

①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 출산·양육의 어려움

여성장애인은 출산과 양육문제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창구가 없다. 이에 양육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어려움

여성장애인 중 일부는 수급비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을 하는 경우 수급비가 삭감되는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양육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만 지원이 거의 없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종이 거의 단순 노무직이라 응답하였고 해당 직무는 임금수준이 낮기에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보조기기 기능 보강

여성장애인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기능보강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



거나 보편화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화를 자막으로 오기 없이 표기하는 기기나 프로그램은 없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으며, 투명마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경우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점은 장애유형에 따라 활용되는 보조기기의 기술개발을 요구하며 특정 기기 등의 사용 요청 보편화 또는 항시 사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②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의 체감

- 출산·양육 지원

여성장애인이 받고 있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휴가가 큰 부분은 차지하였다. 양육기간 중 병원 방문 필요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휴가에 대한 지원은 여성 전체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출산 축하금과 출산 도우미 기간 추가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과 양육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원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

- 정보접근

여성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탐색할 때 여성 관련법과 장애인 관련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달체계 역시 분리되어 있어서 관련정보 탐색할 시 여성관련 부서와 장애인 관련 부서에 따로따로 문의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은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3) 인적자본 개발

① 직업훈련

- 여성 대상 직업훈련과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게 여성 대상 직업훈련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여성 대상 직업훈련은 네일 아트나 헤어 관련 교육으로 이러한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여성장애인 입장에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여성장애인 입장에서 해당 기관 등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는 제기하였다.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등이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취업을 위해서는 여성 관련 직업훈련보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② 직업선택의 어려움

- 여성장애인의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문제

여성장애인이 직업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진로 관련 정보가 부재함이 나타났다. 진로선택을 하는데 임금수준과 취업률 정보는 중요하다. 임금수준과 취업률은 투입한 시간과 노력의 대가로 볼 수 있기에 직업 선택에 중요하다. 하지만 진로 관련 정보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성장애인의 선택에 불만족함이 나타났다.

- 여성장애인의 경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제공 문제

여성장애인에게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훈련과 일자리가 부족함이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인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여도 지원받는 일자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경력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4) 고용과 일자리 지원

① 여성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지원

- 정보제공

여성장애인이 직업 선택할 시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였다. 여성장애인이 취업하기에 유리한 직업, 취업에 유리한 전공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

여성장애인의 구직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있었고, 취업지원도 장기간 고용유지가 불투명하여 실적 유지를 위한 직업을 알선 받는 느낌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② 여성 일자리 지원

- 여성고용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에서 여성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성장애인은 여성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도 장애인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장애인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만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양육지원

양육지원을 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배우자에게 대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출산 및 육아 휴직기간 동안 생활비는 배우자의 임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응답이 있었고, 배우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기에 배우자는 가정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양육문제가 여성장애인이 육아휴직을 받고 대부분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받고 양육을 하는 선택지가 배제된 것으로 유연함을 얻기 위해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여성장애인에 대한 양육 및 가사지원 체감 수준

여성장애인이 양육 관련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장애유형에 따라 양육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데 정보가 부재하는 등 여성장애인은 양육문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에 양육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가사지원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을 받기에 양육과 일자리를 양립하는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5) 고용유지지원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의 실효성 문제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기능보조육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대화가 오기없이 자막으로 보여지길 원하나 아직 그러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른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도 기능보조육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조기기의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 근로지원인의 필요성 여부

사측에서 근로지원인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승진, 이직 등을 통하여 주요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지원인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편의시설의 설치

회사 내 편의시설 사용에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사측에서 설치된 편의시설을 사용가능한 장애인에 한하여 채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에 회사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고용에도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냈다.



2. 제언

1) 교육과 직업 훈련 강화

(1) 고등교육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20대·30대·40대 여성장애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다. 20대 초중반은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을 수학하는 기간으로 첫 일자리를 얻기 전 취업 준비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준비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을 기대할 수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 시기의 취업준비활동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 비장애인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교육훈련과 재학 중 일 경험과 같은 취업준비활동이 경제활동 참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졸자의 경우 학점, 현장실습, 외국어능력 등의 취업준비활동이 경제활동 참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박성재 외, 2006).

고등교육 이후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의 차이가 큰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55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 598만원의 59.3%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23).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률이 낮은 것도 고등교육 이후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일자리 이동률은 10.1%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일자리 이동률은 82.1%로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진입은 향후에도 중소기업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통계청, 2022a).

연구결과 및 상기 현상을 고려할 때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에서 지원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취업준비활동과 관련 정보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전공 선택의 시기부터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중요하다.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선택하는 전공 관련 직업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은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는 워크넷(worknet)에서 제공하고 있지만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 관련 정보 [하는 일, 관련학과, 관련자격, 훈련정보, 임금, 직업만족도, 전망, 업무수행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 업무활동(중요도, 수준), 일자리 현황, 관련직업 등]와 전공 관련 정보[개요, 적성 및 흥미, 관련학과, 취득자격, 진출직업,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 진출직업(상위 5개),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누적), 첫 일자리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의 일치 정도, 첫 일자리 업무내용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 등]이 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직업 및 전공 관련도 성별 및 장애유형별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비장애인 대학생들이 하는 취업준비활동을 보면⁵⁾ 첫째, 교내활동으로 연합 동아리에 가입하여 취업 관련 정보 수집, 프로젝트 진행, 포트폴리오 준비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둘째, 학회 활동을 통하여 각 학기마다 기업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 실무 경험, 기업 실무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인턴 활동을 통하여 실제 업무 프로세스 경험,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획득하고 있다.

취업준비활동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성재 외, 2006)를 고려할 때 장애인의 취업준비활동도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에게 취업준비 활동에는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 어떠한 접근방법이 있는지 등의 정보제공과 취업준비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한다.

(2) 직업훈련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직업훈련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직업훈련을 일자리 진입을 위한 필요로 한정하여 볼 경우 2020년 기준 40대의 일자리 진입자 비율은 10.9%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3)⁶⁾. 30대부터 50대까지는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을 필

4) 워크넷(work.go.kr)에서는 '직업·진로'에서 직업과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직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하는 일, 관련학과, 관련자격, 훈련정보, 임금, 직업만족도, 전망, 업무수행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 업무활동(중요도, 수준), 일자리 현황, 관련직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전공에 대하여 개요, 적성 및 흥미, 관련학과, 취득자격, 진출직업,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 진출직업(상위 5개),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누적), 첫 일자리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의 일치 정도, 첫 일자리 업무내용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고등교육을 수행할 시 필요한 취업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5) SK 채용공식블로그(www.skcareersjournal.com)의 '선배님, 대학생은 취업준비를 어떻게 하나요?'(류상혁, 202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요로 하다가보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욕구가 크며, 그중 40대가 일자리 유지 욕구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서는 50대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약 13배 높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70세 이상은 약 10배 높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50대는 기존 직장에서 명예퇴직과 같이 실직의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이고, 70세 이상은 은퇴 후 실직이 가능한 연령대이다. 이런 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구직을 위한 준비과정이란 판단을 할 수 있다.

FGI 인터뷰에서도 직업훈련의 목적이 구직이기에 여성 대상 직업훈련보다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을 고려한다면 직업훈련의 목적은 구직으로 여성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는 후 취업이 용이한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50대와 70세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직업훈련 후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직업훈련을 선택할 때 연령대별 취업관련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50대와 70세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훈련과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존 경력과는 다른 신규 일자리에 구직하고자 한다면 50대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신규 직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FGI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응답이 있었다. 직업훈련 후 취업관련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직업훈련 활용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50대와 70세 이상의 여성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나타난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실직 후 신규 직업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면 직업훈련 후 취업관련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직업훈련 후 진입가능한 직업, 임금수준, 장애유형별 취업률, 연령대별 취업률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50세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고 직업훈련을 활용하는데 긍정적이라 본다.

2) 업무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6)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고용노동부, 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9세 미만 일자리 진입자 비율은 32.0%, 30대는 13.2%, 40대는 10.9%, 50대는 11.6%, 60세 이상은 17.5%로 30대에서 50대까지의 일자리 진입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40대는 그 중 가장 낮은 10.9%로 나타났음

체 연령대에서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느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3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존도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FGI 인터뷰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기능보강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보편화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사측에서 근로지원인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능한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업무에 대한 타인의존도가 낮아야 한다. 보조기기의 기능보강 수준은 충분하지 않으며, 사측에서도 업무배정을 할 때 근로지원인이 없이 가능한 업무만 배정한다. 이는 사측에서 보조기기의 기능보강 수준이 불충분하더라도 그리고 근로지원인이 없더라도 업무가 가능한 여성장애인만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측에서 설치된 편의시설을 사용가능한 장애인에 한하여 채용한다고 응답에서도 비슷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보조기기의 기능보강 수준이 향상될수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능성이 올라가고,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타인의존도를 낮추고, 사내에 충분한 편의시설이 설치한다면 보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보조기기의 기능보강 수준 개선, 건강관리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이 필요하다.

3) 사회적 환경 개선

(1) 이동권 개선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40대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대에서 교통수단의 이용이 용이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여가생활만족도에서도 3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개선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교통수단의 이용 난이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도시 및 교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설계를 강조하고 보행로의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경로검색에 있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이용가능 경로와 도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정보는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정보에 포함하고 교통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선택지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

(2) 공동 양육 환경 조성

FGI 조사 응답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은 출산과 양육문제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창구가 없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휴가가 큰 부분은 차지하는데 비장애인 여성보다 양육에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출산 및 육아 휴직기간 동안 생활비를 배우자의 임금으로 충당하였고, 배우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기에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양육을 담당하는 선택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공동 양육 환경이 조성되려면, 첫째, 부부 중 누가 양육을 하든지 양육이 가능하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양육정보가 축적되어야 하고, 양육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육아휴직의 사용에서도 여성장애인과 배우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은 배우자가 육아를 담당해야 할 환경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육아휴직을 하고 양육을 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양육 난이도가 비장애인 여성보다 높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4) 경제활동 관련 법의 일원화

앞선 제언을 보면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정보는 성별로 제공해야 여성장애인이 해당 정보를 활용에 어려움이 없으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수유 시설과 같은 여성시설에 여성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출산과 양육문제도 여성에 관한 지원에 장애인 지원이라는 관점을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관련 법안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 관련 법안은 분리되어 있기에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지원을 받고, 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지만 여성장애인으로서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관련 법제정이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법제정이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여성 경제활동 관련 법에 장애인 관점을 추가하여 법개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법에 여성 관점을 추가하여 법개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관련 법제정은 최혜영의원 외 38인이 2021년 12월 2일 「장애여성지원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023년 10월 12일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이민호(2020)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제·개정된 법률은 총 541건이며 이중 제정된 법률은 18건으로 3.3%를 차지한다. 법제정은 3년간 3.3%라는 확률이 시사하는 것처럼 높은 난이도를 가진 일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법개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523건으로 법제·개정의 96.7%를 차지한다. 96.7%의 확률을 보면 법제정과 비교하여 법개정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다.

법개정을 한다면 여성 고용 관련법과 장애인 고용 관련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 고용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으며,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법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이 있다.

장애인고용법에는 여성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대하여 우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성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출산·양육에 대한 고려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한다면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지원을 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추가하여야 한다. 이는 출산·육아 등 지원은 휴가, 편의시설 등 그 범위가 넓기에 개정해야 할 범위는 광범위하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이미 되어있기에 여성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면 된다.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에 접근하는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대통령시행령 제정으로도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시행령의 제정을 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8).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 고용노동부(2023).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 곽현주, 최은영(201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429-456.
- 관계부처 합동(2017).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
- 국가지표체계(2022). 고등교육이수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24>
- 김경미, 윤재영(2010). ICF 모델에 기초한 장애인의 참여 척도 개발. 재활복지, 14(3), 95-119.
- 김도영, 김태훈(2022). 코로나-19 로 인한 성인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변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12(2), 47-58.
- 김우영(2007).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 김윤승, 정술(2012).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이 취업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2(1), 55-86.
- 박성재,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박순미(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305-332.
- 박자경(2008).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18(1), 27-51.
- 박지원(2020). 여성장애인연합 “4월17일을 여성장애인의 날로 선포합니다!”. 소셜 포커스.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계보건기구(2016). ICF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
- 손정현, 이영민(2011). 중고령 여성인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18(4), 69-88.
- 오은진, 민현주, 김지현(2009).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



- 업선택 결정 요인.
- 이민호(2020).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실증 연구: 정부입법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8(2), 105-138.
- 이석원, 정솔(2016).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6(1), 41-66.
- 이소영, 오수영, 손인숙(2021).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 지표에 대한 고찰.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1), 1-9.
- 정재훈(202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적 대응과 출산 현상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2022). 2021년 출생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2a).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 <http://www.kdawu.org/>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한애경, 윤혜미(2012). 중증과 경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2(3), 153-181.
- 한유미, 광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29-40.
- 황지연(2014). 전국여성장애인 한자리 모여 교육권확보 결의. *에이블뉴스*.
- 황지연(2015).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의 장벽 '편견·차별'. *에이블뉴스*.
- United Nations(2022).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령대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 2023년 10월

발행인 : 이경혜

발행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ISBN 978-89-6921-495-9(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